

제20차[2017]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www.kli.re.kr

김유빈 · 이지은 · 최승주
신선옥 · 이해정 · 정현상



KLI
한국노동연구원

**제20차(2017)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김유빈 · 이지은 · 최승주
신선옥 · 이혜정 · 정현상

목 차

| | |
|----------------------------------|----------|
| 요 약 | i |
| 제1장 머리말 | (김유빈) 1 |
| 제2장 한국노동패널 20차 조사의 개요 | (이지은) 4 |
| 제1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 4 |
| 제2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 6 |
| 제3절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 | 8 |
| 1. 조사 과정 및 조사 방법 | 8 |
| 2. 조사 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 14 |
| 제4절 응답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 15 |
| 1. 응답가구의 특성 | 15 |
| 2. 조사성공가구원의 특성 | 18 |
| 제5절 이사 및 분가 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 20 |
| 1. 이사 및 분가 가구의 특성 | 20 |
| 2. 비성공가구의 특성 | 21 |
| 3. 신규 가구원의 특성 | 25 |
| 제6절 통합표본 자료의 특성 | 28 |
| 1. 통합표본의 개요 | 28 |
| 2. 통합표본유지율의 개요 | 28 |
| 3. 응답가구의 특성 | 32 |
| 4. 이사 및 분가 가구의 특성 | 35 |
| 5. 비성공가구의 특성 | 35 |
| 6. 신규 조사자의 특성 | 37 |
| 제3장 조사가구의 특성 | (이혜정) 40 |
| 제1절 가구 및 세대 구성 | 40 |

| | |
|----------------------------|----------|
| 제2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 45 |
| 1. 가구주의 특성 | 45 |
| 2. 가구원의 특성 | 46 |
|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 48 |
| 제4장 가계경제 | (이혜정) 51 |
| 제1절 가구소득 | 52 |
| 1. 가구의 총소득 | 53 |
|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 54 |
| 제2절 가구지출 | 56 |
| 1. 생활비 | 57 |
| 2. 저 축 | 59 |
| 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 61 |
| 제3절 주거 형태 및 비용 | 63 |
| 1. 입주형태 및 주거비용 | 63 |
| 2. 주택의 종류 | 66 |
| 3. 주거지의 선택 | 67 |
| 제4절 자산 및 부채 | 68 |
| 1. 부동산자산 | 69 |
| 2. 금융자산 | 70 |
| 3. 가구의 부채 | 72 |
| 제5절 자녀 교육비 | 73 |
| 제5장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 (신선옥) 76 |
| 제1절 경제활동 상태 | 76 |
| 제2절 취업자의 특성 | 80 |
| 제3절 미취업자 | 85 |
| 1. 구직활동 | 85 |
|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 87 |

| | | |
|------------------------------|-------------|-----|
| 제6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 (정현상) | 90 |
| 제1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 | 91 |
| 제2절 근로시간 | | 94 |
| 1. 평균근로시간 | | 94 |
| 2. 초과근로시간 | | 98 |
| 제3절 임 금 | | 99 |
| 1.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산정방식 | | 99 |
| 2. 월평균 임금 | | 101 |
|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 | | 105 |
| 1. 비정규직의 규모 | | 105 |
|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 | 107 |
| 제7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 (정현상) | 109 |
| 제1절 종사상 지위 | | 110 |
| 제2절 근로시간 | | 112 |
|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 | 112 |
| 2. 주당 근로시간 | | 113 |
| 제3절 월평균 소득 | | 116 |
| 제4절 사업체의 창업 | | 120 |
| 제8장 경제활동 상태의 동태적 변화 | (이지은) | 122 |
| 제9장 전략적 사고 | (최승주) | 129 |
| 제1절 후진귀납법 | | 130 |
| 제2절 내적 전략사고 | | 134 |
| 제3절 눈을 통해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 | 137 |
| 참고문헌 | | 142 |

표 목 차

| | |
|--|----|
| <표 2- 1> 1~20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 5 |
| <표 2- 2> 1~20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 7 |
| <표 2- 3>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주요 연혁 | 7 |
| <표 2- 4>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 10 |
| <표 2- 5> 응답자의 본인/대리 응답 비중 | 11 |
| <표 2- 6>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 | 12 |
| <표 2- 7> 시기별 조사 진행률 추이 | 13 |
| <표 2- 8> 지역별 원표본가구유지율 | 16 |
| <표 2- 9> 1~20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 | 17 |
| <표 2-10> 1~20차년도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 18 |
| <표 2-11> 이사가구의 분포 | 21 |
| <표 2-12>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 수 | 22 |
| <표 2-13> 각 연도별 비성공 사유 | 23 |
| <표 2-14> 각 비성공가구 접촉 횟수 | 24 |
| <표 2-15>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 | 25 |
| <표 2-16> 개인 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 | 27 |
| <표 2-17> 1~9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통합표본) | 30 |
| <표 2-18>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통합표본) | 31 |
| <표 2-19> 응답자의 본인/대리인 응답 비중(통합표본) | 31 |
| <표 2-20>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통합표본) | 32 |
| <표 2-21>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통합표본) | 33 |
| <표 2-22>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통합표본) | 34 |
| <표 2-23> 이사가구의 분포(통합표본) | 35 |
| <표 2-24>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 수(통합표본) | 36 |
| <표 2-25> 2~9차년도 비성공 사유(통합표본) | 36 |

| | |
|---|----|
| <표 2-26> 비성공가구 방문 횟수(통합표본) | 37 |
| <표 2-27>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통합표본) | 38 |
| <표 2-28> 신규 조사자의 구성(통합표본) | 39 |
| | |
| <표 3- 1> 연도별 가구원 수 변화 추이(통합표본) | 42 |
| <표 3- 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통합표본) | 43 |
| <표 3- 3> 연도별 가족 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통합표본) | 44 |
| <표 3- 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 · 연령별 · 교육수준별 분포 추이(통합표본) | 46 |
| <표 3- 5> 연도별 조사 15세 이상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통합표본) .. | 47 |
| <표 3- 6> 연도별 출생자의 특성(통합표본) | 48 |
| <표 3- 7> 연도별 사망자의 특성(통합표본) | 49 |
| <표 3- 8> 연도별 사망자의 사망 원인(통합표본) | 50 |
| | |
| <표 4- 1> 연간 가구의 총소득(통합표본) | 54 |
| <표 4- 2> 9차(2017)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통합표본) | 55 |
| <표 4- 3> 연도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통합표본) | 58 |
| <표 4- 4> 9차(2017)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통합표본) | 59 |
| <표 4- 5> 연도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통합표본) .. | 60 |
| <표 4- 6> 9차(2017)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 (통합표본) | 62 |
| <표 4- 7> 9차(2017)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액수 (통합표본) | 62 |
| <표 4- 8> 연도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통합표본) | 64 |
| <표 4- 9> 연도별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통합표본) | 67 |
| <표 4-10> 9차(2017) 가구의 현재 거주지로의 이사 동기(통합표본) .. | 68 |
| <표 4-11> 연도별 부동산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통합표본) | 69 |
| <표 4-12> 연도별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통합표본) | 71 |
| <표 4-13> 연도별 부채 잔액 분포(통합표본) | 73 |
| <표 4-14> 9차(2017) 가구 내 자녀 유무 및 자녀 수(통합표본) | 74 |

| | |
|--|-----|
| <표 4-15> 9차(2017) 자녀의 사교육비 및 부담 정도(통합표본) | 75 |
| <표 5- 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 수(통합표본) | 77 |
| <표 5- 2> 연도별 경제활동 상태 비교(통합표본) | 79 |
| <표 5- 3> KLIPS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2009~2017년) | 81 |
| <표 5- 4> 경찰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2009~2017년) | 81 |
| <표 5- 5>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2009~2017년) | 82 |
| <표 5- 6> 경찰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2009~2017년) | 82 |
| <표 5- 7> 9차(2017)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통합표본) | 83 |
| <표 5- 8> 9차(2017)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 (통합표본) | 84 |
| <표 5- 9> 9차(2017) 특성별 구직방법(통합표본) | 87 |
| <표 5-10> 9차(2017) 미취업자가 구직 시 주로 겪는 어려움 (통합표본) | 88 |
| <표 6- 1> 임금근로자 수와 비중(통합표본) | 90 |
| <표 6- 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통합표본, 2017년) | 93 |
| <표 6- 3>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통합표본) | 95 |
| <표 6- 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통합표본, 2017년) | 96 |
| <표 6- 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통합표본, 2017년) | 96 |
| <표 6- 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통합표본, 2017년) | 97 |
| <표 6- 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통합표본, 2017년) | 98 |
| <표 6- 8>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지급방법(통합표본, 2017년) | 99 |
| <표 6- 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 (통합표본, 2017년) | 100 |
| <표 6-10> 월평균 임금 비교(통합표본) | 102 |

| | |
|---|-----|
| <표 6-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통합표본, 2017년) | 102 |
| <표 6-1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통합표본, 2017년) | 103 |
| <표 6-13>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직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통합표본, 2017년) | 104 |
| <표 6-1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통합표본, 2017년) | 106 |
| <표 7- 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통합표본) | 109 |
| <표 7- 2>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통합표본) | 110 |
| <표 7- 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 지위 분포(통합표본, 2017년) | 111 |
| <표 7- 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및 주평균 근로일수 (통합표본, 2017년) | 113 |
| <표 7- 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통합표본) | 114 |
| <표 7- 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통합표본, 2017년) | 115 |
| <표 7- 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통합표본, 2017년) | 116 |
| <표 7- 8> 월평균 소득 비교(통합표본) | 117 |
| <표 7- 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명목소득 (통합표본, 2017년) | 118 |
|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통합표본, 2017년) | 119 |
| <표 7-11>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통합표본, 2017년) | 119 |
| <표 7-12>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통합표본, 2017년) | 120 |
| <표 7-13>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통합표본, 2017년) | 120 |
| <표 8- 1>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 | 123 |

| | |
|--|-----|
| <표 8- 2> 성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 124 |
| <표 8- 3>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 125 |
| <표 8- 4> 학력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 127 |
| <표 9- 1> 현장 응답과 인터넷 응답 수와 인구학적 특성 분포 | 130 |
| <표 9- 2> 후진귀납법 합리성의 인구학적 특성 분포 | 134 |
| <표 9- 3> 내적 전략사고 합리성의 인구학적 특성 분포 | 137 |
| <표 9- 4> 마음을 읽는 능력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 분포 | 140 |
| <표 9- 5> 회귀분석 결과 | 141 |

그림목차

| | |
|--|----|
| [그림 2-1]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 수 추이 | 19 |
| [그림 2-2]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 | 26 |
| [그림 2-3] 통합표본의 개요 | 29 |
| [그림 2-4]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15세 이상 원표본가구원 수 추이 (통합표본) | 34 |
| [그림 2-5]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통합표본) | 38 |
| [그림 3-1] 9차(2017)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통합표본) | 44 |
| [그림 4-1] 9차(2017) 가구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통합표본) .. | 56 |
| [그림 4-2] 9차(2017)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통합표본) | 60 |
| [그림 4-3] 9차(2017)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 (통합표본) | 65 |
| [그림 4-4] 9차(2017) 거주지별 전세 거주자 임대보증금(통합표본) .. | 65 |
| [그림 4-5] 9차(2017) 거주지별 월세 거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세 (통합표본) | 66 |
| [그림 4-6] 9차(2017)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통합표본) | 70 |
| [그림 4-7] 연도별 금융자산의 종류별 평균금액 추이(통합표본) | 72 |
| [그림 5-1]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비교(2009~2017년) ... | 79 |
| [그림 5-2] 연도별 실업률 비교(2009~2017년) | 80 |
| [그림 5-3] 9차(2017) 미취업자의 구직방법(통합표본) | 86 |
| [그림 5-4] 9차(2017) 성별·근로시간 형태별 평균 희망임금 (통합표본) | 88 |

| | |
|--|-----|
| [그림 6-1] 임금근로자의 학력 분포(통합표본, 2017년) | 92 |
| [그림 6-2] 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통합표본, 2017년) | 92 |
| [그림 6-3]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통합표본, 2017년) | 106 |
| [그림 6-4]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통합표본, 2017년) | 107 |
| [그림 7-1]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통합표본) | 115 |
| [그림 9-1] 후진귀납법 행동실험에 대한 스크린 샷 | 132 |
| [그림 9-2] 후진귀납법 응답에 따른 유형 분포도 | 132 |
| [그림 9-3] 내적 전략사고 행동실험에 대한 스크린 샷 | 135 |
| [그림 9-4] 내적 전략사고 능력 유형에 대한 분포도 | 136 |
| [그림 9-5] RMET 설문에 대한 스크린 샷 | 138 |
| [그림 9-6] 마음을 읽는 능력에 대한 분포도 | 139 |

요약

○ 본 보고서의 목적

- 제20차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의 조사 과정 및 조사 진행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한편, 자료 정제(data cleaning)를 마친 조사 자료(data)를 분석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임.
- 1998년에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7년에 제20차 조사가 완료되었음. 제20차 조사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자체 예산 투입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하였음.

◆ KLIPS 20차 조사의 개요

○ 20차년도 조사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98표본 기준,

- 조사성공가구는 총 5,761가구로 원표본 3,355가구와 분가한 2,406가구이고, 개인 응답자는 전체 11,880명으로 기존 조사자 11,605명, 새로 진입한 신규 가구원 275명임.
- 표본유지율을 살펴보면, 1차년도 원표본 5,000가구 대비 원표본유지율은 67.1%로 전년도 원표본유지율에 비해 0.8%포인트 하락, 소멸가구를 제외한 유효표본가구(20차년도 4,670가구) 대비 표본유지율은 71.8%로 전년도 유효표본유지율에 비해 0.6%포인트 하락

○ 응답 형태를 살펴보면,

- 개인 응답자 중 본인 응답 비율은 96.4%임.
- 계속응답가구의 비율은 원가구 대비 42.8%이고, 1차 조사 당

시 원표본가구에 속해 있던 원표본가구원 대비 계속응답개인의 비율은 21.5%임.

- 비성공가구의 비성공 사유로는 ‘이사추적 실패’가 57.3%, ‘강력 거절’이 31.1%로 나타나, 향후에 KLIPS의 조사 성과를 유지해 나가는 데 이사가구를 어떻게 추적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임.

○ 통합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 2009년부터 축적된 통합표본은 1차년도 6,721가구로 시작되어 통합 9차년도(2017년도)에는 원가구 5,674가구, 분가가구 1,011가구 조사 성공
- 1차년도 원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9차년도 원표본유지율은 84.4%로 KLIPS 98표본의 8차년도 76.4%보다 월등히 높아 표본 유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개인 응답자는 13,774명으로 이 중 기존 응답자는 13,443명, 신규로 진입한 응답자는 331명임.

◆ 조사가구의 특성

○ 가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 평균 가구원 수는 2.7인이고, 4인 가구의 비중은 27.7%로 가장 높음.
- 세대별로 보면, 2세대 가구가 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비중은 23.8%임.

○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 남성이 76.9%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 평균연령은 53.1세이고,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대가 가구주의 3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5세 이상 전체 개인 응답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 여성의 비중이 50.1%로 남성보다 약간 높음.
- 평균연령은 45.9세이고,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및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가 각각 26.5%와 2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무학력자의 비중은 2.7%로 가장 낮음.

○ 가구의 출생과 사망을 살펴보면,

- 1~9차년도 기간 동안 출생한 가구는 총 1,744명이며, 9차년도 출생아는 154명으로 남아가 77명(50%), 여아가 77명(50%)임.
- 1~9차년도 기간 동안 총 628명이 사망하였고, 9차년도 사망자는 67명이며 사망자의 평균연령은 74.9세임.

◆ 가계경제

○ 가구의 총소득을 살펴보면,

- 9차년도의 명목 연간 총소득은 5,039만 원(월평균 42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4만 원 정도 증가함.
- 실질소득으로 환산하면 8차년도에 비해 205만 원 정도 증가한 4,990만 원임.

○ 월평균 생활비 및 저축에 대해 살펴보면,

- 월평균 생활비의 증가폭은 3차년도가 전년 대비 11만 원 증가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가져 9차년도에는 247만 원임.
-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71.4%이고, 월평균 저축액은 70만 8,000원임.

○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를 살펴보면,

- 가구주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26.1%였으며,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이 있는 경우는 27.3%임. 반면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77.9%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임.

- 반대로 가구주의 부모님과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도움은 각각 82.7%, 86.2%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도움은 35.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됨.
-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드린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주거 형태 및 비용을 살펴보면,

- 입주형태의 분포는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59.6%로 가장 높고, 이어서 월세 17.5%, 전세 17.2%로 나타남.
- 대지면적의 경우에는 도 지역이 서울의 2.5배, 광역시의 약 1.9배로 높게 나타났으나, 연건평이나 시가는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주거지의 시가는 서울이 가장 높은 4억 517만 원인 데 비해 광역시는 서울의 59% 정도에 해당하는 2억 3,838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도 지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2억 3,019만 원임.

○ 부동산자산을 살펴보면,

-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0%로 전년도(20.1%)와 비슷함.
-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자산 시가총액이 1억~3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음.

○ 금융자산에 대해 살펴보면,

-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1차년도가 58.2%로 가장 낮을 것이며 9차년도에는 80.2%로 나타나, 금융자산의 추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4차년도를 제외하고는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9차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460만 원이 증가하여 3,846만 원임.

○ 부채를 살펴보면,

- 부채가 있는 가구는 43%이고, 평균 부채 잔액은 1차년도 3,389만 원에서 9차년도에는 4,914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살펴보면,

-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0세~만 5세 이하는 35.7%, 만 6세~재수생 이하는 76.4%이며, 대학생 이상은 15.4%임.
-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중 자녀 수가 1명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0세~만 5세 이하는 72.6%, 만 6세~재수생 이하는 55.3%, 대학생 이상은 77.6%).
-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0세~만 5세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44만 5,000원(자녀당 월평균 교육비는 34만 5,000원), 만 6세~재수생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62만 원(자녀당 월평균 교육비는 41만 9,000원)이며, 대학생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연평균 1,191만 3,000원(자녀당 연평균 971만 9,000원)임.
-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0세~만 5세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32%, 만 6세~재수생 자녀의 경우에는 72%이며, 대학생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84.1%임.

◆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 조사연도별로 경제활동 상태를 요약하면,

- 통합패널 1차년도(2009년) 조사 당시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54.3%로 나타난 취업자 비중은 꾸준히 소폭 증가 추세를 보여 9차년도(2017년)의 경우 57.4%로 조사됨.
- 실업자의 비중(OECE 기준)은 1차년도 2.6%에서 3차년도까지 하락하였다가 4차년도에 소폭 증가한 다음, 5차년도에 다시 감소하여 9차년도에는 1.4%를 기록함.

-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9차년도에 41.3%임.

◆ 임금근로자의 특성

- 9차(2017)년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는 5,676명으로, 취업자의 74.9%
 - 특성별로는 고졸(34.8%) 및 40대(26.8%)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산업별로는 기타 서비스업(31.8%)이, 직종별로는 생산직(34.8%)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임금근로자의 9차(2017)년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3.0시간으로 나타남.
 - 특성별로는 남성(45.3시간)이 여성(40.0시간)보다 장시간 근로하며, 40대(43.8시간)의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음. 또한, 고졸자와 전문대졸자의 근로시간이 각각 43.8, 43.9시간으로 길게 나타남.
 -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는 임금근로자의 24.0%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였으며, 주당 평균초과근로시간은 8.4시간으로 조사됨.
- 임금근로자의 대부분(96.4%)이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월급제의 비중(72.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봉계약제의 비중(15.5%)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임금근로자의 9차(2017)년도 월평균 임금은 257만 2,000원
 - 여성의 월평균 임금(187만 3,000원)이 남성(309만 5,000원)의 60.5%에 불과했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의 월평균 임금(311만 8,000원)이 가장 높았음.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임금이 높았음.
 - 산업별 및 직종별 월평균 임금은 전기·가스 수도업(378만 1,000원)과 전문관리직(306만 9,000원)이 가장 높았음.
 - 기업형태별로는 외국인 회사(437만 1,000원)가, 종업원 규모별

로는 500인 이상 기업(393만 8,000원)이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았음.

- 9차(2017)년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4.7%
 - 유형별 비중은 한시적근로자(27.6%), 비전형근로자(12.3%), 그리고 시간제근로자(9.9%)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42.4%)이 남성(28.9%)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시간제근로자 비중(16.8%)은 남성(4.7%)의 3배 이상임.
 -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171만 7,000원)은 정규직의 56.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 9차(2017)년도에 조사된 비임금근로자는 2,236명으로 취업자의 25.1%
 - 각 종사상 지위의 비중은 자영업자(54.8%), 고용주(28.0%),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17.2%) 순으로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주의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비임금근로자의 9차(2017)년도 주당 근로일수는 5.7일로 평균 근로시간은 48.0시간으로 조사됨.
 - 1차(2009)년도 52.0시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
- 비임금근로자의 9차(2017)년도 월평균 소득은 334만 5,000원
 - 1차(2009)년도 이후 전반적인 증가 추세
- 9차(2017)년도에 조사된 창업자의 89.4%가 창업주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74.0%가 본인 또는 가족, 친지를 통해 자본금을 조달했으며, 정부의 보조를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의 동태적 변화

-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 간의 이동을 먼저 분석한 뒤, 성과 연령 그리고 학력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들의 이동 경로에 대해 분석
 - 통합 8차와 9차에서 모두 조사된 개인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뿐 아니라 통합 7차와 8차에서 모두 조사된 개인들에 대한 분석도 비교
 - 통합 8차 취업자가 9차에 계속 취업 상태로 남아 있을 확률은 94.0%, 실업할 확률은 1.0%,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할 확률은 5.0%임.
 - 여성의 취업지속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반면(남성: 95.5%, 여성: 92.0%),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은 훨씬 높음(남성: 3.5%, 여성: 7.2%).
 - 연령별로는 취업 상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40대(96.3%), 50대(96.0%), 30대(93.9%) 순으로 높고, 20대가 88.1%로 가장 낮아, 한 직장에 머물기보다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분주히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의사결정

- 제20차 KLIPS 부가조사는 전략적 사고능력의 응답자 특성에 대한 측정을 위해 행동실험과 설문조사를 병행함.
 - 게임이론에 대한 행동실험을 이용해서 후진귀납법(backward induction)과 내적 전략사고(introspective strategic thinking)를 측정하고,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눈을 통해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함.
- 응답은 현장에서 자율응답으로 진행하거나 자원자들이 인터넷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함.

- 총 852명의 참여자가 참여하였으며 402가구가 참여. 794명의 참여자가 현장에서 자율응답으로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58명이 온라인 응답을 통해 참여.
- 후진귀납법에 따른 합리성을 분석한 결과,
 - 남성이 여성보다 합리성이 높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합리성이 감소하였고, 학력이 증가할수록 합리성의 정도가 증가하였고, 취업 상태보다 미취업 상태가 합리성이 더 높으며, 가구자산의 경우에는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의 가구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높은 합리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남.
- 전략적 사고에 따른 합리성을 분석한 결과,
 - 남성이 여성보다 합리성이 높았고, 연령으로는 20대, 30대, 50대 이상, 40대 순으로 합리성이 높았고, 학력이 증가할수록 합리성의 정도가 증가하였고, 취업 상태가 미취업 상태보다 합리성이 더 높으며, 가구자산은 낮을수록 합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눈을 통한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분석한 결과,
 -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학력이 증가할수록 높았으며, 취업 상태보다 미취업 상태가 더 높고, 가구자산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았음.
- 회귀분석을 통해서, 개인의 합리성에는 연령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연령을 통제했을 때 후진귀납법에서는 남성 여부,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에서는 학력수준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 그 외의 취업 상태나 가구자산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음.

제 1 장

머리말

본 보고서는 제20차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의 조사 과정 및 조사 진행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한편, 자료 정제(data cleaning)를 마친 조사 자료(data)를 분석하여 KLIPS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LIPS는 단편적인 조사만으로 알기 어려운 노동시장에 관한 미시자료(micro data)들을 패널로 얻기 위해 실시하는 종단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KLIPS는 1998년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7년에 제20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KLIPS는 고용노동부의 지원하에 한국노동연구원 이 생산·점검·관리·공개 등 전 단계에 걸쳐 전담 수행하고 있다.

KLIPS는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표본으로 추출한 5,000가구와 이들 가구를 구성하는 13,321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패널 조사의 핵심은 우선적으로 최초 추출된 표본을 이후 조사에서 얼마나 많이 성공적으로 조사하는가에 달려 있다. KLIPS는 이번 제20차 조사에서 원표본 5,000가구 중 3,355가구를 성공적으로 조사하여 67.1%의 원표본유지율을 기록하였다. KLIPS는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조사는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가조사는 시대적 상황 및 KLIPS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를 발굴, 기본조사에 덧붙여 실시하는 추가적인 조사이다. 기본조사는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의 경제활동을 주로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에 대한

2 제20차(2017)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조사는 가구의 구성과 가구 소득 및 소비, 주거 등의 내용을 조사한다. 가구원에 대한 조사는 가구를 구성하는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실시하며, 취업자 개인(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과 미취업자 및 신규 진입자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내용은 개인의 경제활동, 노동력 상태, 소득, 노동이동 등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KLIPS는 패널자료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노동패널 팀은 조사원 교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조사원들의 KLIPS에 대한 이해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조사 현장을 조사원과 함께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욱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KLIPS는 자료 사용자들의 편의 제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패널자료 분석기법의 대중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양적·질적 간극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KLIPS는 학술대회에서 특별세션을 마련하여 패널자료 분석방법론에 대한 강연을 실시해 온 바 있다. 패널자료 분석방법론 강연은 난해하던 패널자료 분석기법들을 일반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연자료는 노동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품질 개선과 패널자료 분석의 대중화를 위한 KLIPS의 노력은 한국 노동시장 및 경제 전반에 대한 연구분석 활성화와 학제 간 연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KLIPS 유저 가이드 및 홈페이지에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를 마련하고 보충한 것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FAQ는 KLIPS의 사용·분석 등 활용 전반에 관련하여 빈도가 높은 27개 질문 위주로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KLIPS 자료 정제 및 분석에 관한 코드는 통계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SAS와 SPSS, STATA로 3원화하여 제공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R 사용자들의 사용편의를 반영하여 R 버전의 프로그램도 함께 작성하여 제공토록 하였다. 한국노동패널팀은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기 위한 자체적 노력과 더불어 사용자들로부터

의 제언을 바탕으로 FAQ 내용 및 문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며, 이에 자료 사용 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한 이용자의 적극적인 문의는 FAQ의 발전 및 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KLIPS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의 연장선에서, 한국노동패널팀은 연구 목적에 따라 개인 및 가구 데이터의 변수를 선택하고, 이의 연도별 결합을 용이하게 하는 SMART_KLIPS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있다. 현재 SMART_KLIPS는 STATA 버전만 제공되고 있지만, 추후 기타 통계 프로그램을 위한 SMART_KLIPS 버전의 확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KLIPS 설문구조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제20차 조사에 대해 개관하고, 제3장과 제4장은 가구에 대한 주요 조사 자료들을 분석하여, KLIPS 조사가구의 특성과 가계경제에 대해 다룬다. 제3장은 가구와 가구원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다루고, 제4장은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 가계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데 차이가 있다. 제5장부터 제7장은 가구원 개인에 대한 조사 내용에 집중한다. 제5장은 개별 가구원, 즉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 상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제6장과 제7장은 개별 근로자의 노동상태에 따른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근로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제8장은 패널자료의 동학(dynamics) 분석을 통해 개별 경제 주체들의 동태적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둔다. 제9장은 의사결정 부가조사 기초분석 자료이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1~20차년도(1998~2017년) 자료이다. 세부적으로 조사 개요 부분인 제2장 제1절~제5절은 추가 표본을 제외하고 1차년도에 설계된 98표본(5,000가구 기준) 위주로 분석하였다. 제2장 제6절, 제3장~제8장은 전국 단위의 통계를 보여주기 위해, 2009년에 추가된 표본을 포함한 통합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통합 1~9차년도(2009~2017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제 2 장

한국노동패널 20차 조사의 개요

제1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KLIPS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¹⁾

1998년에 표집된 가구를 기준으로 KLIPS의 진행 상황을 조사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1차년도에 조사된 가구는 5,000가구, 면접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13,321명이었다. 이후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원표본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각각 87.6%, 80.9%에 그쳤다. 이 당시 아직 한국에서 패널조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실사(fieldwork)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4차년도 이후 패널유지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보인다.

2017년에 실시된 제20차 KLIPS 조사에서는 원표본 3,355가구 및 분가한 2,406가구를 합하여 총 5,761가구에 대한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가구

1)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본 조사는 통계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통계청 승인번호: 33601).

기준 원표본유지율은 67.1%로 전년도에 비하여 0.8%포인트 하락하였다. 한편 개인 응답자는 총 11,880명이다.

〈표 2-1〉 1~20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 | 조사 대상 원가구- 소멸가구 | 조사성공 가구 수 ¹⁾ | 원표본 가구 수 ²⁾ | 원표본 유지율 ³⁾ | 유효표본 유지율 ⁴⁾ | 분가 가구 수 | 가구원 응답자 수 ⁵⁾ | 실사 기간 ⁶⁾ |
|----------|-----------------------|----------------------------|---------------------------|--------------------------|---------------------------|------------|-------------------------------|------------------------|
| 1차('98) | 5,000 | 5,000 | 5,000 | 100.0 | 100.0 | - | 13,321 | 6~10월 |
| 2차('99) | 5,000 | 4,507 | 4,378 | 87.6 | 87.6 | 129 | 12,037 | 7~12월 |
| 3차('00) | 5,000 | 4,266 | 4,044 | 80.9 | 80.9 | 222 | 11,205 | 4~10월 |
| 4차('01) | 5,000 | 4,248 | 3,866 | 77.3 | 77.3 | 382 | 11,051 | 4~10월 |
| 5차('02) | 5,000 | 4,298 | 3,798 | 76.0 | 76.0 | 500 | 10,966 | 4~10월 |
| 6차('03) | 4,993 | 4,592 | 3,862 | 77.2 | 77.3 | 730 | 11,541 | 5~9월 |
| 7차('04) | 4,949 | 4,761 | 3,862 | 77.2 | 78.0 | 899 | 11,660 | 5~9월 |
| 8차('05) | 4,935 | 4,849 | 3,822 | 76.4 | 77.4 | 1,027 | 11,580 | 4~10월 |
| 9차('06) | 4,914 | 5,001 | 3,820 | 76.4 | 77.7 | 1,181 | 11,756 | 4~10월 |
| 10차('07) | 4,899 | 5,069 | 3,775 | 75.5 | 77.1 | 1,294 | 11,855 | 4~9월 |
| 11차('08) | 4,862 | 5,116 | 3,710 | 74.2 | 76.3 | 1,406 | 11,734 | 4~10월 |
| 12차('09) | 4,833 | 5,306 | 3,658 | 73.2 | 75.7 | 1,648 | 11,739 | 3~10월 |
| 13차('10) | 4,803 | 5,379 | 3,607 | 72.1 | 75.1 | 1,772 | 11,582 | 7~12월 |
| 14차('11) | 4,787 | 5,404 | 3,528 | 70.6 | 73.7 | 1,876 | 11,376 | 7~익년2월 |
| 15차('12) | 4,771 | 5,469 | 3,517 | 70.3 | 73.7 | 1,952 | 11,442 | 6~12월 |
| 16차('13) | 4,742 | 5,501 | 3,472 | 69.4 | 73.2 | 2,029 | 11,330 | 6~12월 |
| 17차('14) | 4,742 | 5,552 | 3,451 | 69.0 | 72.8 | 2,101 | 10,756 | 3~10월 |
| 18차('15) | 4,702 | 5,632 | 3,421 | 68.4 | 72.8 | 2,211 | 11,445 | 4~11월 |
| 19차('16) | 4,687 | 5,714 | 3,393 | 67.9 | 72.4 | 2,321 | 11,652 | 4~11월 |
| 20차('17) | 4,670 | 5,761 | 3,355 | 67.1 | 71.8 | 2,406 | 11,880 | 3~11월 |

주: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에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 중 해당 연도에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원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에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4) '유효표본유지율'은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소멸한 원가구를 제외한 가구 대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5)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6) 14차 조사는 조사 익년 1월에 16건, 2월에 8건이 진행되었음.

제2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KLIPS는 10차년도 release 버전 자료부터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동안 각각의 연도별로 상이한 구조를 가졌던 설문지의 종류와 자료 및 변수들을 통합하고 재구조화하여 종단면 일치성(longitudinal consistency)을 갖도록 하였다. 개편된 자료는 크게 가구용 자료, 개인용 자료, 부가조사 자료, 그리고 직업력 자료로 나뉜다. <표 2-2>를 통해 자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용 자료는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 및 소득, 소비, 거주형태, 자산, 부채 등 가구 단위의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개인용 자료는 조사 당시 갖고 있던 주된 일자리의 특성과 관련된 문항,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 응답자에 관련된 문항, 그리고 조사에 진입할 당시에 한 번만 조사되는 문항들(출생지, 14세 당시 거주지, 부모님의 직업, 교육수준 등)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직업력 자료는 개인의 주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15세 이후 가졌던 모든 일자리의 산업, 직업,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에 대해 ‘일자리 단위’로 누적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자료들이 조사 차수별로 각각 존재하는 반면, 직업력 자료는 1개의 데이터 세트만을 가지게 된다.

가구용 및 개인용으로 구성되어 매년 비슷한 내용을 반복 조사하는 본조사 자료와는 달리, 3차년도부터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2차년도 조사가 진행된 2009년 이후부터 고용형태 관련 설문이 본조사 설문으로 편입되면서 응답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고용형태와 관련된 별도의 부가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KLIPS 연혁을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1998년 1차 조사가 시작된 이후 9차년도까지는 표본유지율을 최대한 높이고 실사를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9차 조사(2006년)부터 중요한 조사전략상의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조사도구를 서면조사(Pensile and Paper Interviewing :

〈표 2-2〉 1~20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 | | 내용 | |
|---------|---------|---|--|
| 가구용 자료 | KLIPS_H | 가구의 기본정보 가구 특성 관련 설문(소득, 소비, 주거 등) | |
| 개인용 자료 | KLIPS_P | 주된 일자리의 특성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
| | | 응답자 공통 | 취업자 미취업자 |
| | | 신규 조사자 문항 | |
| 부가조사 자료 | KLIPS_A | 청년층 조사(3차) 건강과 은퇴(4차) 중고령자 조사(6차) 근로시간과 여가(7차) 노동조합과 노사관계(8차) | 청년층 조사(9차) 고용형태 조사(10차) 교육(11차) 시간 사용과 삶의 질(17차) 장년층, 삶의 인식(18차) 청년층 조사(19차) 의사결정(20차) |
| 직업력 자료 | KLIPS_W | 개인이 가졌던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 | |

〈표 2-3〉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주요 연혁

| | 조사 연혁 |
|-----|--------------------------------|
| 1차 | 1998년 노동패널 시작, 5,000가구 및 그 가구원 |
| 10차 | 2007년 노동패널 실사, CAPI 부분 도입 |
| 11차 | 2008년 노동패널 실사, CAPI 전면 도입 |
| 12차 | 2009년 노동패널 실사, 1,415가구 표본 추가 |

PAPI)에서 노트북을 이용한 면접조사(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 CAPI)로 이행하기로 한 의사결정이었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개발한 패널조사 전용 소프트웨어인 Blaise에 기반한 조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07년에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전·충청 지역의 560가구(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각 280가구)를 추출하여 조사도구 변경이 표본의 응답 패턴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즉 모드 효과(mode effects)에 대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두 조사도구 간에 체계적인 응답 패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2008년 11차 조사부터 전체 표본에 대해 CAPI로의 전면

적인 이행을 실시하였다.

2009년(12차 조사)에는 표본의 전국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약 1,500개 가구의 표본을 추가하였다.²⁾ 1998년에 추출된 표본(이하 KLIPS 98표본)은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가구를 표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국인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9년 표본 추가에 따라 제주도 및 농촌 지역을 포괄함으로써 전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제3절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

1. 조사 과정 및 조사 방법³⁾

KLIPS의 실사는 민간 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차년도 조사는 2017년 3월부터 11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방법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 타계식(face-to-face interview)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 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설문지에 한하여 유치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은 가구용 설문을 반드시 직접면접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개인용 설문지 작성은 직접면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정에 따라서 장기 출타 중인 경우 설문지를 가정 내에 유치하기도 하고, 밤 늦은 시간에만 접촉이 가능한 경우 전화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 답변을 받기 위해 한 가지 방식만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면접을 한 후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을 전화로 실시하는 등 설문지 답변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응답 시기는 가구용 설문지와 각각의 개인용 설문지에 약간의 차이가

2) 추가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본장 제6절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3) 한국노동패널의 표본 크기, 표본 틀 및 추출 방법에 대한 내용은 노동패널 인터넷 사이트(<http://www.kli.re.kr/klips>)를 참고.

있다. 그 이유는 면접원이 가구원 중 한 명과 만나서 가구용 설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가구의 표본 대상 가구원을 파악한 후 개인용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면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치를 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KLIPS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 구성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조사하였다. 첫째, 실사기간 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은 직접 조사하였다. 둘째, 가구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은 가능한 범위에서 전화조사를 하였다. 셋째,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가구원(예: 영내 거주 군인 및 전투경찰, 취학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교도소·소년원·요양원 등 사회보호시설 수용자 등)은 개인용 설문지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 이들의 인적 사항 등은 가구용 설문지에서 질문하였다. 넷째,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예: 취업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사업상 장기간 출타 중인 사람, 아르바이트 학생, 영내 거주 직업군인 및 경찰 등)에 대한 개인용 설문지는 해당 가구원에 가장 가까운 조사 대상자가 대리 응답하였다. 또한 정신박약, 허약, 치매, 노환 등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도 가장 가까운 조사 대상자가 대리 응답하였다.

<표 2-4>는 각 연도별 조사 방식이 어떤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면접조사의 비중이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 당시 면접조사의 비중은 64.4%에 그쳤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11차년도에는 95.7%까지 증가하였다. 11차 조사에서 전년 대비 면접조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CAPI 도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트북을 이용한 조사의 경우 유치나 전화 등의 다른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접조사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이후 평균적으로 93~94% 내외의 면접조사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유치조사는 1차년도에 21.8%나 되었지만 20차년도에는 0.3%에 불과하였다.

<표 2-5>는 본인 및 대리 응답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

〈표 2-4〉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단위: 명, %)

| | 개인 응답자 수 | 전체 비중 | 면접 | 유치 | 전화 | 면접+ 전화 | 유치+ 전화 | 면접+ 유치 | 면접+ 유치+ 전화 |
|----------|----------------|----------|------|------|-----|-----------|-----------|-----------|------------------|
| 1차('98) | 13,321 | 96.5 | 64.4 | 21.8 | 1.5 | 2.6 | 3.7 | 2.6 | 0.1 |
| 2차('99) | 12,037 | 100.0 | 77.8 | 7.6 | 7.4 | 4.7 | 2.5 | 0.1 | 0.0 |
| 3차('00) | 11,205 | 99.8 | 83.0 | 5.1 | 5.3 | 3.9 | 1.5 | 0.9 | 0.2 |
| 4차('01) | 11,051 | 100.0 | 83.7 | 3.4 | 4.6 | 4.9 | 1.2 | 1.8 | 0.5 |
| 5차('02) | 10,966 | 100.0 | 83.8 | 2.6 | 3.9 | 6.4 | 1.0 | 1.0 | 1.3 |
| 6차('03) | 11,541 | 100.0 | 86.3 | 1.7 | 3.8 | 5.7 | 0.9 | 1.3 | 0.4 |
| 7차('04) | 11,660 | 100.0 | 88.0 | 1.8 | 4.1 | 3.7 | 0.4 | 1.6 | 0.5 |
| 8차('05) | 11,580 | 100.0 | 85.4 | 1.6 | 2.8 | 6.1 | 1.4 | 1.7 | 1.0 |
| 9차('06) | 11,756 | 100.0 | 89.7 | 1.5 | 2.9 | 2.8 | 0.7 | 2.3 | 0.3 |
| 10차('07) | 11,855 | 100.0 | 91.3 | 1.1 | 3.2 | 3.1 | 0.6 | 0.6 | 0.1 |
| 11차('08) | 11,734 | 100.0 | 95.7 | 0.6 | 1.8 | 1.3 | 0.3 | 0.2 | 0.1 |
| 12차('09) | 11,739 | 100.0 | 92.4 | 1.7 | 2.7 | 2.2 | 0.6 | 0.3 | 0.1 |
| 13차('10) | 11,582 | 100.0 | 94.0 | 0.5 | 2.7 | 2.4 | 0.3 | 0.1 | 0.1 |
| 14차('11) | 11,376 | 100.0 | 93.0 | 0.8 | 3.2 | 2.2 | 0.4 | 0.3 | 0.1 |
| 15차('12) | 11,442 | 100.0 | 93.6 | 0.4 | 4.5 | 1.3 | 0.1 | 0.0 | 0.0 |
| 16차('13) | 11,330 | 100.0 | 95.2 | 0.5 | 3.0 | 1.1 | 0.1 | 0.1 | 0.0 |
| 17차('14) | 10,756 | 100.0 | 96.6 | 0.3 | 2.3 | 0.7 | 0.1 | 0.1 | 0.0 |
| 18차('15) | 11,445 | 100.0 | 95.2 | 0.5 | 3.2 | 0.9 | 0.2 | 0.1 | 0.1 |
| 19차('16) | 11,652 | 100.0 | 96.4 | 0.4 | 2.0 | 0.7 | 0.4 | 0.0 | 0.0 |
| 20차('17) | 11,880 | 100.0 | 96.7 | 0.3 | 2.2 | 0.4 | 0.4 | 0.0 | 0.0 |

주: 1차년도와 3차년도의 전체 비중이 100%가 안 되는 것은 '모름' 비중 때문이다.

있듯이 KLIPS 조사는 응답자의 병환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대리 응답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1차년도 조사 당시 본인 응답은 74.0%, 대리 응답은 19.7%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차년도에는 본인 응답 비중이 88.7%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전반적으로 대리 응답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20차년도 기준 본인 응답 비중은 9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응답자의 본인/대리 응답 비중

(단위: 명, %)

| | 개인 응답자 수 | 전체 비중 | 본인 | 대리인 | 본인+대리인 |
|----------|----------|-------|------|------|--------|
| 1차('98) | 13,321 | 94.1 | 74.0 | 19.7 | 0.4 |
| 2차('99) | 12,037 | 100.0 | 88.7 | 11.3 | - |
| 3차('00) | 11,205 | 100.0 | 88.3 | 8.1 | 3.6 |
| 4차('01) | 11,051 | 99.8 | 83.3 | 11.0 | 5.5 |
| 5차('02) | 10,966 | 100.0 | 83.8 | 9.8 | 6.4 |
| 6차('03) | 11,541 | 100.0 | 83.1 | 11.2 | 5.8 |
| 7차('04) | 11,660 | 100.0 | 85.7 | 9.7 | 4.7 |
| 8차('05) | 11,580 | 100.0 | 87.3 | 5.0 | 7.7 |
| 9차('06) | 11,756 | 100.0 | 90.0 | 3.0 | 7.1 |
| 10차('07) | 11,855 | 100.0 | 90.7 | 5.6 | 3.7 |
| 11차('08) | 11,734 | 100.0 | 91.7 | 5.8 | 2.6 |
| 12차('09) | 11,739 | 100.0 | 91.4 | 4.0 | 4.6 |
| 13차('10) | 11,582 | 100.0 | 93.3 | 3.9 | 2.8 |
| 14차('11) | 11,376 | 100.0 | 92.9 | 4.7 | 2.4 |
| 15차('12) | 11,442 | 100.0 | 94.5 | 3.5 | 2.0 |
| 16차('13) | 11,330 | 100.0 | 94.4 | 3.6 | 2.0 |
| 17차('14) | 10,756 | 100.0 | 95.2 | 3.5 | 1.4 |
| 18차('15) | 11,445 | 100.0 | 94.9 | 2.9 | 2.3 |
| 19차('16) | 11,652 | 100.0 | 96.3 | 2.2 | 1.5 |
| 20차('17) | 11,880 | 100.0 | 96.4 | 2.5 | 1.1 |

주: 1차년도, 4차년도의 전체 비중이 100%가 안 되는 것은 '모름' 비중 때문임.

한편, 20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면접원 방문 횟수는 평균 1.2회로 측정되었다(표 2-6 참조). 범주별로는 1회 방문이 88.0%, 2~3회 방문이 10.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성공가구의 방문 횟수는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데, 동일한 표본을 반복 추적함에 따라 일단 표본가구가 조사를 수용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대부분 1~2회 방문으로 조사를 완료하기 때문이다.

조사 시기별 진행 정도를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KLIPS 각 연도

〈표 2-6〉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

(단위: 회, %)

| | 사례 수 | 평균값 | 표준편차 | 1회 | 2~3회 | 4~5회 | 5회 이상 | 전체 |
|----------|-------|-----|------|------|------|------|-------|-------|
| 1차('98) | 5,000 | 2.4 | 1.6 | 38.1 | 42.1 | 14.9 | 5.0 | 100.0 |
| 2차('99) | 4,507 | 2.3 | 1.6 | 41.7 | 40.5 | 11.7 | 6.2 | 100.0 |
| 3차('00) | 4,266 | 2.6 | 2.0 | 34.2 | 43.2 | 15.4 | 7.3 | 100.0 |
| 4차('01) | 4,247 | 3.0 | 2.2 | 27.3 | 42.2 | 19.8 | 10.7 | 100.0 |
| 5차('02) | 4,298 | 2.6 | 1.7 | 31.2 | 43.7 | 19.3 | 5.9 | 100.0 |
| 6차('03) | 4,592 | 2.9 | 1.9 | 28.1 | 39.9 | 22.3 | 9.7 | 100.0 |
| 7차('04) | 4,761 | 3.0 | 2.0 | 26.3 | 40.9 | 21.0 | 11.8 | 100.0 |
| 8차('05) | 4,849 | 3.3 | 2.1 | 22.6 | 38.4 | 23.9 | 15.2 | 100.0 |
| 9차('06) | 5,001 | 3.0 | 1.9 | 23.8 | 42.4 | 24.1 | 9.6 | 100.0 |
| 10차('07) | 5,064 | 2.6 | 1.8 | 34.4 | 39.6 | 18.9 | 7.2 | 100.0 |
| 11차('08) | 5,116 | 2.3 | 1.4 | 39.4 | 43.5 | 14.2 | 3.0 | 100.0 |
| 12차('09) | 5,306 | 1.3 | 0.8 | 79.7 | 17.4 | 2.5 | 0.4 | 100.0 |
| 13차('10) | 5,379 | 1.3 | 0.8 | 79.1 | 18.3 | 2.4 | 0.3 | 100.0 |
| 14차('11) | 5,404 | 1.3 | 0.8 | 78.8 | 18.1 | 2.4 | 0.7 | 100.0 |
| 15차('12) | 5,469 | 1.4 | 0.9 | 75.1 | 21.7 | 2.3 | 0.9 | 100.0 |
| 16차('13) | 5,501 | 1.2 | 0.6 | 86.8 | 12.1 | 0.9 | 0.2 | 100.0 |
| 17차('14) | 5,552 | 1.5 | 1.0 | 71.1 | 24.7 | 3.6 | 0.7 | 100.0 |
| 18차('15) | 5,632 | 1.3 | 0.8 | 78.7 | 19.3 | 1.5 | 0.5 | 100.0 |
| 19차('16) | 5,714 | 1.3 | 0.7 | 76.8 | 21.1 | 2.0 | 0.1 | 100.0 |
| 20차('17) | 5,760 | 1.2 | 0.6 | 88.0 | 10.8 | 1.0 | 0.2 | 100.0 |

별로 조사에 진입하기 1~2주 전 5개 권역(수도권/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라, 부산/경남)별로 면접원 교육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실사에 진입하게 된다. CAPI 도입 첫해에는 별도의 노트북 및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다음 해부터 대부분의 면접원들이 이미 프로그램 사용에 익숙하게 되어 별도의 CAPI 교육기간을 두지 않고 통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 시작은 면접원 교육이 종료된 직후부터 이루어졌으며, 매주 조사업체로부터 실사 상황을 보고받는다.

〈표 2-7〉에서 볼 수 있듯이, 2차년도를 제외하고는 1~12차 조사까지

통상 4·5월부터 10월까지 조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차 조사의 경우 가구 경제활동 및 개인 일자리 특성 변화와 관련된 회고 설문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적인 조사 체계가 패널조사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되어 조사가 늦어졌으나, 이후부터 4·5월 조사로 안정화되었다.

〈표 2-7〉 시기별 조사 진행률 추이

(단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사례 수 |
|----------|-----|-----|------|------|------|------|------|------|------|------|------|-----|-------|
| 1차('98) | 0.0 | 0.0 | 0.0 | 0.0 | 0.0 | 27.9 | 30.3 | 27.9 | 13.2 | 0.7 | 0.0 | 0.0 | 5,000 |
| 2차('99) | 0.0 | 0.0 | 0.0 | 0.0 | 0.0 | 0.0 | 5.0 | 22.8 | 22.6 | 27.3 | 20.2 | 2.1 | 4,507 |
| 3차('00) | 0.0 | 0.0 | 0.0 | 0.2 | 15.1 | 28.1 | 26.1 | 23.6 | 5.2 | 1.7 | 0.0 | 0.0 | 4,266 |
| 4차('01) | 0.0 | 0.0 | 0.0 | 1.6 | 16.1 | 27.2 | 15.7 | 23.3 | 13.0 | 3.2 | 0.0 | 0.0 | 4,248 |
| 5차('02) | 0.0 | 0.0 | 0.0 | 4.7 | 31.3 | 25.9 | 26.4 | 7.2 | 4.4 | 0.1 | 0.0 | 0.0 | 4,298 |
| 6차('03) | 0.0 | 0.0 | 0.0 | 0.0 | 12.7 | 25.6 | 30.1 | 21.3 | 10.2 | 0.0 | 0.0 | 0.0 | 4,592 |
| 7차('04) | 0.0 | 0.0 | 0.0 | 0.0 | 16.7 | 26.4 | 24.8 | 21.1 | 10.8 | 0.2 | 0.0 | 0.0 | 4,761 |
| 8차('05) | 0.0 | 0.0 | 0.0 | 13.9 | 23.8 | 24.0 | 20.1 | 12.1 | 5.9 | 0.3 | 0.0 | 0.0 | 4,849 |
| 9차('06) | 0.0 | 0.0 | 0.0 | 8.1 | 25.4 | 20.5 | 20.9 | 14.6 | 8.6 | 1.8 | 0.0 | 0.0 | 5,001 |
| 10차('07) | 0.0 | 0.0 | 0.0 | 14.4 | 27.0 | 26.9 | 20.7 | 8.3 | 2.8 | 0.0 | 0.0 | 0.0 | 5,064 |
| 11차('08) | 0.0 | 0.0 | 0.0 | 8.7 | 27.9 | 23.8 | 21.0 | 9.7 | 4.3 | 4.6 | 0.0 | 0.0 | 5,116 |
| 12차('09) | 0.0 | 0.0 | 0.5 | 35.7 | 31.7 | 12.4 | 9.3 | 5.2 | 3.8 | 1.4 | 0.0 | 0.0 | 5,306 |
| 13차('10) | 0.0 | 0.0 | 0.0 | 0.0 | 0.0 | 0.0 | 7.7 | 33.9 | 19.1 | 28.6 | 8.8 | 2.0 | 5,379 |
| 14차('11) | 0.3 | 0.2 | 0.0 | 0.0 | 0.0 | 0.0 | 2.2 | 39.8 | 19.8 | 20.4 | 16.1 | 1.3 | 5,404 |
| 15차('12) | 0.0 | 0.0 | 0.0 | 0.0 | 0.0 | 0.9 | 32.7 | 28.5 | 19.1 | 10.5 | 6.4 | 2.0 | 5,469 |
| 16차('13) | 0.0 | 0.0 | 0.0 | 0.0 | 0.0 | 7.5 | 29.4 | 21.3 | 16.4 | 15.7 | 6.5 | 3.2 | 5,501 |
| 17차('14) | 0.0 | 0.0 | 19.1 | 31.9 | 24.9 | 17.1 | 3.9 | 1.6 | 1.5 | 0.1 | 0.0 | 0.0 | 5,552 |
| 18차('15) | 0.0 | 0.0 | 0.0 | 6.9 | 29.2 | 18.8 | 21.8 | 13.2 | 3.7 | 4.0 | 2.6 | 0.0 | 5,632 |
| 19차('16) | 0.0 | 0.0 | 0.0 | 16.5 | 31.2 | 20.6 | 16.6 | 8.1 | 2.6 | 2.9 | 1.6 | 0.0 | 5,714 |
| 20차('17) | 0.0 | 0.0 | 0.6 | 31.9 | 24.6 | 18.3 | 14.2 | 6.1 | 1.8 | 1.3 | 1.2 | 0.0 | 5,761 |

주: 1) 1차년도는 조사원의 모름/무응답 482건을 제외하였음.

2) 14차년도에는 응답률 제고를 위해 익년 1월에 16건, 익년 2월에 8건의 조사가 진행되었음.

8차년도 조사부터는 전체적인 조사 일정을 앞당기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KLIPS는 전년도 소

득과 일자리에 대한 회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조사 시점이 늦어질수록 회고 오차(recall errors)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무더위가 시작되고 여름철 휴가가 본격화되는 7월 말경부터는 응답가구를 접촉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조사 시작 이후 통상 3~4개월 정도가 지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조사가 마무리된다. 다만 패널조사에 대한 저항이 매우 커서 조사 이탈 위험이 큰 표본의 경우에는 높은 숙련도를 가진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마지막 1~2개월 동안 설득과정을 거쳐 한계성공률을 높이게 된다. 13~15차년도 조사는 조사 주체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사 시작 시점이 6·7월로 변경되었다. 16차년도에는 조사 주체가 다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이관되었으며, 17차년도부터는 조사 시작 시점이 다시 3·4월로 앞당겨졌다.

2. 조사 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조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표본이탈(sample attrition)을 최소화하여 일정한 수준의 표본유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98년 표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차년도 KLIPS의 총 응답가구는 5,761가구이며, 응답자 수는 그 가구 내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1,880명이다(표 2-1 참조).

원표본유지율은 두 가지 기준에서 산출할 수 있다. 첫째, 1차년도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를 기준으로 조사성공률을 산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멸가구를 고려하여 성공률을 조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1인 단독 가구에서 그 가구원의 사망이나 이민 등으로 인해 가구가 소멸한 경우, 이를 분모가 되는 원표본가구수에서 빼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전자를 원표본유지율, 후자를 유효표본유지율이라고 하겠다.

KLIPS의 20차년도 원표본유지율은 67.1%, 유효표본유지율은 71.8%였다(표 2-1 참조). 흔히 패널조사의 신뢰성 지표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원표본유지율의 추세를 살펴보면, KLIPS뿐 아니라 다른 패널조사의 경우에도 2차년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패널조사 초기

에 표본이탈률이 높다는 일반적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5차년도 KLIPS는 외국의 패널조사에 비해 그 하락폭이 컸으나, 6차년도 이후 표본유지율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20차년도를 기준으로 다른 패널조사와 비교했을 때 독일의 SOEP(72.4%, 가구 기준), 미국의 PSID(56.0%, 개인 기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표본 추출 당시의 거주지를 기준⁴⁾으로 살펴보기로 한다(표 2-8 참조).

지역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경북 지역의 표본유지율이 20차년도 기준 70% 미만이었고, 인천,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남이 70% 이상의 표본유지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원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도 지역이 광역시 지역에 비해 표본유지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도 지역 응답자들에 비해 더 자주 이사를 하는 등 패널 추적이 어려운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응답자의 성향, 면접원의 특성과 숙련도, 지역의 실사 단위 체계, 지역별 정치적·문화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유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4절 응답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1. 응답가구의 특성

패널조사의 조사성공률과 함께 패널응답가구의 지속응답 여부 또한 자료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표 2-9>는 1~20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성공가구들이 조사에 몇 번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했던 가구의 수는 8,251가구이고, 이 중 원가구는 60.6%(5,000가구), 2차년도 이후 분가한 분가가구는

4)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그 지역에서 조사에 성공하였더라도 1차 당시 서울 거주자였다면 서울 지역으로 계산하였다.

〈표 2-8〉 지역별 원표본가구유지율

(단위: 가구, %)

| | 원표본 수 | 2차 (’99) | 3차 (’00) | 4차 (’01) | 5차 (’02) | 6차 (’03) | 7차 (’04) | 8차 (’05) | 9차 (’06) | 10차 (’07) | 11차 (’08) | 12차 (’09) | 13차 (’10) | 14차 (’11) | 15차 (’12) | 16차 (’13) | 17차 (’14) | 18차 (’15) | 19차 (’16) | 20차 (’17) |
|----|----------|-------------|-------------|-------------|-------------|-------------|-------------|-------------|-------------|--------------|--------------|--------------|--------------|--------------|--------------|--------------|--------------|--------------|--------------|--------------|
| 전체 | 5,000 | 87.6 | 80.9 | 77.3 | 76 | 77.2 | 77.3 | 76.4 | 76.4 | 75.5 | 74.2 | 73.1 | 72.1 | 70.6 | 70.3 | 69.4 | 69.0 | 68.4 | 67.9 | 67.1 |
| 서울 | 1,353 | 84.9 | 77.6 | 72.4 | 70.7 | 74 | 72.9 | 72.4 | 72 | 71.8 | 71.4 | 69.5 | 69 | 66.7 | 66.5 | 65.9 | 65.7 | 65.4 | 65.1 | 65.0 |
| 부산 | 486 | 90.5 | 89.7 | 88.3 | 84.4 | 80.2 | 78.4 | 77.8 | 77.2 | 77.8 | 76.1 | 74.7 | 72.6 | 71.6 | 72.2 | 71.2 | 71.4 | 70.6 | 70.8 | 69.6 |
| 대구 | 314 | 84.1 | 72 | 67.5 | 71 | 77.4 | 70.1 | 73.6 | 72.3 | 71.3 | 68.2 | 69.4 | 66.6 | 65.3 | 66.9 | 65.9 | 65.9 | 65.3 | 63.7 | 63.4 |
| 대전 | 153 | 83.7 | 81.1 | 79.7 | 76.5 | 80.4 | 79.7 | 75.8 | 73.9 | 69.9 | 69.3 | 70.6 | 68.6 | 66 | 64.7 | 66.0 | 64.1 | 66.0 | 66.7 | 67.3 |
| 인천 | 298 | 85.6 | 81.9 | 73.2 | 77.9 | 75.8 | 79.5 | 78.2 | 79.9 | 75.8 | 74.8 | 75.2 | 77.2 | 75.5 | 74.5 | 73.5 | 73.8 | 72.8 | 72.2 | 70.5 |
| 광주 | 158 | 78.5 | 69 | 77.2 | 80.4 | 79.1 | 77.2 | 76.6 | 75.3 | 73.4 | 74.7 | 70.9 | 74.1 | 68.4 | 67.7 | 67.1 | 66.5 | 65.8 | 65.8 | 63.9 |
| 울산 | 116 | 96.6 | 96.6 | 89.7 | 86.2 | 83.6 | 82.8 | 79.3 | 79.3 | 74.1 | 72.4 | 74.1 | 75 | 72.4 | 72.4 | 70.7 | 70.7 | 71.6 | 70.7 | 71.6 |
| 경기 | 856 | 90.2 | 80 | 72.7 | 70.2 | 75.5 | 79.7 | 78.3 | 77.6 | 77.3 | 74.8 | 73.9 | 71.6 | 71.9 | 70.7 | 69.7 | 68.5 | 67.3 | 65.7 | 65.0 |
| 강원 | 130 | 87.7 | 86.2 | 73.8 | 65.4 | 63.8 | 67.7 | 71.5 | 73.8 | 75.4 | 75.4 | 72.3 | 70 | 71.5 | 70 | 65.4 | 66.9 | 65.4 | 63.1 | 64.6 |
| 충북 | 113 | 87.6 | 75.2 | 77 | 75.2 | 70.8 | 69.9 | 67.3 | 70.8 | 68.1 | 69 | 68.1 | 70.8 | 68.1 | 70.8 | 71.7 | 70.8 | 69.0 | 70.8 | 70.8 |
| 충남 | 131 | 91.6 | 87.8 | 84 | 83.2 | 80.9 | 80.9 | 79.4 | 79.4 | 81.7 | 80.2 | 79.4 | 77.1 | 76.3 | 75.6 | 77.1 | 75.6 | 74.8 | 74.8 | 74.8 |
| 전북 | 199 | 88.9 | 74.4 | 84.9 | 83.4 | 81.9 | 81.9 | 80.4 | 81.9 | 82.4 | 81.9 | 79.4 | 77.4 | 74.4 | 74.4 | 72.4 | 71.9 | 69.4 | 69.4 | 67.3 |
| 전남 | 127 | 92.1 | 89.8 | 89.8 | 89 | 84.3 | 89 | 86.6 | 87.4 | 88.2 | 86.6 | 85.8 | 84.3 | 83.5 | 81.9 | 80.3 | 80.3 | 80.3 | 79.5 | 78.7 |
| 경북 | 274 | 89.4 | 82.5 | 80.3 | 82.1 | 83.6 | 84.3 | 82.1 | 83.2 | 77.7 | 76.3 | 75.9 | 74.8 | 72.3 | 72.3 | 71.2 | 69.3 | 70.1 | 70.4 | 67.5 |
| 경남 | 292 | 89.7 | 88.4 | 89.4 | 84.9 | 83.2 | 81.2 | 79.8 | 80.8 | 79.8 | 77.1 | 76 | 75.7 | 74.3 | 75 | 73.3 | 74.0 | 73.3 | 72.3 | 70.2 |

주: 지역 구분은 1차년도 조사 당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당해 연도 조사가구 수/원표본가구 수)×100.

39.4%(3,251가구)이다. 원가구 중에서는 1~20차년도 기간 동안 모두 응답한 가구가 4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차년도에 응답한 후 아직까지 조사에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원가구는 3.7%(183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가가구들은 2차년도 이후 새롭게 형성된 가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19회 모두 응답한 가구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분가가구의 경우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나 혼인 등의 사유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소 추적

〈표 2-9〉 1~20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

(단위: 가구, %)

| | 전체 | | 원가구 | | 분가가구 | |
|-----|-------|-------|-------|-------|-------|-------|
| | 가구 수 | 비중 | 가구 수 | 비중 | 가구 수 | 비중 |
| 1회 | 508 | 6.2 | 183 | 3.7 | 325 | 10.0 |
| 2회 | 419 | 5.1 | 157 | 3.1 | 262 | 8.1 |
| 3회 | 394 | 4.8 | 156 | 3.1 | 238 | 7.3 |
| 4회 | 344 | 4.2 | 136 | 2.7 | 208 | 6.4 |
| 5회 | 321 | 3.9 | 124 | 2.5 | 197 | 6.1 |
| 6회 | 260 | 3.2 | 82 | 1.6 | 178 | 5.5 |
| 7회 | 269 | 3.3 | 82 | 1.6 | 187 | 5.8 |
| 8회 | 303 | 3.7 | 88 | 1.8 | 215 | 6.6 |
| 9회 | 335 | 4.1 | 100 | 2.0 | 235 | 7.2 |
| 10회 | 252 | 3.1 | 113 | 2.3 | 139 | 4.3 |
| 11회 | 267 | 3.2 | 105 | 2.1 | 162 | 5.0 |
| 12회 | 275 | 3.3 | 127 | 2.5 | 148 | 4.6 |
| 13회 | 249 | 3.0 | 99 | 2.0 | 150 | 4.6 |
| 14회 | 278 | 3.4 | 124 | 2.5 | 154 | 4.7 |
| 15회 | 276 | 3.3 | 123 | 2.5 | 153 | 4.7 |
| 16회 | 237 | 2.9 | 139 | 2.8 | 98 | 3.0 |
| 17회 | 315 | 3.8 | 212 | 4.2 | 103 | 3.2 |
| 18회 | 310 | 3.8 | 256 | 5.1 | 54 | 1.7 |
| 19회 | 498 | 6.0 | 453 | 9.1 | 45 | 1.4 |
| 20회 | 2,141 | 25.9 | 2,141 | 42.8 | - | - |
| 전체 | 8,251 | 100.0 | 5,000 | 100.0 | 3,251 | 100.0 |

이 어렵고 이탈 가능성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 분가가구의 경우 1회 응답 가구의 비중이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당해 연도 분가가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에서 이탈한 가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분가가구의 응답 횟수는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조사성공가구원의 특성

KLIPS는 조사 대상 가구에 소속된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조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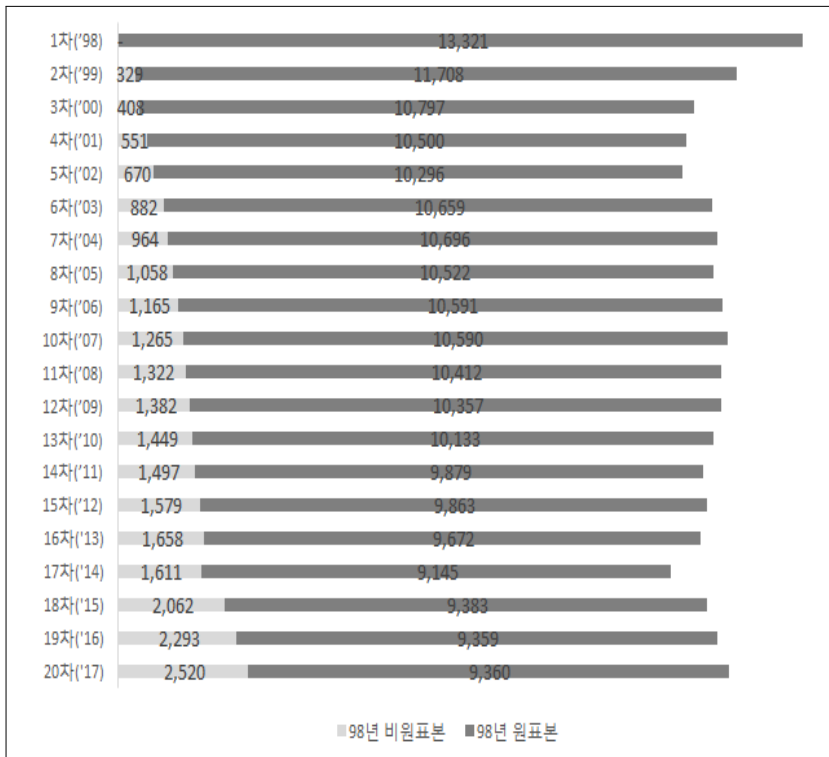
〈표 2-10〉 1~20차년도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단위: 명, %)

| | 전체 | | 원표본가구원 | | 비원표본가구원 | |
|-----|--------|-------|--------|-------|---------|-------|
| | 가구원 수 | 비중 | 가구원 수 | 비중 | 가구원 수 | 비중 |
| 1회 | 1,393 | 6.7 | 940 | 5.5 | 453 | 13.3 |
| 2회 | 1,263 | 6.1 | 825 | 4.8 | 438 | 12.8 |
| 3회 | 1,246 | 6.0 | 907 | 5.3 | 339 | 9.9 |
| 4회 | 944 | 4.6 | 724 | 4.2 | 220 | 6.4 |
| 5회 | 964 | 4.7 | 722 | 4.2 | 242 | 7.1 |
| 6회 | 856 | 4.1 | 670 | 3.9 | 186 | 5.5 |
| 7회 | 842 | 4.1 | 648 | 3.8 | 194 | 5.7 |
| 8회 | 828 | 4.0 | 657 | 3.8 | 171 | 5.0 |
| 9회 | 780 | 3.8 | 617 | 3.6 | 163 | 4.8 |
| 10회 | 757 | 3.7 | 611 | 3.5 | 146 | 4.3 |
| 11회 | 716 | 3.5 | 582 | 3.4 | 134 | 3.9 |
| 12회 | 735 | 3.6 | 626 | 3.6 | 109 | 3.2 |
| 13회 | 629 | 3.0 | 508 | 2.9 | 121 | 3.5 |
| 14회 | 672 | 3.3 | 548 | 3.2 | 124 | 3.6 |
| 15회 | 647 | 3.1 | 541 | 3.1 | 106 | 3.1 |
| 16회 | 691 | 3.3 | 609 | 3.5 | 82 | 2.4 |
| 17회 | 837 | 4.1 | 752 | 4.4 | 85 | 2.5 |
| 18회 | 896 | 4.3 | 836 | 4.8 | 60 | 1.8 |
| 19회 | 1,248 | 6.0 | 1,209 | 7.0 | 39 | 1.1 |
| 20회 | 3,715 | 18.0 | 3,715 | 21.5 | 0 | 0.0 |
| 전체 | 20,659 | 100.0 | 17,247 | 100.0 | 3,412 | 100.0 |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성공률과 관련된 가구원의 특성들 또한 전적으로 가구의 성공률에 의해 좌우된다. <표 2-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차년도에서 20차년도 조사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한 개인은 20,659명이다. 조사 기간 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모두 응답한 개인은 3,715명으로 한 번이라도 응답한 전체 원표본가구원 대비 18.0%이며, 원표본가구원 중에서 1회만 조사에 응답한 원표본가구원은 940명으로 5.5%를 차지하였다. 여기에서 개인 단위의 원표본가구원은 각 연도별로 만 15세가 되면서 새롭게 개인조사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매년 변동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1회 응답이라 하더라도 이는 20차년도에 처음으로 개인조사에 진입한 원표본가구원(즉, 1차 조사 당시 원표본가구에 소속되었던 가구원)을 포함한 숫자다.

[그림 2-1]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 수 추이

(단위: 명)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연도별로 응답한 15세 이상 원표본가구의 수를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총 가구원인 17,505명 중 개인조사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총 13,321명이었다. 2차년도부터 원표본가구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여 20차 조사에서는 개인조사에 성공한 전체 표본 11,880명 중 78.8%인 9,360명으로 확인되었다.

제5절 이사 및 분가 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1. 이사 및 분가 가구의 특성

경제활동, 주택, 교육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인구이동은 인구사회학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동일한 가구를 추적 조사해야 하는 패널조사의 경우 조사 성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KLIPS 20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의 이사 여부에 대한 설문은 당해 연도에 새롭게 분가한 가구를 제외한 5,693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이사가구는 총 735가구로 분가가구를 포함한 전체 성공가구의 12.9%이다. 원표본가구 중 이사가구는 매년 그 비중이 감소하여 20차년도 조사에서는 8.3%에 그쳤으나, 비원표본가구 중 이사가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20차년도 조사에서는 1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1 참조).

<표 2-12>에서 KLIPS 20차년도 분가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 성공 5,761가구 중 41.8%인 2,406가구가 분가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이전 차수에 분가하여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2,338가구이며 20차년도에 신규로 분가하여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68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이들 분가가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비원표본가구의 비중이 2.9%에 그쳤으나,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 20차년도에는 41.8%에 이르고 있다.

2. 비성공가구의 특성

KLIPS에서 조사 실패의 경우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조사 대상이 되는 표본을 추적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단계로 신규 주소

〈표 2-11〉 이사가구의 분포

(단위: 가구, %)

| | 전 체 | | | 원표본가구 | | | 비원표본가구 | | |
|----------|-----------------------------|------|------|-------|------|------|----------|------|------|
| | 전체 가구 수 ¹⁾ | 이사가구 | | 가구 수 | 이사가구 | | 가구원 수 | 이사가구 | |
| | | 사례 수 | 비중 | | 사례 수 | 비중 | | 사례 수 | 비중 |
| 1차('98) | 5,000 | - | - | 5,000 | - | - | - | - | - |
| 2차('99) | 4,378 | 709 | 16.2 | 4,378 | 709 | 16.2 | - | - | - |
| 3차('00) | 4,142 | 456 | 11.0 | 4,044 | 439 | 10.9 | 98 | 17 | 17.3 |
| 4차('01) | 4,111 | 688 | 16.7 | 3,864 | 589 | 15.2 | 247 | 99 | 40.1 |
| 5차('02) | 4,189 | 718 | 17.1 | 3,798 | 599 | 15.8 | 391 | 119 | 30.4 |
| 6차('03) | 4,437 | 976 | 22.0 | 3,862 | 726 | 18.8 | 575 | 250 | 43.5 |
| 7차('04) | 4,619 | 868 | 18.8 | 3,862 | 598 | 15.5 | 757 | 270 | 35.7 |
| 8차('05) | 4,723 | 707 | 15.0 | 3,822 | 438 | 11.5 | 901 | 269 | 29.9 |
| 9차('06) | 4,862 | 787 | 16.2 | 3,820 | 464 | 12.1 | 1,042 | 323 | 31.0 |
| 10차('07) | 4,953 | 752 | 15.2 | 3,775 | 437 | 11.6 | 1,178 | 315 | 26.7 |
| 11차('08) | 5,027 | 712 | 14.2 | 3,709 | 407 | 11.0 | 1,318 | 305 | 23.1 |
| 12차('09) | 5,174 | 606 | 11.7 | 3,657 | 266 | 7.3 | 1,517 | 340 | 22.4 |
| 13차('10) | 5,235 | 946 | 18.1 | 3,606 | 470 | 13.0 | 1,629 | 476 | 29.2 |
| 14차('11) | 5,292 | 637 | 12.0 | 3,528 | 269 | 7.6 | 1,764 | 368 | 20.9 |
| 15차('12) | 5,380 | 488 | 9.1 | 3,517 | 209 | 5.9 | 1,863 | 279 | 15.0 |
| 16차('13) | 5,405 | 668 | 12.4 | 3,472 | 271 | 7.8 | 1,933 | 397 | 20.5 |
| 17차('14) | 5,481 | 461 | 8.4 | 3,451 | 183 | 5.3 | 2,030 | 278 | 13.7 |
| 18차('15) | 5,534 | 721 | 13.0 | 3,421 | 287 | 8.4 | 2,113 | 434 | 20.5 |
| 19차('16) | 5,629 | 691 | 12.3 | 3,393 | 279 | 8.2 | 2,236 | 412 | 18.4 |
| 20차('17) | 5,693 | 735 | 12.9 | 3,355 | 280 | 8.3 | 2,338 | 455 | 19.5 |

주: 1) 전체 가구 수는 조사성공가구 수에서 당해 연도에 새로이 분가한 가구를 제외한 숫자임.

지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조사에 실패하게 된다. 횡단면조사 와 달리 패널조사에서는 이사추적 실패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방법론상의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치 파악(locating) 혹은 추적(tracking) 문제로 규정한다.

둘째, 응답자가 기존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이사추적에 성공하더라도 응답자 접촉 자체에 실패할 수 있는데, 응답자의 귀가가 늦거나 연락처 변경으로 인해 주소가 식별되더라도 응답자 접촉에 실패하는 경우이다.

셋째, 이상의 단계들을 거치더라도 응답가구가 패널조사를 거절할 수

〈표 2-12〉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 수

(단위: 가구, %)

| | 전체 가구 수 | 기존 분가 | 신규 분가 | 분가 가구 | |
|----------|---------|-------|-------|-------|------|
| | | | | 가구 수 | 비중 |
| 2차('99) | 4,507 | - | 130 | 130 | 2.9 |
| 3차('00) | 4,266 | 98 | 124 | 222 | 5.2 |
| 4차('01) | 4,248 | 247 | 135 | 382 | 9.0 |
| 5차('02) | 4,298 | 391 | 109 | 500 | 11.6 |
| 6차('03) | 4,592 | 575 | 155 | 730 | 15.9 |
| 7차('04) | 4,761 | 757 | 142 | 899 | 18.9 |
| 8차('05) | 4,849 | 901 | 126 | 1,027 | 21.2 |
| 9차('06) | 5,001 | 1,042 | 139 | 1,181 | 23.6 |
| 10차('07) | 5,069 | 1,178 | 116 | 1,294 | 25.5 |
| 11차('08) | 5,116 | 1,320 | 87 | 1,407 | 27.5 |
| 12차('09) | 5,306 | 1,517 | 132 | 1,649 | 31.1 |
| 13차('10) | 5,379 | 1,630 | 143 | 1,773 | 33.0 |
| 14차('11) | 5,404 | 1,763 | 112 | 1,875 | 34.7 |
| 15차('12) | 5,469 | 1,863 | 89 | 1,952 | 35.7 |
| 16차('13) | 5,501 | 1,933 | 96 | 2,029 | 36.9 |
| 17차('14) | 5,552 | 2,030 | 71 | 2,101 | 37.8 |
| 18차('15) | 5,632 | 2,113 | 98 | 2,211 | 39.3 |
| 19차('16) | 5,714 | 2,236 | 85 | 2,321 | 40.6 |
| 20차('17) | 5,761 | 2,338 | 68 | 2,406 | 41.8 |

있다. 패널조사의 경우 방대한 설문 문항과 민감한 조사 내용이 반복됨에 따라 패널응답자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조사 차수가 지날수록 강력거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표본가구원의 사망, 이민 등으로 인해 표본 자체가 소멸되거나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표 2-13>에서 2~20차년도 기간 동안의 비성공 사유를 살펴보면, 조사 초기에는 강력거절의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이사추적 실패의 비중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4차년도부터 이사추적 실패가 급증하여 강력거절을 제치고 최다

<표 2-13> 각 연도별 비성공 사유

(단위: 가구, %)

| | 유효표본 수 | 강력거절 | 이사추적 실패 | 접촉불가 | 기타 | 전체 |
|----------|--------|------|---------|------|------|-------|
| 2차('99) | 621 | 59.1 | 20.9 | 15.9 | 4.0 | 100.0 |
| 3차('00) | 938 | 66.0 | 17.4 | 15.1 | 1.5 | 100.0 |
| 4차('01) | 809 | 53.3 | 25.7 | 13.0 | 8.0 | 100.0 |
| 5차('02) | 1,315 | 46.7 | 23.3 | 12.7 | 17.3 | 100.0 |
| 6차('03) | 1,402 | 46.6 | 28.9 | 13.1 | 11.3 | 100.0 |
| 7차('04) | 1,435 | 47.0 | 29.8 | 18.5 | 4.7 | 100.0 |
| 8차('05) | 1,539 | 50.5 | 27.2 | 15.3 | 7.0 | 100.0 |
| 9차('06) | 1,610 | 51.1 | 29.8 | 7.0 | 12.2 | 100.0 |
| 10차('07) | 1,777 | 49.9 | 36.0 | 8.8 | 5.4 | 100.0 |
| 11차('08) | 1,907 | 56.6 | 31.8 | 7.3 | 4.2 | 100.0 |
| 12차('09) | 2,013 | 50.4 | 35.6 | 10.9 | 3.1 | 100.0 |
| 13차('10) | 2,116 | 42.0 | 37.1 | 18.8 | 2.1 | 100.0 |
| 14차('11) | 2,291 | 37.3 | 44.5 | 16.1 | 2.1 | 100.0 |
| 15차('12) | 2,381 | 41.3 | 44.3 | 12.4 | 2.0 | 100.0 |
| 16차('13) | 2,497 | 36.8 | 46.5 | 14.1 | 2.6 | 100.0 |
| 17차('14) | 2,596 | 38.1 | 46.9 | 12.3 | 2.7 | 100.0 |
| 18차('15) | 2,617 | 32.4 | 54.0 | 12.3 | 1.3 | 100.0 |
| 19차('16) | 2,721 | 33.7 | 51.3 | 12.0 | 3.0 | 100.0 |
| 20차('17) | 2,768 | 31.1 | 57.3 | 10.1 | 1.5 | 100.0 |

주: 각 연도 거절 사례 수가 기록된 유효표본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비성공 사유로 등장하게 된다. 이 시기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응답자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차년도의 경우 이사추적 실패가 5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은 강력거절 31.1%로 나타났다.

비성공가구에 대한 면접원의 접촉 횟수는 평균 1.2회로 성공가구의 평균 면접 횟수 1.2회와 동일하게 나타났다(표 2-6, 표 2-14 참조).

성공가구의 경우 사전 전화 접촉 등을 통해 조사 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일정을 조율하여 표본가구를 방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문 횟수가

〈표 2-14〉 각 비성공가구 접촉 횟수

(단위: 가구, 횟수)

| | 유효표본 수 | 강력거절 | 이사추적 실패 | 접촉불가 | 기타 | 전체 |
|----------|--------|------|---------|------|-----|-----|
| 2차('99) | 621 | 4.1 | 2.3 | 4.0 | 2.6 | 3.6 |
| 3차('00) | 938 | 5.4 | 3.5 | 5.8 | 2.3 | 5.1 |
| 4차('01) | 809 | 4.1 | 1.7 | 4.3 | 2.0 | 3.3 |
| 5차('02) | 1,315 | 3.9 | 2.8 | 3.8 | 3.4 | 3.5 |
| 6차('03) | 1,402 | 3.4 | 2.8 | 3.9 | 2.3 | 3.2 |
| 7차('04) | 1,435 | 3.6 | 2.5 | 3.7 | 1.7 | 3.2 |
| 8차('05) | 1,539 | 3.9 | 1.9 | 5.1 | 2.0 | 3.4 |
| 9차('06) | 1,610 | 4.1 | 2.7 | 4.5 | 2.6 | 3.6 |
| 10차('07) | 1,777 | 2.9 | 1.2 | 3.4 | 1.2 | 2.2 |
| 11차('08) | 1,906 | 2.8 | 2.4 | 3.5 | 1.6 | 2.6 |
| 12차('09) | 2,013 | 2.4 | 2.2 | 2.5 | 2.1 | 2.4 |
| 13차('10) | 2,115 | 3.6 | 3.3 | 3.2 | 3.5 | 3.4 |
| 14차('11) | 2,309 | 3.4 | 3.1 | 3.9 | 1.9 | 3.3 |
| 15차('12) | 2,379 | 3.3 | 3.2 | 3.4 | 3.0 | 3.3 |
| 16차('13) | 2,497 | 3.1 | 2.8 | 1.9 | 1.4 | 2.8 |
| 17차('14) | 2,596 | 3.4 | 3.3 | 3.6 | 3.0 | 3.4 |
| 18차('15) | 2,625 | 1.8 | 1.3 | 1.9 | 1.6 | 1.5 |
| 19차('16) | 2,720 | 1.4 | 1.0 | 1.1 | 1.2 | 1.2 |
| 20차('17) | 2,810 | 1.3 | 1.1 | 1.4 | 1.1 | 1.2 |

주: 당해 연도 분가 비성공가구인 104가구는 방문 횟수가 기록되지 않음.

1~2회에 그친다. 반면 강력거절 가구의 경우 최종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가구를 방문하여 설득과정을 거친다. 이사 가구의 경우에도 방문 횟수가 적지 않은데 사전적으로 이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가구를 방문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이사가구로 확인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신규 가구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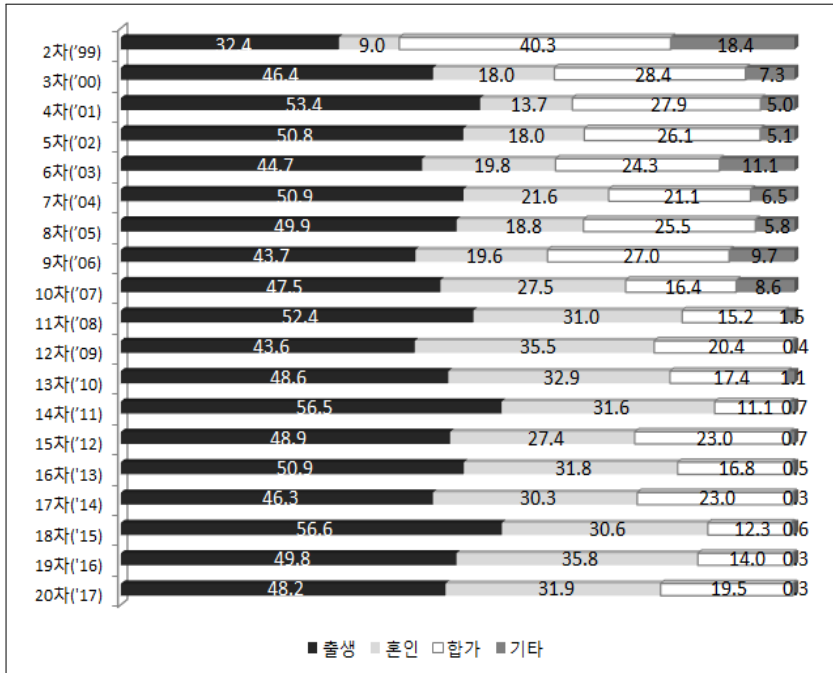
〈표 2-15〉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

(단위: 명, %)

| | 전체 가구원 수 | 기존 가구원 | | 신규 가구원 | | 15세 이상 | | 15세 미만 | |
|----------|-------------|--------|-------|--------|-----|--------|------|--------|------|
| | | 명 | 비중 | 명 | 비중 | 명 | 비중 | 명 | 비중 |
| 1차('98) | 17,504 | 17,504 | 100.0 | 0 | 0.0 | 13,853 | 79.1 | 3,651 | 20.9 |
| 2차('99) | 15,753 | 15,191 | 96.4 | 562 | 3.6 | 12,608 | 80.0 | 3,145 | 20.0 |
| 3차('00) | 14,662 | 14,338 | 97.8 | 324 | 2.2 | 11,838 | 80.7 | 2,824 | 19.3 |
| 4차('01) | 14,412 | 13,943 | 96.7 | 469 | 3.3 | 11,659 | 80.9 | 2,753 | 19.1 |
| 5차('02) | 14,309 | 13,930 | 97.4 | 379 | 2.6 | 11,637 | 81.3 | 2,672 | 18.7 |
| 6차('03) | 14,956 | 14,356 | 96.0 | 600 | 4.0 | 12,186 | 81.5 | 2,770 | 18.5 |
| 7차('04) | 15,252 | 14,746 | 96.7 | 506 | 3.3 | 12,440 | 81.6 | 2,812 | 18.4 |
| 8차('05) | 15,210 | 14,768 | 97.1 | 442 | 2.9 | 12,459 | 81.9 | 2,751 | 18.1 |
| 9차('06) | 15,416 | 14,899 | 96.6 | 517 | 3.4 | 12,691 | 82.3 | 2,725 | 17.7 |
| 10차('07) | 15,414 | 14,963 | 97.1 | 451 | 2.9 | 12,711 | 82.5 | 2,703 | 17.5 |
| 11차('08) | 15,214 | 14,746 | 96.9 | 468 | 3.1 | 12,561 | 82.6 | 2,653 | 17.4 |
| 12차('09) | 15,460 | 14,917 | 96.5 | 543 | 3.5 | 12,828 | 83.0 | 2,632 | 17.0 |
| 13차('10) | 15,433 | 14,886 | 96.5 | 547 | 3.5 | 12,826 | 83.1 | 2,607 | 16.9 |
| 14차('11) | 15,312 | 14,898 | 97.3 | 414 | 2.7 | 12,701 | 82.9 | 2,611 | 17.1 |
| 15차('12) | 15,388 | 14,983 | 97.4 | 405 | 2.6 | 12,794 | 83.1 | 2,594 | 16.9 |
| 16차('13) | 15,370 | 14,989 | 97.5 | 381 | 2.5 | 12,784 | 83.2 | 2,586 | 16.8 |
| 17차('14) | 15,418 | 15,118 | 98.1 | 300 | 1.9 | 12,863 | 83.4 | 2,555 | 16.6 |
| 18차('15) | 15,500 | 15,149 | 97.7 | 351 | 2.3 | 12,911 | 83.3 | 2,589 | 16.7 |
| 19차('16) | 15,524 | 15,231 | 98.1 | 293 | 1.9 | 12,992 | 83.7 | 2,532 | 16.3 |
| 20차('17) | 15,623 | 15,315 | 98.0 | 308 | 2.0 | 13,109 | 83.9 | 2,514 | 16.1 |

[그림 2-2]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

(단위: %)



<표 2-15>는 전체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을 보여준다. 이 표에서 가구원은 가구 조사 시 파악된 가구 구성원으로, 개인조사에 성공한 개인 응답자보다 많음에 유의해야 한다. 20차년도 전체 가구원은 15,623명이고, 이 중 신규 가구원은 308명으로 전체 가구원(15,623명)에서 2.0%를 차지한다.

[그림 2-2]는 비원표본가구원의 신규 추가 이유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에 따르면, 차수별로 다소간 변동은 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생'으로 20차년도의 경우 48.2%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혼인'으로 31.9%였으며, 이전 차수에서 분가했다가 다시 원래의 가구로 합친 '합가'의 비중은 19.5%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15세 이상 개인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2-16>과 같다. 20차년도 조사성공가구에서 15세 이상으로 파악된 가구원은 모두 13,109명이었으며 이 중 90.6%가 개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년도와 2차년도의 경우 개인조사 대상자 중 96.2%가 성공하였는데, 개인조사 비중은 2차년도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20차년도 개인조사 가구원 중 신규 응답자의 비중은 2.3%(275명)로 이 중에서만 15세가 됨에 따라 조사에 진입한 비중은 74.9%, 기존 가구원 중 혼인이나 합가 등의 이유(기타 항목)로 개인조사에 추가된 개인은 25.1%(69명)로 조사되었다.

〈표 2-16〉 개인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

(단위: 명, %)

| | 15세 이상 가구원 | 개인조사 성공가구원 | | 기존 가구원 | | 신규 가구원 | | 만 15세 | | 기타 | |
|----------|------------|------------|------|--------|-------|--------|-----|-------|------|-----|------|
| | | 명 | 비중 | 명 | 비중 | 명 | 비중 | 명 | 비중 | 명 | 비중 |
| | | | | | | | | | | | |
| 1차('98) | 13,853 | 13,321 | 96.2 | 13,321 | 100.0 | 0 | 0.0 | 0 | - | 0 | - |
| 2차('99) | 12,608 | 12,037 | 95.5 | 11,236 | 93.3 | 801 | 6.7 | 478 | 59.7 | 323 | 40.3 |
| 3차('00) | 11,838 | 11,205 | 94.7 | 10,738 | 95.8 | 467 | 4.2 | 322 | 69.0 | 145 | 31.0 |
| 4차('01) | 11,659 | 11,051 | 94.8 | 10,606 | 96.0 | 445 | 4.0 | 250 | 56.2 | 195 | 43.8 |
| 5차('02) | 11,637 | 10,966 | 94.2 | 10,564 | 96.3 | 402 | 3.7 | 234 | 58.2 | 168 | 41.8 |
| 6차('03) | 12,186 | 11,541 | 94.7 | 10,984 | 95.2 | 557 | 4.8 | 283 | 50.8 | 274 | 49.2 |
| 7차('04) | 12,440 | 11,660 | 93.7 | 11,218 | 96.2 | 442 | 3.8 | 255 | 57.7 | 187 | 42.3 |
| 8차('05) | 12,459 | 11,580 | 92.9 | 11,199 | 96.7 | 381 | 3.3 | 227 | 59.6 | 154 | 40.4 |
| 9차('06) | 12,691 | 11,756 | 92.6 | 11,359 | 96.6 | 397 | 3.4 | 241 | 60.7 | 156 | 39.3 |
| 10차('07) | 12,711 | 11,855 | 93.3 | 11,459 | 96.7 | 396 | 3.3 | 263 | 66.4 | 133 | 33.6 |
| 11차('08) | 12,561 | 11,734 | 93.4 | 11,343 | 96.7 | 391 | 3.3 | 257 | 65.7 | 134 | 34.3 |
| 12차('09) | 12,828 | 11,739 | 91.5 | 11,376 | 96.9 | 363 | 3.1 | 219 | 60.3 | 144 | 39.7 |
| 13차('10) | 12,826 | 11,582 | 90.3 | 11,215 | 96.8 | 367 | 3.2 | 223 | 60.8 | 144 | 39.2 |
| 14차('11) | 12,701 | 11,376 | 89.6 | 11,063 | 97.2 | 313 | 2.8 | 220 | 70.3 | 93 | 29.7 |
| 15차('12) | 12,794 | 11,442 | 89.4 | 11,127 | 97.2 | 315 | 2.8 | 211 | 67.0 | 104 | 33.0 |
| 16차('13) | 12,784 | 11,330 | 88.6 | 11,077 | 97.8 | 253 | 2.2 | 181 | 71.5 | 72 | 28.5 |
| 17차('14) | 12,863 | 10,756 | 83.6 | 10,677 | 99.3 | 79 | 0.7 | 33 | 41.8 | 46 | 58.2 |
| 18차('15) | 12,911 | 11,445 | 88.6 | 11,027 | 96.3 | 418 | 3.7 | 346 | 82.8 | 72 | 17.2 |
| 19차('16) | 12,992 | 11,652 | 89.7 | 11,348 | 97.4 | 304 | 2.6 | 227 | 74.7 | 77 | 25.3 |
| 20차('17) | 13,109 | 11,880 | 90.6 | 11,605 | 97.7 | 275 | 2.3 | 206 | 74.9 | 69 | 25.1 |

제6절 통합표본 자료의 특성

1. 통합표본의 개요

KLIPS는 도시 지역 5,000가구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시작되어 20차년도 현재 원가구 3,355가구와 분가가구 2,40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원가구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원표본유지율은 67.1%, 원가구 중 소멸가구를 제외한 4,67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유효표본유지율은 71.8%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표 2-1 참조).

그러나 패널 이탈에 의한 표본 마모와 도시 지역 표집에 따른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9년 전국 단위의 가구로 모집단을 확장하는 표본 추가가 실시되었다.⁵⁾ 표본 추가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되어 총 1,415가구에 대한 조사에 성공하였다. 이에 KLIPS는 1차년도부터 이어온 98표본과 2009년 표본 추가를 통한 통합표본으로 두 개의 패널을 한 데이터에 동시에 가지고 있다.

통합표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 2-3]을 살펴보면, 98표본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 원가구 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된 패널이다. 통합표본은 2009년 당시 98표본 원가구 5,000가구 중 조사에 성공한 3,658가구와 분가가구 1,648가구, 추가 표본 1,415가구를 모두 합한 6,721가구가 통합표본 1차 원가구로 형성되어 2017년까지 9년 동안 조사 대상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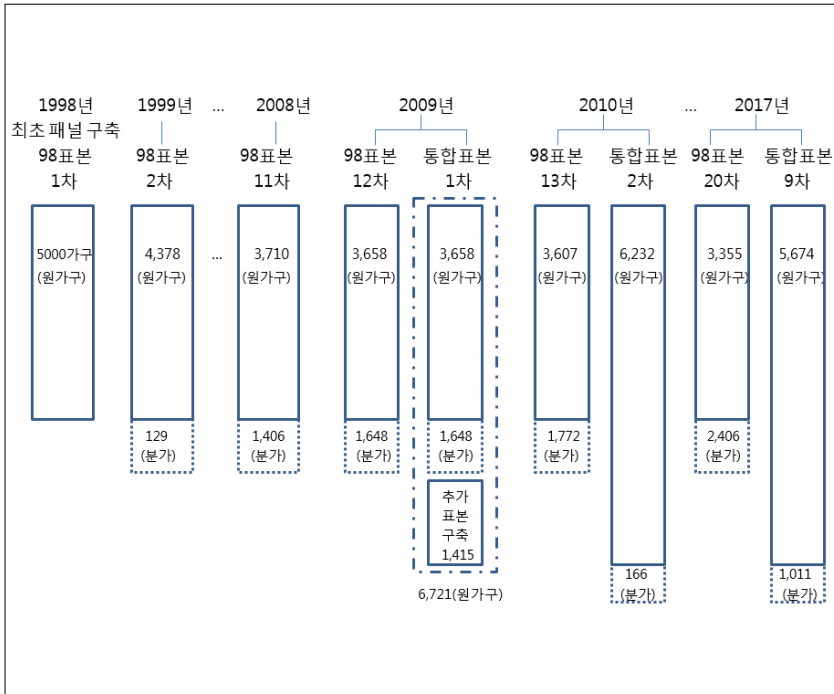
2. 통합표본유지율의 개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된 2009년의 추가 표본을 포함한 KLIPS 통합표본 가구를 기준으로 조사 연도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5) 표본 추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재광(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통계학과)의 『한국노동패널조사 표본 추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09. 3월)를 참조.

〔그림 2-3〕 통합표본의 개요

(단위: 당해 연도 조사성공가구)



주: 98표본 원가구 중 2009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원가가 다음 해인 2010년에 조사되었을 경우, 98표본에 포함되지만 통합표본의 원가에는 속하지 않았으므로 통합표본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통합표본은 2009년도에 조사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는 패널임에 유의해야 함.

<표 2-17>과 같다. 통합표본 1차년도(2009년)에 조사된 가구는 6,721가구, 면접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14,489명이었다. 이후 2차년도에는 원표본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92.7%로 나타났으나, 기존 패널이 2차년도에 13.4%포인트 감소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9차년도의 원표본유지율은 84.4%로 매우 안정적인 원표본유지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패널조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20년 이상 축적되었고, 실사(fieldwork)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개선된 시스템과 조사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에 실시된 제20차 KLIPS 조사에서 통합표본은 원표본 5,674가

구 및 분가한 1,011가구를 합하여 조사에 성공한 총 6,685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구 기준 원표본유지율은 84.4%로 전년도에 비해 0.8%포인트 감소하였다.

<표 2-18>은 조사 방식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면접의 비중이 평균 95%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 방식에 도입된CAPI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19>는 응답자의 본인/대리인 응답 비중을 나타내는데, 본인의 비중이 평균 95% 정도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리 응답으로 인한 데이터의 신뢰도 하락과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KLIPS에서 언급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표 2-17> 1~9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통합표본)

| | 조사 대상 원가구- 소멸가구 | 조사 성공 가구 수 ¹⁾ | 원표본 가구 수 ²⁾ | 원표본 유지율 ³⁾ | 유효표본 유지율 ⁴⁾ | 분가 가구 수 | 가구원 응답자 수 ⁵⁾ | 실사 기간 ⁶⁾ |
|---------|-----------------------|--------------------------------|---------------------------|--------------------------|---------------------------|---------------|-------------------------------|---------------------|
| 1차('09) | 6,721 | 6,721 | 6,721 | 100.0 | 100.0 | 0 | 14,489 | 3~10월 |
| 2차('10) | 6,694 | 6,398 | 6,232 | 92.7 | 93.1 | 166 | 13,641 | 7~12월 |
| 3차('11) | 6,676 | 6,388 | 6,082 | 90.5 | 91.1 | 306 | 13,409 | 7~익년 2월 |
| 4차('12) | 6,641 | 6,434 | 6,016 | 89.5 | 90.6 | 418 | 13,426 | 6~12월 |
| 5차('13) | 6,597 | 6,457 | 5,904 | 87.8 | 89.5 | 553 | 13,303 | 6~12월 |
| 6차('14) | 6,589 | 6,493 | 5,840 | 86.9 | 88.6 | 653 | 12,595 | 3~10월 |
| 7차('15) | 6,530 | 6,577 | 5,793 | 86.2 | 88.7 | 784 | 13,372 | 3~11월 |
| 8차('16) | 6,505 | 6,634 | 5,728 | 85.2 | 88.1 | 906 | 13,520 | 4~11월 |
| 9차('17) | 6,475 | 6,685 | 5,674 | 84.4 | 87.6 | 1,011 | 13,774 | 3~11월 |

주: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에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하는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6,721가구 중 해당 연도에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원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6,721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에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4) '유효표본유지율'은 원표본 6,721가구 중에서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소멸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 대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5)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6) 1차 조사는 조사 익년 1월에 1건의 조사가, 3차 조사는 조사 익년 1월에 10건, 2월에 9건의 조사가 이루어졌음.

<표 2-20>은 조사성공가구의 면접원 평균 방문 횟수를 보여준다. 9차년도(2017년)를 보면, 평균적으로 1.2회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범주별로는 평균 1회 방문이 88.9%, 2~3회 방문이 10.0%이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표본을 반복 추적하는 조사로, 일단 표본가구가 조사를 수용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대부분이 1~3회 방문으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표 2-18>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통합표본)

(단위: 명, %)

| | 개인 응답자 수 | 전체 비중 | 면접 | 유치 | 전화 | 면접+ 전화 | 유치+ 전화 | 면접+ 유치 | 면접+ 유치+ 전화 |
|---------|----------------|----------|------|-----|-----|-----------|-----------|-----------|------------------|
| 1차('09) | 14,489 | 100.0 | 93.2 | 1.5 | 2.3 | 2.1 | 0.5 | 0.3 | 0.1 |
| 2차('10) | 13,641 | 100.0 | 94.7 | 0.4 | 2.3 | 2.2 | 0.3 | 0.1 | 0.1 |
| 3차('11) | 13,409 | 100.0 | 94.0 | 0.7 | 2.5 | 2.0 | 0.4 | 0.3 | 0.1 |
| 4차('12) | 13,426 | 100.0 | 94.4 | 0.4 | 3.9 | 1.2 | 0.1 | 0.0 | 0.1 |
| 5차('13) | 13,303 | 100.0 | 95.7 | 0.4 | 2.7 | 0.9 | 0.1 | 0.1 | 0.0 |
| 6차('14) | 12,595 | 100.0 | 96.9 | 0.3 | 2.0 | 0.6 | 0.1 | 0.1 | 0.0 |
| 7차('15) | 13,372 | 100.0 | 95.6 | 0.5 | 2.8 | 0.7 | 0.2 | 0.1 | 0.1 |
| 8차('16) | 13,520 | 100.0 | 96.7 | 0.4 | 1.8 | 0.6 | 0.4 | 0.1 | 0.0 |
| 9차('17) | 13,774 | 100.0 | 97.0 | 0.3 | 2.0 | 0.3 | 0.4 | 0.0 | 0.0 |

<표 2-19> 응답자의 본인/대리인 응답 비중(통합표본)

(단위: 명, %)

| | 개인응답자 수 | 전체 비중 | 본인 | 대리인 | 본인+대리인 |
|---------|---------|-------|------|-----|--------|
| 1차('09) | 14,489 | 100.0 | 91.7 | 3.9 | 4.4 |
| 2차('10) | 13,641 | 100.0 | 93.7 | 3.7 | 2.6 |
| 3차('11) | 13,409 | 100.0 | 93.5 | 4.2 | 2.3 |
| 4차('12) | 13,426 | 100.0 | 95.0 | 3.1 | 1.9 |
| 5차('13) | 13,303 | 100.0 | 95.1 | 3.2 | 1.8 |
| 6차('14) | 12,595 | 100.0 | 95.5 | 3.2 | 1.3 |
| 7차('15) | 13,372 | 100.0 | 95.3 | 2.8 | 2.0 |
| 8차('16) | 13,520 | 100.0 | 96.5 | 2.0 | 1.5 |
| 9차('17) | 13,774 | 100.0 | 96.5 | 2.4 | 1.1 |

〈표 2-20〉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통합표본)

(단위: 회, %)

| | 사례 수 | 평균값 | 표준편차 | 1회 | 2~3회 | 4~5회 | 5회 이상 | 전체 |
|---------|-------|-----|------|------|------|------|-------|-------|
| 1차('09) | 6,721 | 1.5 | 1.0 | 68.6 | 26.9 | 3.6 | 1.0 | 100.0 |
| 2차('10) | 6,398 | 1.3 | 0.7 | 80.6 | 17.1 | 2.1 | 0.3 | 100.0 |
| 3차('11) | 6,388 | 1.3 | 0.8 | 80.3 | 17.0 | 2.1 | 0.6 | 100.0 |
| 4차('12) | 6,434 | 1.4 | 0.9 | 76.0 | 21.0 | 2.2 | 0.8 | 100.0 |
| 5차('13) | 6,457 | 1.2 | 0.6 | 87.6 | 11.4 | 0.8 | 0.2 | 100.0 |
| 6차('14) | 6,493 | 1.5 | 0.9 | 72.2 | 23.9 | 3.3 | 0.6 | 100.0 |
| 7차('15) | 6,577 | 1.3 | 0.8 | 79.6 | 18.4 | 1.6 | 0.5 | 100.0 |
| 8차('16) | 6,634 | 1.3 | 0.6 | 78.3 | 19.8 | 1.8 | 0.1 | 100.0 |
| 9차('17) | 6,684 | 1.2 | 0.6 | 88.9 | 10.0 | 0.9 | 0.2 | 100.0 |

3. 응답가구의 특성

패널조사에서 패널응답 가구의 지속응답은 조사성공률과는 또 다르게 자료의 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표 2-21〉은 통합 1~9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성공가구들이 조사에 몇 번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응답한 가구는 총 7,863가구이며, 이 중 원가구는 85.5%(6,721가구), 2차년도 이후 분가한 분가가구는 14.5%(1,142가구)이다. 1~9차년도 기간 동안 모두 응답한 가구는 원가구 대비 7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차년도에 응답한 후 아직까지 조사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원가구는 4.1%(276가구)로 나타났다.

분가가구들은 2차년도 이후 새롭게 형성된 가구이기 때문에 9회를 모두 응답한 가구는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분가가구의 경우 1회 응답가구의 비중이 16.1%인데, 여기에는 해당 연도 분가가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에서 이탈한 가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표 2-22〉는 1~9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에 성공한 가구원의 응답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물론 조사가구에 포함된 가구원 중에서도 15세 미만의 가구원은 응답할 수 있는 설문지가 없기 때문에 이 표는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즉 조사성공률은 15세 이상 가구원의 비중과 그 변화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이 표를 통해서 1~9차년도에 응답한 가구원의 특성을 원표본가구원과 비원표본가구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한 번 이상 응답한 개인은 17,925명이고, 조사 기간 동안 연속해서 응답한 자는 8,837명으로 원표본가구원이 전체의 52.4%를 차지한다.⁶⁾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연도별로 응답한 15세 이상 원표본가구원의 수를 살펴보면 [그림 2-4]와 같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총 가구원 중 개인조사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총 14,489명이었다. 2차년도부터 원표본가구원의 비중은 소폭으로 감소하여 9차년도 조사에서는 개인조사에 성공한 전체 표본 13,774명 중 93.9%인 12,936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2-21〉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통합표본)

(단위: 가구, %)

| | 전체 | | 원가구 | | 분가가구 | |
|----|-------|-------|-------|-------|-------|-------|
| | 가구 수 | 비중 | 가구 수 | 비중 | 가구 수 | 비중 |
| 1회 | 460 | 5.9 | 276 | 4.1 | 184 | 16.1 |
| 2회 | 323 | 4.1 | 167 | 2.5 | 156 | 13.7 |
| 3회 | 307 | 3.9 | 145 | 2.2 | 162 | 14.2 |
| 4회 | 241 | 3.1 | 114 | 1.7 | 127 | 11.1 |
| 5회 | 255 | 3.2 | 111 | 1.7 | 144 | 12.6 |
| 6회 | 272 | 3.5 | 152 | 2.3 | 120 | 10.5 |
| 7회 | 321 | 4.1 | 196 | 2.9 | 125 | 10.9 |
| 8회 | 514 | 6.5 | 390 | 5.8 | 124 | 10.9 |
| 9회 | 5,170 | 65.8 | 5,170 | 76.9 | - | 0.0 |
| 전체 | 7,863 | 100.0 | 6,721 | 100.0 | 1,142 | 100.0 |

6) 개인 단위의 원표본가구원은 각 연도별로 만 15세가 되면서 새롭게 개인조사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매년 변동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1회 응답이라 하더라도 이는 6차년도에 처음으로 개인조사에 진입한 원표본가구원(즉, 1차 조사 당시 원표본가구에 소속되었던 가구원)을 포함한 숫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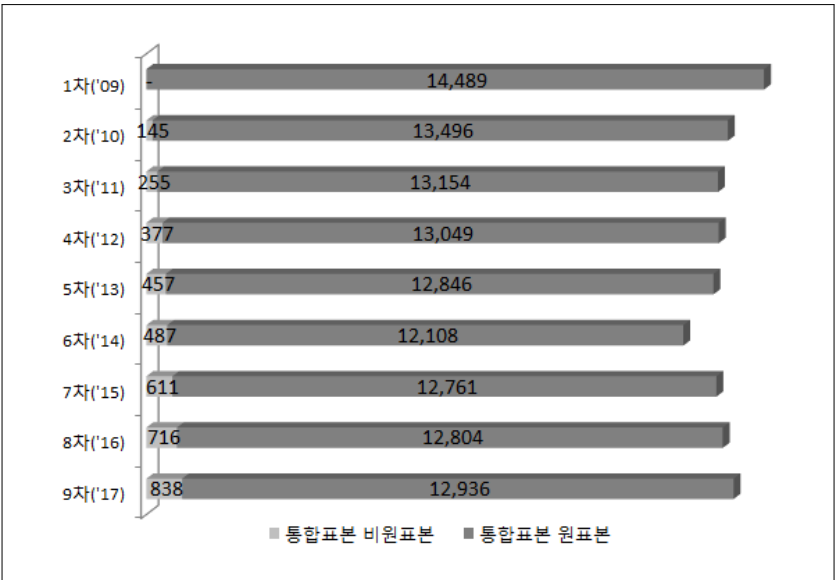
〈표 2-22〉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통합표본)

(단위: 명, %)

| | 전체 | | 원표본가구원 | | 비원표본가구원 | |
|----|--------|-------|--------|-------|---------|-------|
| | 가구원 수 | 비중 | 가구원 수 | 비중 | 가구원 수 | 비중 |
| 1회 | 1,362 | 7.6 | 1,136 | 6.7 | 226 | 21.4 |
| 2회 | 1,083 | 6.0 | 889 | 5.3 | 194 | 18.3 |
| 3회 | 1,110 | 6.2 | 957 | 5.7 | 153 | 14.5 |
| 4회 | 769 | 4.3 | 671 | 4.0 | 98 | 9.3 |
| 5회 | 935 | 5.2 | 826 | 4.9 | 109 | 10.3 |
| 6회 | 1,032 | 5.8 | 916 | 5.4 | 116 | 11.0 |
| 7회 | 1,181 | 6.6 | 1,091 | 6.5 | 90 | 8.5 |
| 8회 | 1,616 | 9.0 | 1,544 | 9.2 | 72 | 6.8 |
| 9회 | 8,837 | 49.3 | 8,837 | 52.4 | 0 | 0.0 |
| 전체 | 17,925 | 100.0 | 16,867 | 100.0 | 1,058 | 100.0 |

〔그림 2-4〕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15세 이상 원표본가구원 수 추이(통합표본)

(단위: 명)



4. 이사 및 분가 가구의 특성

앞서 기존 패널을 소개하면서 이사가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패널 자료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LIPS 조사에서 나타난 통합표본 가구의 이사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는 2017년에 새롭게 분가한 가구를 제외한 6,599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9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이사가구는 총 820가구로 전체 조사성공가구(6,599가구)의 12.4%이다. 비원표본가구 중 이사가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9차년도 조사에서는 25.8%로 나타났다(표 2-23 참조).

<표 2-24>는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9차년도의 신규 분가가구는 86가구로 전체 가구(6,685가구)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5. 비성공가구의 특성

<표 2-25>는 2~9차년도 조사 기간에 발생한 비성공 사유를 보여준다.

<표 2-23> 이사가구의 분포(통합표본)

(단위: %)

| | 전체 | | | 원표본가구 | | | 비원표본가구 | | |
|---------|------------|-------|------|---------|-------|------|---------|------|------|
| | 전체 가구 수 | 이사가구 | | 가구 수 | 이사가구 | | 가구 수 | 이사가구 | |
| | | 사례 수 | 비중 | | 사례 수 | 비중 | | 사례 수 | 비중 |
| 1차('09) | 6,721 | - | - | 6,721 | - | - | - | - | - |
| 2차('10) | 6,231 | 1,039 | 16.7 | 6,231 | 1,039 | 16.7 | - | - | - |
| 3차('11) | 6,266 | 680 | 10.9 | 6,082 | 635 | 10.4 | 184 | 45 | 24.5 |
| 4차('12) | 6,331 | 553 | 8.7 | 6,016 | 474 | 7.9 | 315 | 79 | 25.1 |
| 5차('13) | 6,349 | 716 | 11.3 | 5,904 | 590 | 10.0 | 445 | 126 | 28.3 |
| 6차('14) | 6,407 | 508 | 7.9 | 5,840 | 393 | 6.7 | 567 | 115 | 20.3 |
| 7차('15) | 6,463 | 792 | 12.3 | 5,793 | 606 | 10.5 | 670 | 186 | 27.8 |
| 8차('16) | 6,539 | 739 | 11.3 | 5,728 | 532 | 9.3 | 811 | 207 | 25.5 |
| 9차('17) | 6,599 | 820 | 12.4 | 5,674 | 581 | 10.2 | 925 | 239 | 25.8 |

9차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성공 사유는 이사추적 실패로 45.6%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강력거절 37.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년 약 10% 이상의 이사가구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사가구에 대한 관리 및 대책이 패널 성공률 및 자료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2-24〉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 수(통합표본)

(단위: 가구, %)

| | 전체 가구 수 | 기존 분가 | 신규 분가 | 분가가구 | |
|---------|---------|-------|-------|-------|------|
| | | | | 가구 수 | 비중 |
| 2차('10) | 6,398 | | 166 | 166 | 2.6 |
| 3차('11) | 6,388 | 184 | 122 | 306 | 4.8 |
| 4차('12) | 6,434 | 315 | 103 | 418 | 6.5 |
| 5차('13) | 6,457 | 445 | 108 | 553 | 8.6 |
| 6차('14) | 6,493 | 567 | 86 | 653 | 10.1 |
| 7차('15) | 6,577 | 670 | 114 | 784 | 11.9 |
| 8차('16) | 6,634 | 811 | 95 | 906 | 13.7 |
| 9차('17) | 6,685 | 925 | 86 | 1,011 | 15.1 |

〈표 2-25〉 2~9차년도 비성공 사유(통합표본)

(단위: 가구, %)

| | 유효표본 수 | 강력거절 | 이사추적 실패 | 접촉불가 | 기타 | 전체 |
|---------|--------|------|---------|------|-----|-------|
| 2차('10) | 462 | 37.0 | 29.4 | 28.6 | 5.0 | 100.0 |
| 3차('11) | 679 | 38.4 | 32.8 | 23.9 | 4.9 | 100.0 |
| 4차('12) | 805 | 43.5 | 34.6 | 19.0 | 3.0 | 100.1 |
| 5차('13) | 946 | 38.6 | 34.3 | 21.8 | 5.3 | 100.0 |
| 6차('14) | 1,086 | 42.3 | 32.9 | 18.9 | 6.0 | 100.0 |
| 7차('15) | 1,131 | 36.3 | 42.5 | 18.7 | 2.6 | 100.0 |
| 8차('16) | 1,265 | 37.5 | 39.5 | 16.7 | 6.4 | 100.0 |
| 9차('17) | 1,320 | 37.1 | 45.6 | 14.4 | 3.0 | 100.0 |

주: 각 연도 거절 사례 수가 기록된 유효표본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표 2-26>은 비성공가구에 시도된 조사 과정에서의 방문 횟수를 보여 주는데, 9차년도에 평균 1.2회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실패한 것을 알 수 있다. 비성공가구에 시간과 노력이 매우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은 패널조사 과정의 어려움을 나타내 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표 2-26> 비성공가구 방문 횟수(통합표본)

(단위: 빈도, 횟수)

| | 유효표본 수 | 강력거절 | 이사추적 실패 | 접촉불가 | 기타 | 전체 |
|---------|--------|------|------------|------|-----|-----|
| 2차('10) | 460 | 3.5 | 3.4 | 3.4 | 3.4 | 3.4 |
| 3차('11) | 695 | 3.5 | 3.4 | 4.0 | 2.2 | 3.5 |
| 4차('12) | 805 | 3.5 | 3.1 | 3.4 | 3.0 | 3.3 |
| 5차('13) | 946 | 3.2 | 2.8 | 1.9 | 1.5 | 2.7 |
| 6차('14) | 1,086 | 3.7 | 3.5 | 3.7 | 2.9 | 3.6 |
| 7차('15) | 1,251 | 1.8 | 1.3 | 2.0 | 1.6 | 1.6 |
| 8차('16) | 1,398 | 1.3 | 1.0 | 1.1 | 1.2 | 1.2 |
| 9차('17) | 1,503 | 1.3 | 1.1 | 1.4 | 1.1 | 1.2 |

6. 신규 조사자의 특성

<표 2-27>은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을 보여준다. 전체에서 신규 가구원의 비중은 통합 9차년도 1.9%이고, 조사 기간이 증가할수록 소폭 감소되고 있다. 신규 가구원의 증감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림 2-5]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주된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는 출생, 혼인, 합가로 요약할 수 있다. 9차년도 출생으로 추가된 신규 가구원은 45.3%로 나타나며, 그다음으로 혼인으로 인한 신규 가구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5세 이상 개인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 <표 2-28>이다. 이 표는 가구 데이터에는 가구원으로 조사되었지만, 개인 응답을 하지 않은 가구원은 누락되어 있어 가구원 중에 신규로 진입한 구성원을 설명하는 <표 2-27>과 다른 개념임에 유의해야 한다.

9차년도 조사성공가구에서 15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 가구원은 모두 15,123명이었고, 이 중 91.1%가 개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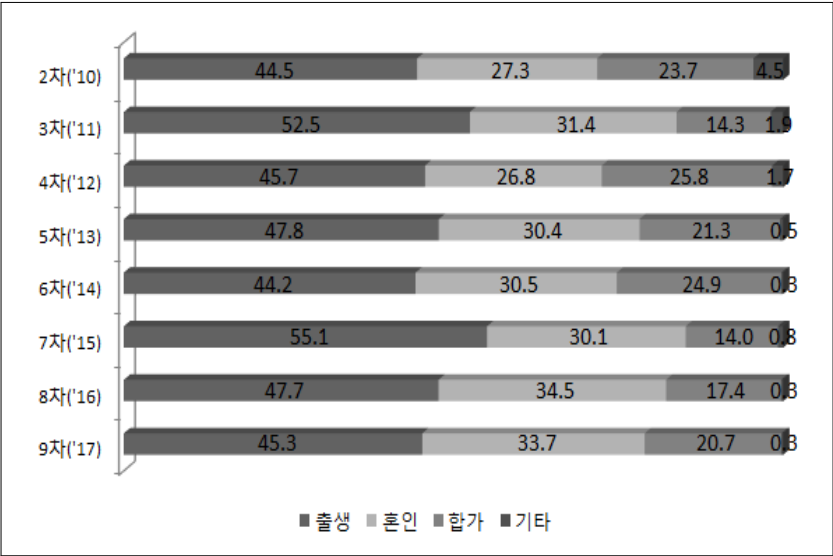
〈표 2-27〉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통합표본)

(단위: 명, %)

| | 전체 가구원 수 | 기존 가구원 | | 신규 가구원 | | 15세 이상 가구원 | | 15세 미만 가구원 | |
|---------|----------------|-----------|-------|-----------|-----|---------------|------|---------------|------|
| | | 명 | 비중 | 명 | 비중 | 명 | 비중 | 명 | 비중 |
| 1차('09) | 19,047 | 19,047 | 100.0 | - | - | 15,819 | 83.1 | 3,228 | 16.9 |
| 2차('10) | 18,055 | 17,502 | 96.9 | 553 | 3.1 | 15,014 | 83.2 | 3,041 | 16.8 |
| 3차('11) | 17,823 | 17,402 | 97.6 | 421 | 2.4 | 14,864 | 83.4 | 2,959 | 16.6 |
| 4차('12) | 17,820 | 17,402 | 97.7 | 418 | 2.3 | 14,916 | 83.7 | 2,904 | 16.3 |
| 5차('13) | 17,778 | 17,374 | 97.7 | 404 | 2.3 | 14,916 | 83.9 | 2,862 | 16.1 |
| 6차('14) | 17,726 | 17,405 | 98.2 | 321 | 1.8 | 14,928 | 84.2 | 2,798 | 15.8 |
| 7차('15) | 17,797 | 17,424 | 97.9 | 373 | 2.1 | 14,997 | 84.3 | 2,800 | 15.7 |
| 8차('16) | 17,719 | 17,409 | 98.3 | 310 | 1.7 | 15,003 | 84.7 | 2,716 | 15.3 |
| 9차('17) | 17,801 | 17,462 | 98.1 | 339 | 1.9 | 15,123 | 85.0 | 2,678 | 15.0 |

〈그림 2-5〉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통합표본)

(단위: %)



〈표 2-28〉 신규 조사자의 구성(통합표본)

(단위: 명, %)

| | 15세 이상 가구원 | 개인조사 | | | | | | | | | |
|---------|------------------|--------|------|--------|-------|--------|-----|-------|------|-----|------|
| | | 성공가구원 | | 기존 조사자 | | 신규 조사자 | | 만 15세 | | 기타 | |
| | | 명 | 비중 | 명 | 비중 | 명 | 비중 | 명 | 비중 | 명 | 비중 |
| 1차('09) | 15,819 | 14,489 | 91.6 | 14,489 | 100.0 | - | - | - | - | - | - |
| 2차('10) | 15,014 | 13,641 | 90.9 | 13,172 | 96.6 | 469 | 3.4 | 324 | 69.1 | 145 | 30.9 |
| 3차('11) | 14,864 | 13,409 | 90.2 | 12,987 | 96.9 | 422 | 3.1 | 318 | 75.4 | 104 | 24.6 |
| 4차('12) | 14,916 | 13,426 | 90.0 | 13,047 | 97.2 | 379 | 2.8 | 262 | 69.1 | 117 | 30.9 |
| 5차('13) | 14,916 | 13,303 | 89.2 | 12,982 | 97.6 | 321 | 2.4 | 241 | 75.1 | 80 | 24.9 |
| 6차('14) | 14,928 | 12,595 | 84.4 | 12,492 | 99.2 | 103 | 0.8 | 45 | 43.7 | 58 | 56.3 |
| 7차('15) | 14,997 | 13,372 | 89.2 | 12,898 | 96.5 | 474 | 3.5 | 400 | 84.4 | 74 | 15.6 |
| 8차('16) | 15,003 | 13,520 | 90.1 | 13,177 | 97.5 | 343 | 2.5 | 258 | 75.2 | 85 | 24.8 |
| 9차('17) | 15,123 | 13,774 | 91.1 | 13,443 | 97.6 | 331 | 2.4 | 240 | 72.5 | 91 | 27.5 |

차년도의 경우 개인조사 대상자 중 91.6%에 성공하였는데, 개인조사 비중은 2차년도 이후 약 90%를 유지하고 있다. 9차년도 개인조사 가구원 중 신규 응답자의 비중은 2.4%(331명)로 이 중에서 만 15세가 됨에 따라 조사에 진입한 비중은 72.5%, 기존 가구원 중 혼인이나 합가 등의 이유(기타 항목)로 개인조사에 추가된 개인은 27.5%(91명)로 조사되었다.

제 3 장

조사가구의 특성

본 장에서는 통합표본 9차년도 KLIPS에 성공한 6,685가구와 그 가구 구성원들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가구와 가구원들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지난 9년간의 KLIPS 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표본 내의 인구변동에 대해 다룬다.

이 장에서는 통합표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2009년 통합표본 1차년도 구축함). 분석 대상이 가구일 경우 가구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는 개인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단,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분석에서는 해당 가중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제1절 가구 및 세대 구성

본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성을 살펴본다. KLIPS에서 가구란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가구 개념과 같이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KLIPS에서

가구원은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을 비롯하여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 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미혼 자녀의 경우와 미혼 자녀 중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따로 사는 미혼 자녀 중 재학이나 군복무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와 기혼 자녀 중 따로 사는 경우는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다.⁷⁾ 이와 함께 같이 살고 있으나 가사도우미,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 친·인척이 아닌 경우도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통계청의 경우에는 군복무, 학업이나 직장, 시설 수용 등의 이유로 외지에 살고 있는 가구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숙식을 함께 하는 가사도우미와 하숙생은 가구에 포함되는 점에서 KLIPS의 가구원 정의와 약간 다르다.

<표 3-1>은 연도별로 조사된 가구의 가구원 수 변화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1차년도인 2009년의 평균 가구원 수는 2.8인이었으며 2, 3차년도를 제외(2.9인)하고는 2.8인을 유지하다가 8차년도부터 약간 감소한 2.7인으로 나타났다. 9차년도의 가구원 수 분포는 4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27.7%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1인(23.8%), 2인(21.4%)과 3인(20.3%)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4인 이상 가구의 비중이 꾸준히 하락한 반면, 1~2인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1인 가구의 비중을 볼 때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⁸⁾에서 추정된 1인 가구의 비중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KLIPS의 경우 표본 추출 과정에서 1인 가구가 인구센서스에 비해 과소 표집된 탓으로 보인다.

<표 3-2>에서 보듯이 조사가구의 세대 구성⁹⁾을 9차년도 기준으로 살

7) 이들은 원가구원일 경우 분가가구 및 분가가구의 가구원으로 조사된다.

8) 장래가구추계에 의한 1인 가구 비중은 2009년 23.1%, 2010년 23.9%, 2011년 24.5%, 2012년 25.2%, 2013년 25.9%, 2014년 26.5%, 2015년 27.2%, 2016년 27.9%, 2017년 28.5%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9) 가구의 세대별 구성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에 따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가구 구성원이 1명인 가구.

1세대 가구: 가구주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또 가구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가 이에 속한다.

2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

〈표 3-1〉 연도별 가구원 수 변화 추이(통합표본)

(단위: 가구, %)

| | 전체 (가구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이상 | 평균 (인) |
|---------|--------------|------|------|------|------|-----|----------|-----------|
| 1차('09) | 6,721 | 21.0 | 21.0 | 20.4 | 29.7 | 6.4 | 1.6 | 2.8 |
| 2차('10) | 6,398 | 19.9 | 20.4 | 20.4 | 30.9 | 7.0 | 1.5 | 2.9 |
| 3차('11) | 6,388 | 21.2 | 20.3 | 19.8 | 30.8 | 6.6 | 1.3 | 2.9 |
| 4차('12) | 6,434 | 21.7 | 20.5 | 19.3 | 30.6 | 6.6 | 1.4 | 2.8 |
| 5차('13) | 6,457 | 21.7 | 21.0 | 19.5 | 30.0 | 6.5 | 1.4 | 2.8 |
| 6차('14) | 6,493 | 22.2 | 21.0 | 19.4 | 29.7 | 6.4 | 1.3 | 2.8 |
| 7차('15) | 6,577 | 22.9 | 21.0 | 19.3 | 29.7 | 6.1 | 1.2 | 2.8 |
| 8차('16) | 6,634 | 23.6 | 21.4 | 20.3 | 27.7 | 5.9 | 1.1 | 2.7 |
| 9차('17) | 6,685 | 23.8 | 21.4 | 20.3 | 27.7 | 5.8 | 1.1 | 2.7 |

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주와 그의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 가구가 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주와 그의 배우자 또는 가구주와 그의 형제,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의 형제로 이루어진 1세대 가구는 16.9%를 차지하였다. 한편 1인 가구가 23.8%이고, 가구주와 그의 자녀, 가구주의 손자·손녀가 같이 살거나 가구주와 그의 부모, 가구주의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의 비중은 3.3%였다.

세대 구성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비중은 1차년도 21%에서 9차년도 조사에서는 2.8%포인트 증가한 23.8%로 나타났으나, 3세대 가구는 1차년도 4.9%에서 9차년도 조사에서는 1.6%포인트 감소한 3.3%로 나타나 핵가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3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 가구주의 손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 그리고 가구주의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4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표 3-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통합표본)

(단위: 가구, %)

| | 전체 (가구 수) | 1인 가구 | 1세대 가구 | 2세대 가구 | 3세대 가구 | 4세대 가구 |
|---------|--------------|----------|-----------|-----------|-----------|-----------|
| 1차('09) | 6,721 | 21.0 | 16.4 | 57.7 | 4.9 | 0.0 |
| 2차('10) | 6,398 | 19.9 | 15.8 | 59.6 | 4.7 | 0.1 |
| 3차('11) | 6,388 | 21.2 | 15.9 | 58.5 | 4.4 | 0.0 |
| 4차('12) | 6,434 | 21.7 | 15.7 | 58.5 | 4.0 | 0.0 |
| 5차('13) | 6,457 | 21.7 | 16.2 | 58.2 | 3.9 | 0.0 |
| 6차('14) | 6,493 | 22.2 | 16.3 | 57.6 | 3.9 | 0.0 |
| 7차('15) | 6,577 | 22.9 | 16.1 | 57.5 | 3.6 | 0.0 |
| 8차('16) | 6,634 | 23.6 | 16.6 | 56.4 | 3.4 | 0.0 |
| 9차('17) | 6,685 | 23.8 | 16.9 | 56.0 | 3.3 |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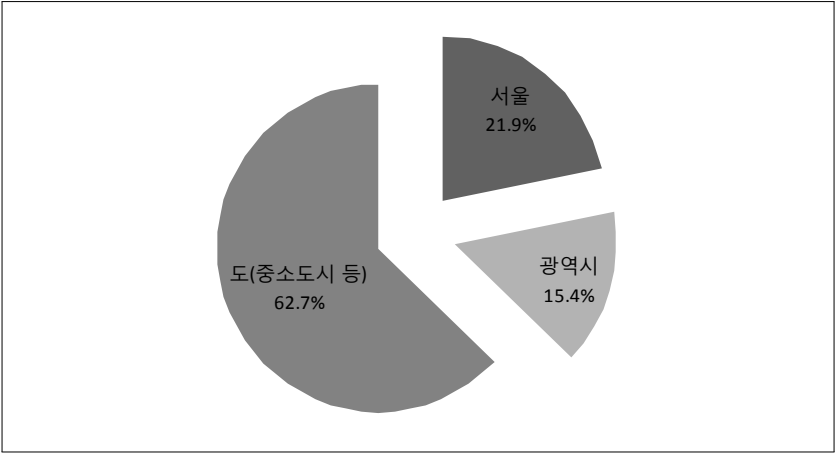
[그림 3-1]은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9차년도 조사에서 3세대 가구라고 응답한 가구 중 62.7%가 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지역에는 21.9%, 광역시 지역에는 15.4%만이 거주해 중소도시일수록 확대가족 형태를 지닌 가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3〉은 가족 구성 형태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핵가족이란 부부만 사는 경우(부부 단독), 부모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부모+미혼 자녀), 부모님 중 한 분과 미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편부모+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경우로 정의한다.

9차년도 기준으로 보면, 먼저 부모+미혼 자녀 가구가 46.8%로 가장 높았으며, 이것이 전형적인 핵가족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 단독 가구가 16.1%, 편부모+미혼 자녀 가구가 6.9%로 나타나고 있다. 각 연도별 핵가족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1차년도 70.2%에서 2차년도(71.8%)까지는 약간 증가하다 그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9차년도에 69.8%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가구추계 자료의 경우 핵가족 가구의 비중이 2009년 62.4%, 2010년 61.7%, 2011년 61.1%, 2012년 60.5%, 2013년 59.9%, 2014년 59.2%, 2015년 58.6%, 2016년 57.9%, 2017년 57.3%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KLIPS의 핵가족 비중이 약 13%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9차(2017)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통합표본)



〈표 3-3〉 연도별 가족 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통합표본)

(단위: 가구, %)

| | 전체 (가구 수) | 핵가족 가구 | 비핵가족 | | | 1인 가구 | 비핵가구 |
|---------|--------------|-----------|----------|---------------|----------------|-------|------|
| | | | 부부 단독 | 부모 + 미혼 자녀 | 편부모 + 미혼 자녀 | | |
| 1차('09) | 6,721 | 70.2 | 15.5 | 47.6 | 7.1 | 21.0 | 8.9 |
| 2차('10) | 6,398 | 71.8 | 14.8 | 49.7 | 7.3 | 19.9 | 8.3 |
| 3차('11) | 6,388 | 70.9 | 15.0 | 48.9 | 7.0 | 21.2 | 8.0 |
| 4차('12) | 6,434 | 70.7 | 14.9 | 48.7 | 7.1 | 21.7 | 7.6 |
| 5차('13) | 6,457 | 70.8 | 15.3 | 48.4 | 7.1 | 21.7 | 7.4 |
| 6차('14) | 6,493 | 70.6 | 15.5 | 48.0 | 7.1 | 22.2 | 7.3 |
| 7차('15) | 6,577 | 70.2 | 15.2 | 47.6 | 7.4 | 22.9 | 7.0 |
| 8차('16) | 6,634 | 69.8 | 15.8 | 46.6 | 7.4 | 23.6 | 6.6 |
| 9차('17) | 6,685 | 69.8 | 16.1 | 46.8 | 6.9 | 23.8 | 6.4 |

제2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본 절에서는 KLIPS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KLIPS의 가구주는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¹⁰⁾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제1절에서 언급한 가구에 대한 정의에서 보듯이 KLIPS의 경우 비혈연관계로만 이루어진 가구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1. 가구주의 특성

<표 3-4>에서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9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53.1세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76.9%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차년도 조사 이후 남성 가구주의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역시나 계속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전체 연령 계층 중 가장 높은 32.7%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23.6%), 40대(22%) 순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가구주의 비중이 매년 늘어 9차년도에는 42.5%까지 증가하였다.

10) 인구주택총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가계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 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표 3-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분포 추이(통합표본)

(단위: 명, %)

| | | 1차 (‘09) | 2차 (‘10) | 3차 (‘11) | 4차 (‘12) | 5차 (‘13) | 6차 (‘14) | 7차 (‘15) | 8차 (‘16) | 9차 (‘17) |
|----------|-----------|-------------|-------------|-------------|-------------|-------------|-------------|-------------|-------------|-------------|
| 전체 | | 6,513 | 6,203 | 6,176 | 6,241 | 6,241 | 6,166 | 6,332 | 6,446 | 6,514 |
| 성별 | 남성 | 79.2 | 78.5 | 78.7 | 78.2 | 78.2 | 77.9 | 77.7 | 77.4 | 76.9 |
| | 여성 | 20.9 | 21.5 | 21.3 | 21.8 | 21.9 | 22.1 | 22.3 | 22.6 | 23.1 |
| 혼인 상태 | 미혼 | 12.7 | 12.1 | 13.2 | 13.7 | 13.7 | 14.8 | 13.8 | 14.4 | 14.0 |
| | 기혼유배우 | 68.1 | 68.1 | 67.6 | 66.9 | 66.6 | 65.8 | 65.7 | 65.4 | 65.6 |
| | 기혼무배우 | 19.3 | 19.8 | 19.2 | 19.4 | 19.7 | 19.4 | 20.5 | 20.2 | 20.4 |
| 연령 | 30세 미만 | 6.8 | 6.9 | 7.0 | 6.1 | 5.8 | 6.6 | 5.2 | 5.3 | 5.1 |
| | 30대 | 20.7 | 19.8 | 20.1 | 19.8 | 19.0 | 18.8 | 17.4 | 17.2 | 16.6 |
| | 40대 | 25.9 | 24.7 | 24.2 | 24.1 | 23.9 | 23.4 | 23.2 | 22.9 | 22.0 |
| | 50대 | 21.1 | 21.7 | 22.4 | 22.8 | 23.1 | 22.8 | 23.4 | 23.4 | 23.6 |
| | 60세 이상 | 25.6 | 27.0 | 26.3 | 27.1 | 28.2 | 28.3 | 30.9 | 31.3 | 32.7 |
| | 평균(세) | 49.7 | 50.3 | 50.2 | 50.6 | 51.3 | 51.1 | 52.3 | 52.5 | 53.1 |
| 교육 수준 | 무학 | 4.7 | 4.6 | 4.1 | 4.0 | 4.1 | 3.8 | 3.8 | 3.5 | 3.5 |
| | 고졸 미만 | 25.7 | 25.3 | 23.7 | 23.1 | 22.7 | 21.5 | 22.0 | 21.2 | 20.8 |
| | 고졸 | 30.8 | 30.3 | 30.6 | 30.4 | 30.0 | 29.5 | 29.5 | 29.1 | 29.2 |
| | 대재 및 중퇴 | 3.9 | 3.6 | 3.8 | 3.6 | 3.8 | 4.2 | 4.1 | 4.3 | 4.1 |
| | (전문)대졸 이상 | 34.9 | 36.2 | 37.7 | 38.9 | 39.5 | 41.0 | 40.7 | 41.9 | 42.5 |

2. 가구원의 특성

〈표 3-5〉에서는 개인 설문과 신규 조사자 설문에 응답한 15세 이상 가구원 13,774명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여성의 비중이 50.2%로 남성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조사 차수가 반복되면서 약50%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 9차년도 조사에서도 여성이 50.1%, 남성이 49.9%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치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9차년도 평균연령은 45.9세로 나타났다. 현재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중은 22.9%로 1차년도(17.8%)에 비해 5.1%포인트 높아진 반면 15세 이상 20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1차년도(9.6%)에 비해 2.9%포인트가 하락한 6.7%로 나타났다. 조사 초기에는 개인 응답자의 주 연령대가 30대와 40대이지만 차수가 지날수록 30대와 40대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50대와 60대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9차년도에는 30대가 16.9%이고 60대 이상은 22.9%로 나타났다.

가구원들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 및 대졸 이상 학력소지자가 각각 26.5%와 2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무학력자의 비중은 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고학력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1차년도에 20%였던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9차년도에 26.2%로 나타났다.

〈표 3-5〉 연도별 조사 15세 이상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통합표본)

(단위: 명, %)

| | | 1차 (’09) | 2차 (’10) | 3차 (’11) | 4차 (’12) | 5차 (’13) | 6차 (’14) | 7차 (’15) | 8차 (’16) | 9차 (’17) |
|----------|---------|-------------|-------------|-------------|-------------|-------------|-------------|-------------|-------------|-------------|
| 전체 | | 14,489 | 13,641 | 13,409 | 13,426 | 13,303 | 12,595 | 13,372 | 13,520 | 13,774 |
| 성별 | 남성 | 49.9 | 49.3 | 49.9 | 49.9 | 49.9 | 49.9 | 49.7 | 49.9 | 49.9 |
| | 여성 | 50.2 | 50.8 | 50.1 | 50.1 | 50.2 | 50.1 | 50.3 | 50.1 | 50.1 |
| 연령 | 15~19세 | 9.6 | 8.5 | 8.2 | 8.1 | 7.8 | 7.6 | 7.4 | 7.1 | 6.7 |
| | 20~24세 | 6.1 | 6.9 | 7.3 | 7.8 | 8.0 | 7.7 | 7.6 | 7.9 | 7.9 |
| | 25~29세 | 9.9 | 9.5 | 8.9 | 8.0 | 7.6 | 7.8 | 7.4 | 7.5 | 7.6 |
| | 30~39세 | 20.3 | 19.4 | 19.5 | 19.1 | 18.7 | 18.2 | 17.3 | 17.3 | 16.9 |
| | 40~49세 | 20.9 | 20.4 | 20.4 | 20.3 | 20.1 | 20.2 | 19.8 | 19.6 | 19.3 |
| | 50~59세 | 15.5 | 16.3 | 17.1 | 17.6 | 18.2 | 18.5 | 18.7 | 18.7 | 18.8 |
| | 60세 이상 | 17.8 | 18.9 | 18.5 | 19.1 | 19.7 | 20.3 | 21.8 | 22.0 | 22.9 |
| | 평균(세) | 42.7 | 43.4 | 43.5 | 43.8 | 44.3 | 44.7 | 45.3 | 45.4 | 45.9 |
| 혼인 상태 | 미혼 | 31.0 | 29.5 | 29.8 | 30.2 | 30.0 | 29.5 | 29.6 | 30.4 | 30.4 |
| | 기혼유배우 | 58.7 | 59.6 | 59.8 | 59.3 | 59.3 | 59.8 | 59.3 | 58.9 | 58.8 |
| | 기혼무배우 | 10.3 | 10.8 | 10.4 | 10.4 | 10.7 | 10.7 | 11.1 | 10.8 | 10.8 |
| 교육 수준 | 무학 | 4.0 | 3.9 | 3.5 | 3.4 | 3.3 | 3.1 | 3.1 | 2.8 | 2.7 |
| | 고졸 미만 | 28.8 | 27.4 | 26.2 | 25.1 | 24.8 | 23.6 | 23.5 | 22.4 | 21.8 |
| | 고졸 | 27.7 | 27.8 | 27.6 | 27.6 | 27.2 | 27.1 | 26.9 | 26.9 | 26.5 |
| | 대재 및 중퇴 | 9.2 | 9.7 | 10.1 | 10.2 | 10.5 | 10.6 | 10.5 | 10.8 | 10.4 |
| | 전문대졸 | 10.3 | 10.9 | 11.1 | 11.2 | 11.3 | 11.7 | 11.7 | 12.1 | 12.3 |
| | 대졸 이상 | 20.0 | 20.4 | 21.4 | 22.5 | 23.0 | 24.0 | 24.4 | 25.2 | 26.2 |

제3절 가구의 출생과 사망

KLIPS의 조사 대상 가구에는 매년 가구의 출생·결혼 등으로 인한 가구의 진입 및 유학, 군 입대, 사망 등으로 인한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 이 중 가구의 출생과 사망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인구변동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가구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¹¹⁾

먼저, 출생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1~9차년도 기간 동안 총 출생아는 1,744명이며, 각 연도별 출생아의 수는 1차년도 238명, 2차년도 248명, 3차년도 222명, 4차년도 192명, 5차년도 193명, 6차년도 142명, 7차년도 206명, 8차년도 149명, 9차년도 154

<표 3-6> 연도별 출생자의 특성(통합표본)

(단위: 명, %)

| | 전체 | 남성 | 여성 | 남성 비율 | 여성 비율 |
|---------|-------|-----|-----|--------|--------|
| 1차('09) | 238 | 131 | 107 | (55.0) | (45.0) |
| 2차('10) | 248 | 129 | 119 | (52.0) | (48.0) |
| 3차('11) | 222 | 119 | 103 | (53.6) | (46.4) |
| 4차('12) | 192 | 106 | 86 | (55.2) | (44.8) |
| 5차('13) | 193 | 107 | 86 | (55.4) | (44.6) |
| 6차('14) | 142 | 65 | 77 | (45.8) | (54.2) |
| 7차('15) | 206 | 113 | 93 | (54.9) | (45.1) |
| 8차('16) | 149 | 74 | 75 | (49.7) | (50.3) |
| 9차('17) | 154 | 77 | 77 | (50.0) | (50.0) |
| | 1,744 | 921 | 823 | 52.8 | 47.2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대비 비중임.

11) 이 절의 분석에서도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KLIPS에서 부여되는 개인 단위의 가중치는 15세 이상의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1~8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출생하는 가구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가중치가 부여될 수 없으며, 사망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개인조사에서 당연히 누락되므로 역시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없다.

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9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사망한 표본에 대한 특성을 살펴 보았다. 총 사망자는 628명으로 이 중에서 2차년도 사망자가 96명, 3차년도 87명, 4차년도 82명, 5차년도 90명, 6차년도 51명, 7차년도 82명, 8차년도 73명, 9차년도 67명으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표 3-7〉 연도별 사망자의 특성(통합표본)

(단위: 명, %)

| | | 전체 | 2차 (‘10) | 3차 (‘11) | 4차 (‘12) | 5차 (‘13) | 6차 (‘14) | 7차 (‘15) | 8차 (‘16) | 9차 (‘17) |
|----------------|--------|---------------|--------------|--------------|--------------|--------------|--------------|--------------|--------------|--------------|
| 전체 | | 628 | 96 | 87 | 82 | 90 | 51 | 82 | 73 | 67 |
| 성별 | 남성 | 359 (57.2) | 61 (63.5) | 42 (48.3) | 47 (57.3) | 58 (64.4) | 30 (58.8) | 47 (57.3) | 39 (53.4) | 35 (52.2) |
| | 여성 | 269 (42.8) | 35 (36.5) | 45 (51.7) | 35 (42.7) | 32 (35.6) | 21 (41.2) | 35 (42.7) | 34 (46.6) | 32 (47.8) |
| 사망 당시 연령 | 50세 미만 | 47 (7.5) | 9 (9.4) | 7 (8.1) | 7 (8.5) | 8 (8.9) | 6 (11.8) | 5 (6.1) | 0 (0.0) | 5 (7.5) |
| | 50~59세 | 44 (7.0) | 7 (7.3) | 7 (8.1) | 5 (6.1) | 5 (5.6) | 1 (2.0) | 8 (9.8) | 7 (9.6) | 4 (6.0) |
| | 60~69세 | 88 (14.0) | 16 (16.7) | 10 (11.5) | 12 (14.6) | 20 (22.2) | 9 (17.7) | 5 (6.1) | 8 (11.0) | 8 (11.9) |
| | 70~79세 | 192 (30.6) | 30 (31.3) | 28 (32.2) | 21 (25.6) | 27 (30.0) | 18 (35.3) | 31 (37.8) | 19 (26.0) | 18 (26.9) |
| | 80세 이상 | 257 (40.9) | 34 (35.4) | 35 (40.2) | 37 (45.1) | 30 (33.3) | 17 (33.3) | 33 (40.2) | 39 (53.4) | 32 (47.8) |
| 평균연령 | | 74.4 | 72.5 | 74.5 | 74.9 | 72.7 | 71.5 | 76.0 | 78.5 | 74.9 |

각 연도별 사망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먼저 1차년도 기준 성별로는 전체 사망자 중에서 남성이 57.2%(359명)로 여성 42.8%(269명)에 비해 14.4%포인트 정도 높다. 9차년도를 기준으로 사망 당시의 연령을 살펴보면, 사망 당시 50세 미만이었었던 가구원의 비중은 7.5%이며, 50~59세는 6%, 60~69세는 11.9%, 70~79세는 26.9%, 80세 이상은 47.8%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2차년도 사망자는 72.5세였는데, 이후 증감을 되풀이하며 9차년도에는 74.9세로 나타

났다. 표본 수가 많지 않아 사망자의 연령이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3-8>을 통해 9차년도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노환과 질병이 46.3%로 동일한 비중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 원인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사고가 4.5%이고 기타가 3%로 조사되었다.

<표 3-8> 연도별 사망자의 사망 원인(통합표본)

(단위 : %)

| | 노환 | 질병 | 사고 | 기타 |
|---------|------|------|------|-----|
| 2차('10) | 45.8 | 44.8 | 9.4 | 0.0 |
| 3차('11) | 44.8 | 40.2 | 13.8 | 1.2 |
| 4차('12) | 47.6 | 42.7 | 8.5 | 1.2 |
| 5차('13) | 35.6 | 53.3 | 8.9 | 2.2 |
| 6차('14) | 37.3 | 52.9 | 9.8 | 0.0 |
| 7차('15) | 40.2 | 51.2 | 7.3 | 1.2 |
| 8차('16) | 56.2 | 38.4 | 4.1 | 1.4 |
| 9차('17) | 46.3 | 46.3 | 4.5 | 3.0 |

제 4 장

가계경제

KLIPS에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통합표본 9차년도에서도 지난 조사에 이어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절 가구소득 부분에서는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 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지출을 생활비와 저축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가구의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가구의 자산을 크게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부채의 특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참고로 설문 구조 및 항목에 대한 설명은 98표본의 조사 차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당하는 통합표본의 조사 차수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는 통합표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2009년 통합표본 1차년도 구축함).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기본적으로 가구 가중치를 사용한 것이며, 예외적으로 분석 내용의 특성상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를 밝혔다. 또한 1~9차년도의 연간 총소득 및 월평균 생활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제시하였다.

제1절 가구소득

KLIPS에서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 소득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그중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 소득은 세부 항목별로 조사되었다. 각 영역별 가구소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소득은 가구원이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을 의미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도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팔지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소득은 가구원이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을 수급한 액수의 총액을 의미한다. 이전소득은 가구원이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특별히 9차년도 조사부터는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보다 세분화하여, 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의 도움,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그 외 친척·친지 보조금으로 나누어 물어보고 있다. 또한 13차년도(통합표본 2차년도) 조사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수급 여부를 묻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19차년도(통합표본 8차년도) 조사부터는 2015년에 추가된 제도인 자녀장려금의 수급 여부도 함께 조사하였으며, 모두 이전소득 총액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은 보험금 지급이나 퇴직금, 복권 탄 돈과 같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소득의 총액을 의미한다. 기타 소득 또한 9차년

도 조사에서는 그 항목이 대폭 늘어났으므로, 연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¹²⁾

한편, KLIPS에서 가구의 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20차년도(통합표본 9차년도)의 경우 2016년 한 해] 얻은 소득으로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며 연간 총액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다만, 1차년도의 경우 조사일 이전 1년간의 소득으로 1997년 4월부터 1998년 11월에 걸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1. 가구의 총소득

가구의 총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 소득 등 모든 항목별 가구소득을 합한 액수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와의 비교 가능성을 생각하여 기타 소득 중에서 보험금과 기타 소득 항목은 제외하였다. 또한 당해 연도에 분가한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 1년간의 온전한 소득이 아니라 분가한 이후의 소득이기 때문에 낮게 추정된 소득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의 소득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¹³⁾

<표 4-1>을 통해 연도별로 가구의 연간 평균 총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를 거듭할수록 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차년도의 명목 연간 총소득은 5,039만 원(월평균 42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4만 원 정도 늘어났으며, 이를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환산¹⁴⁾하면 8차년도에 비해 205만 원 정도 증가한

12) 8차년도에 조사된 기타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금-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받은 보험금(손해보험으로 받은 금액 포함), (2) 보험금-저축성 보험의 만기지급금 및 중도해약으로 받은 금액, (3) 보험금-종신보험, (4) 퇴직금, (5) 증여·상속, (6) 축의금·조의금, (7) 복권이나 경마, 오락 경기 등의 당첨 상금·상으로 받은 상금, (8) 교통사고나 폭설·폭우 등 재해로 인해 받은 보상금, (9) 기타.

13) 성재민(2006),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득자료 특성』, 『노동리뷰』 2006년 2월호(통권 14호) 참조.

14) 실질소득 = (명목소득/당해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 100으로 산출하였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조사』의 물가지수(2015년 = 100 기준)를 사용하였다.

(2008년 86.1, 2009년 88.5, 2010년 91.1, 2011년 94.7, 2012년 96.8, 2013년 98.0, 2014년 99.3, 2015년 100, 2016년 100.97)

4,990만 원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던 1차년도는 4,085만 원이며, 2차년도에 4,345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3차년도에는 4,310만 원으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4차년도부터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4-1〉 연간 가구의 총소득(통합표본)

(단위: 만 원)

| | 1차 (’09) | 2차 (’10) | 3차 (’11) | 4차 (’12) | 5차 (’13) | 6차 (’14) | 7차 (’15) | 8차 (’16) | 9차 (’17) |
|------|------------------|------------------|------------------|------------------|------------------|------------------|------------------|------------------|------------------|
| 명목소득 | 3,516 (0.015) | 3,843 (0.015) | 3,924 (0.013) | 4,123 (0.012) | 4,342 (0.013) | 4,527 (0.013) | 4,657 (0.013) | 4,785 (0.014) | 5,039 (0.015) |
| 실질소득 | 4,085 | 4,345 | 4,310 | 4,353 | 4,487 | 4,617 | 4,690 | 4,785 | 4,990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임.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은 <표 4-2>에서 보듯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 85.3%이며, 연평균 근로소득은 4,870만 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부동산소득과 기타 소득이 각각 연평균 3,103만 원, 2,067만 원으로 비교적 가계소득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평균 소득액이 가장 낮은 소득원천은 금융소득으로 연간 평균 235만 원에 불과했다. 이전소득도 연평균 511만 원으로 높지 않다. 다만, 소득액 기준이 아닌 소득 유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절반 이상의 가구(53.9%)가 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해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그림 4-1]은 9차년도 가구의 전체 가구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을 나타내며, 비중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먼저, 전체 가구총소득 및 전체 소득원천별 가구소득(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 소득)을 구한다.

전체 가구총소득은 개별 가구의 가구총소득을 모두 합한 것이다.

$$\text{전체 가구총소득} = \sum_{i=1}^N \text{가구총소득}_i$$

여기서, 가구총소득_i는 *i*번째 가구의 가구총소득을 의미하고, *i* = 1, ..., *N*(가구의 수)이다.

전체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을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을 예로 설명하면, 전체 근로소득은 개별 가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text{전체 근로소득} = \sum_{i=1}^N \text{근로소득}_i$$

여기서, 근로소득_i는 *i*번째 가구의 근로소득이다.

최종 구하고자 하는 근로소득 비중은 다음 식과 같으며, 전체 가구총소득 대비 전체 근로소득 비중을 계산하면 된다.

$$\text{근로소득 비중} = \frac{\text{전체 근로소득}}{\text{전체 가구총소득}} \times 100$$

나머지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의 비중도 근로소득 비중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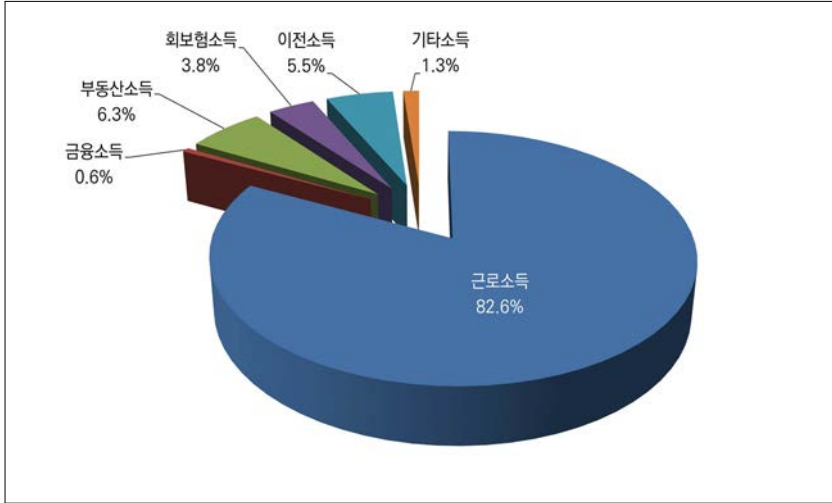
역시 근로소득액이 가구총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6%로 가장 높다. 부동산소득액은 가구총소득액에서 6.3%를 차지하여 둘째로 높았다.

〈표 4-2〉 9차(2017)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통합표본)

(단위: 만 원, %)

| | 연평균 소득 | 해당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 |
|--------|--------|----------------------|
| 근로소득 | 4,870 | 85.3 |
| 금융소득 | 235 | 12.8 |
| 부동산소득 | 3,103 | 10.1 |
| 사회보험소득 | 894 | 21.1 |
| 이전소득 | 511 | 53.9 |
| 기타 소득 | 2,067 | 3.2 |

[그림 4-1] 9차(2017) 가구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통합표본)



그다음으로 이전소득액은 가구총소득액에서 5.5%를 차지하여 세 번째로 높았다. 절반 이상의 가구가 이전소득이 있으나 총소득액에서 기여하는 정도는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금융소득은 가구총소득 중 0.6%로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가구지출

이 절에서는 20차년도(통합표본 9차년도) 조사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지출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KLIPS에서 가구지출은 작년 한 해[20차년도(통합표본 9차년도)의 경우 2016년] 동안 소비한 생활비와 저축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생활비는 월평균 교육비·주거비·식품비·보건의료비·교통통신비·각종 공과금 등 생활하는 데 드는 돈을 의미하며, 저축이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은 제외된다. 동시에 혼수 장만, 교통사고 보상금 등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도 생활비에서 제외된다. 4차년도 조사부터는 1~3차년도 조사와는 달리 월평균 생활비 외에 세부항목별 생

활비를 묻고 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외식비,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문화비(TV·케이블 TV·위성 TV 시청료 또는 취미, 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용돈, 피복비, 현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기타 생활용품비 등이다. 이 중 용돈 항목은 5차년도 조사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고, 6차년도 조사에는 피복비 항목, 그리고 7차년도 조사에는 현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항목이 추가되었다. 9차년도 조사부터는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자녀 용돈, 그 외 가구원의 용돈으로 용돈 항목을 세분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11차년도 조사부터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로 각각 분리하여 조사하고 있다.

저축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일반저축, 개인연금, 적금, 보험, 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저축 역시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4차년도 조사부터 세부항목별 저축액을 묻고 있는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예·적금, 개인연금,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저축성보험(재테크보험, 교육보험 등), 계, 기타로 구성되었다. 이후 9차년도 조사부터는 종신보험 항목을, 10차년도 조사부터는 적립식 펀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다.

1. 생활비

<표 4-3>은 통합표본 1~9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9차년도의 월평균 생활비는 전년도에 비해 8만 원 정도 상승한 24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생활비의 증가폭은 3차년도가 전년 대비 11만 원 증가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비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50만 원 미만의 소비계층은 1차년도 9.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9차년도 조사에서는 3.1%까지 감소한 반면, 월 25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계층은 1차년도에는 29.6%

〈표 4-3〉 연도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통합표본)

(단위: 가구, %)

| | 1차 (‘09) | 2차 (‘10) | 3차 (‘11) | 4차 (‘12) | 5차 (‘13) | 6차 (‘14) | 7차 (‘15) | 8차 (‘16) | 9차 (‘17) |
|------------------------|--------------|--------------|--------------|--------------|--------------|--------------|--------------|--------------|--------------|
| 전체 | 6,501 | 6,333 | 6,304 | 6,354 | 6,377 | 6,471 | 6,562 | 6,614 | 6,665 |
| 50만 원 미만 | 9.4 | 6.5 | 6.7 | 5.6 | 5.7 | 4.9 | 4.1 | 3.7 | 3.1 |
| 50만~100만 원 미만 | 14.3 | 13.5 | 13.0 | 11.8 | 11.4 | 11.3 | 11.1 | 10.7 | 10.6 |
| 100만~150만 원 미만 | 16.0 | 16.2 | 15.0 | 14.9 | 14.3 | 13.3 | 13.4 | 14.0 | 13.5 |
| 150만~200만 원 미만 | 15.9 | 16.1 | 13.9 | 14.1 | 13.7 | 14.9 | 14.4 | 13.3 | 12.7 |
| 200만~250만 원 미만 | 14.8 | 14.9 | 15.2 | 14.9 | 15.4 | 15.2 | 14.5 | 14.6 | 14.8 |
| 250만~300만 원 미만 | 9.8 | 10.2 | 10.3 | 10.7 | 10.1 | 10.0 | 11.2 | 11.2 | 10.4 |
| 300만 원 이상 | 19.8 | 22.6 | 26.0 | 28.1 | 29.4 | 30.5 | 31.3 | 32.5 | 35.1 |
| 월평균 생활비(만 원) (변동계수) | 194 0.010 | 204 0.010 | 215 0.010 | 223 0.010 | 227 0.010 | 231 0.010 | 234 0.010 | 239 0.010 | 247 0.010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임.

였으나 차수가 지날수록 꾸준히 증가하여 9차년도에는 4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¹⁵⁾을 살펴보면(표 4-4 참조), 월평균 식비는 43만 원으로, 식비가 전체 생활비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17.3%)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교육비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월평균 공교육비가 11만 원, 사교육비는 월평균 15만 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월평균 용돈의 경우에는 같이 사는 부모님은 1만 원, 자녀는 12만 원, 그 외 가구원은 23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의 액수가 적은 이유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필품 구입비는 월평균 5만 원으로 전체 생활비의 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는 13만 원을 지출(전체 생활비의 5.3%)하여 꽤

15) 한국노동패널 2차년도 및 4~20차년도(통합표본 1~9차년도) 조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평균 생활비 항목 외에도 각각의 생활비 항목별 액수를 함께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전체 생활비’는 항목별 생활비의 합계를 기준(100%)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것이다.

〈표 4-4〉 9차(2017)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통합표본)

(단위: 만 원, %)

| | 항목별 월평균 생활비 | 생활비에서의 비중 |
|--------------|-------------|-----------|
| 식비 | 43 | 17.3 |
| 외식비 | 12 | 5.0 |
| 공교육비 | 11 | 4.4 |
| 사교육비 | 15 | 6.2 |
| 차량유지비 | 21 | 8.5 |
| 주거비 | 21 | 8.7 |
| 경조사비 | 7 | 2.9 |
| 보건의료비 | 6 | 2.5 |
| 문화비 | 10 | 4.2 |
| 내구재 | 3 | 1.3 |
| 통신비 | 13 | 5.3 |
|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 1 | 0.2 |
| 자녀 용돈 | 12 | 4.8 |
| 그 외 가구원의 용돈 | 23 | 9.4 |
| 피복비 | 8 | 3.2 |
| 현금 및 기부금 | 4 | 1.5 |
| 국민연금 | 11 | 4.5 |
| 의료보험 | 11 | 4.5 |
| 대중교통비 | 6 | 2.4 |
| 생필품구입비 | 5 | 2.0 |
| 기 타 | 2 | 1.0 |
| 전체 생활비 | 247 | 100.0 |

높은 편에 속한다.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은 각각 11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저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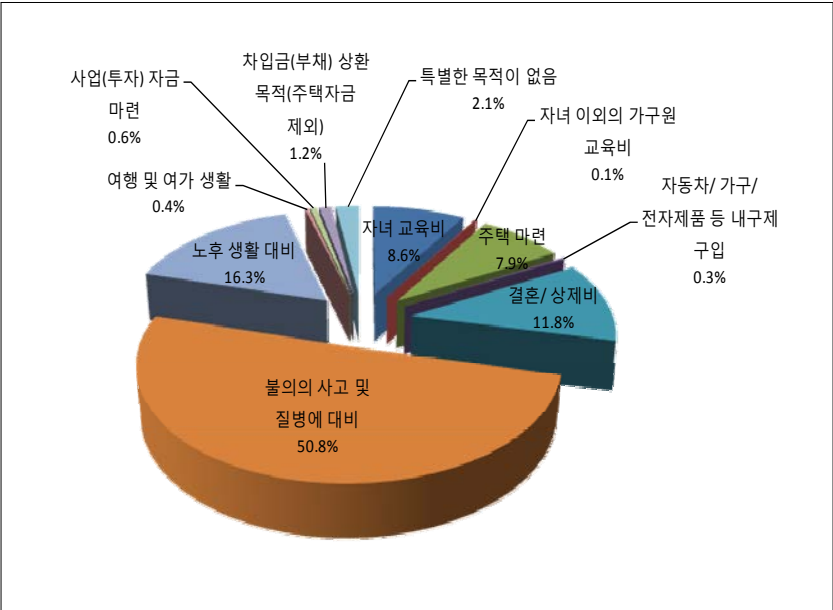
9차년도 조사가구 중에서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71.4%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70만 8,0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5 참조). 1~9차년도 기간 동안 저축을 한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55.1%로 다소 낮은 비중을 보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6차년도에는 71.9%로 나타났다. 이후 증감을 되풀이 하다가 9차년도에는 71.4%로 8차년도(72.4%)에 비해 다시 소폭 감소하였다. 월평균 저축액의 변화는 1차년도 44만 4,000원에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차년도에는 70만 8,000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4-5〉 연도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통합표본)
(단위: 가구, %, 만 원)

| | 1차 (’09) | 2차 (’10) | 3차 (’11) | 4차 (’12) | 5차 (’13) | 6차 (’14) | 7차 (’15) | 8차 (’16) | 9차 (’17) |
|---------|-------------|-------------|-------------|-------------|-------------|-------------|-------------|-------------|-------------|
| 전체 | 6,721 | 6,398 | 6,388 | 6,434 | 6,457 | 6,493 | 6,577 | 6,634 | 6,685 |
| 저축 안 함 | 44.9 | 39.4 | 37.1 | 35.2 | 32.0 | 28.1 | 29.1 | 27.6 | 28.6 |
| 저축함 | 55.1 | 60.7 | 62.9 | 64.8 | 68.0 | 71.9 | 70.9 | 72.4 | 71.4 |
| 월평균 저축액 | 44.4 | 49.2 | 52.3 | 56.9 | 63.0 | 65.9 | 66.9 | 70.4 | 70.8 |

〔그림 4-2〕 9차(2017)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통합표본)



다음으로 9차년도에 저축을 한 가구의 저축 목적을 살펴보면 [그림 4-2]와 같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로 전체 응답가구 중 50.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노후 생활 대비’와 ‘결혼/상제비’가 각각 16.3%와 1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세 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4/5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교육비’는 8.6%,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는 가구의 비중은 7.9%로 나타났다.

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이 항에서는 따로 사는 가족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KLIPS는 4차년도 이후 따로 사는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에 관해 조사해 왔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존재 여부, 부모님과 왕래 빈도, 경제적 교류 여부,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 정도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따로 사는 부모님과 교류에 대해서만 파악이 가능할 뿐, 따로 사는 자녀들과의 교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9차년도 조사부터는 따로 살고 있는 자녀들과의 교류에 관한 설문을 추가하여, 가구의 사적 이전에 관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조사하였다. 또한, 현금과 현물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하던 8차년도 이전 조사와는 달리 9차년도부터는 현금 교류액과 현물 교류액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가 있었는지는 <표 4-6>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가구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26.1%였으며,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던 경우는 2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77.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대로 가구주의 부모님과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도움은 각각 82.7%, 86.2%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도움은 35.2%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교류는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로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6〉 9차(2017)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통합표본)

(단위: 가구, %)

| | 가구주의 부모님 | |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 | | 따로 사는 자녀 | |
|-----|----------|--------|--------------|--------|----------|-------|
| | 받은 도움 | 드리는 도움 | 받은 도움 | 드리는 도움 | 받은 도움 | 주는 도움 |
| 전 체 | 3,128 | | 2,629 | | 2,732 | |
| 없었음 | 73.9 | 17.3 | 72.8 | 13.8 | 22.2 | 64.9 |
| 있었음 | 26.1 | 82.7 | 27.3 | 86.2 | 77.9 | 35.2 |

그렇지만 경제적 교류 액수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 즉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드린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연간 평균 312만 7,000원,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165만 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금액은 643만 8,000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렸던 금액은 각각 162만 6,000원, 126만 5,000원에 그쳤으며,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금액 또한 319만 8,000원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 이는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로 이전되는 소득의 경우 적은 액수를 정기적으로 보내는 형태인 데 반해, 부모 세대의 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은 결혼자금, 학자금과 같이 목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교류액을 보면 대체적으로 현물보다는 현금을 통한 교류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액이 가구주 배우

〈표 4-7〉 9차(2017)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액수(통합표본)

(단위: 만 원)

| | 가구주의 부모님 | |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 | | 따로 사는 자녀 | |
|-------------|----------|--------|--------------|--------|----------|--------|
| | 받은 금액 | 드렸던 금액 | 받은 금액 | 드렸던 금액 | 받은 금액 | 주었던 금액 |
| 지난해 연간 총 금액 | 391.8 | 192.5 | 225.0 | 155.0 | 372.2 | 707.8 |
| 현금 | 312.7 | 162.6 | 165.0 | 126.5 | 319.8 | 643.8 |
| 현물 | 79.1 | 29.9 | 60.0 | 28.5 | 52.5 | 64.0 |

자의 부모님과과의 경제적 교류액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절 주거 형태 및 비용

이 절에서는 통합표본 9차년도 패널가구의 주거 형태와 비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는 매년 주거와 관련해 입주형태 및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및 전·월세금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으며, 11차년도 조사부터는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 오게 된 동기를 묻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입주형태는 자가·전세·월세·기타로 구분되며,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타로 구분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고,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200평(660m²)을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 또한 다세대주택이란 동당 건축 연면적이 200평(660m²)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상가주택은 1·2층이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고층의 병용주택(빌딩)을 뜻한다.

자기 집인 경우, 단독주택은 대지면적과 연건평, 주거지의 시가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인 경우 주택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해당 가구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기재 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주거면적의 평수를 기재하게 하였고 전세금(임대보증금)과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의 경우 월세금을 기재하게 한 것은 주택의 소유형태가 전세일지라도 전세금 외에 월마다 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만약 전세금 이외에 더 내는 돈이 월 10만 원 이상이라면 입주형태가 월세가 아닌지 재차 확인하게 하였다. 월세의 경우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평수와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1. 입주형태 및 주거비용

먼저 <표 4-8>을 통해 9차년도 입주형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가에

〈표 4-8〉 연도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통합표본)

(단위: 가구, %)

| | 1차 (‘09) | 2차 (‘10) | 3차 (‘11) | 4차 (‘12) | 5차 (‘13) | 6차 (‘14) | 7차 (‘15) | 8차 (‘16) | 9차 (‘17) |
|----|-------------|-------------|-------------|-------------|-------------|-------------|-------------|-------------|-------------|
| 전체 | 6,721 | 6,397 | 6,387 | 6,431 | 6,456 | 6,489 | 6,577 | 6,631 | 6,685 |
| 자가 | 57.6 | 57.6 | 57.7 | 57.9 | 57.8 | 58.0 | 58.5 | 59.6 | 59.6 |
| 전세 | 23.0 | 23.5 | 20.9 | 20.0 | 19.8 | 19.9 | 19.3 | 17.6 | 17.2 |
| 월세 | 13.9 | 13.1 | 15.1 | 15.6 | 15.8 | 15.6 | 16.1 | 16.9 | 17.5 |
| 기타 | 5.5 | 5.8 | 6.3 | 6.5 | 6.6 | 6.5 | 6.2 | 5.9 | 5.7 |

주: ‘전세’는 가구의 입주형태에 대해 응답한 가구 수를 의미함(무응답 가구 제외).

거주하는 경우가 59.6%로 가장 높고, 이어서 월세 17.5%, 전세 17.2%로 나타났다.

1~9차년도 입주형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자가 소유자의 비중이 6차년도까지는 58% 정도를 유지하다가 7차년도 58.5%, 8차년도 59.6% 그리고 9차년도 59.6%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월세의 비중은 1차년도 36.9%에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며 9차년도에는 34.7%로 나타났다.

[그림 4-3]을 통해 거주지별 자가의 평균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지면적의 경우 도 지역이 서울의 2.5배이고 광역시의 1.9배로 높게 나타났으나, 연건평과 시가는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정원이나 마당, 차고 같은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실제 주거 공간은 가능한 한 넓게 확보하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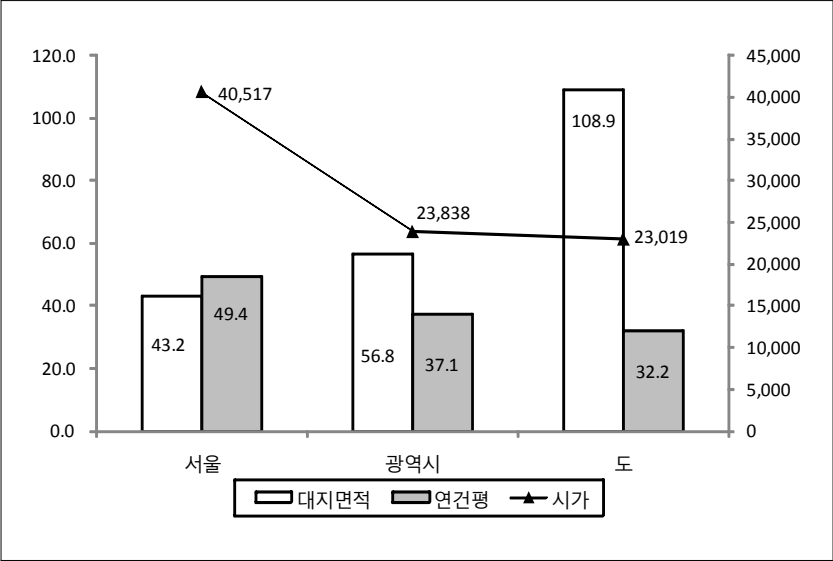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도 지역의 대지면적은 평균 108.9평인 데 비해서 광역시는 56.8평, 서울은 43.2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인 연건평은 서울이 가장 넓은 49.4평인 데 비해서 광역시와 도 지역은 각각 37.1평, 32.2평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의 시가를 비교해 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4억 517만 원인 데 비해 광역시는 서울의 59% 정도에 해당하는 2억 3,838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도 지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2억 3,019만 원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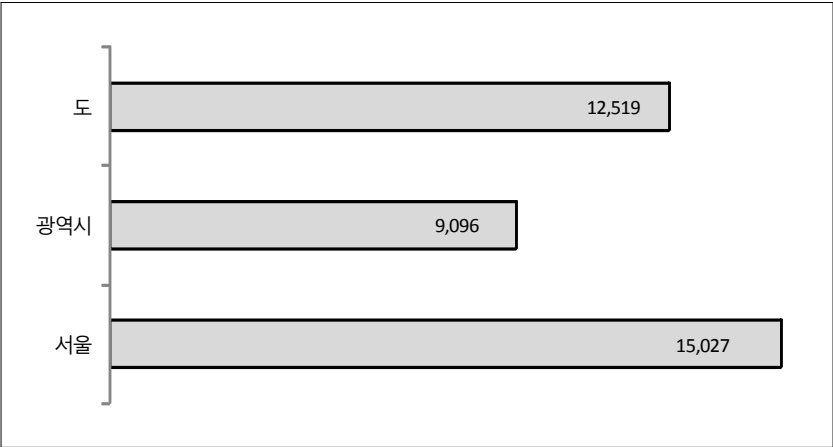
으로 나타냈다.

다음으로 [그림 4-4] 및 [그림 4-5]는 거주지가 전세 혹은 월세인 경우 전·월세금을 비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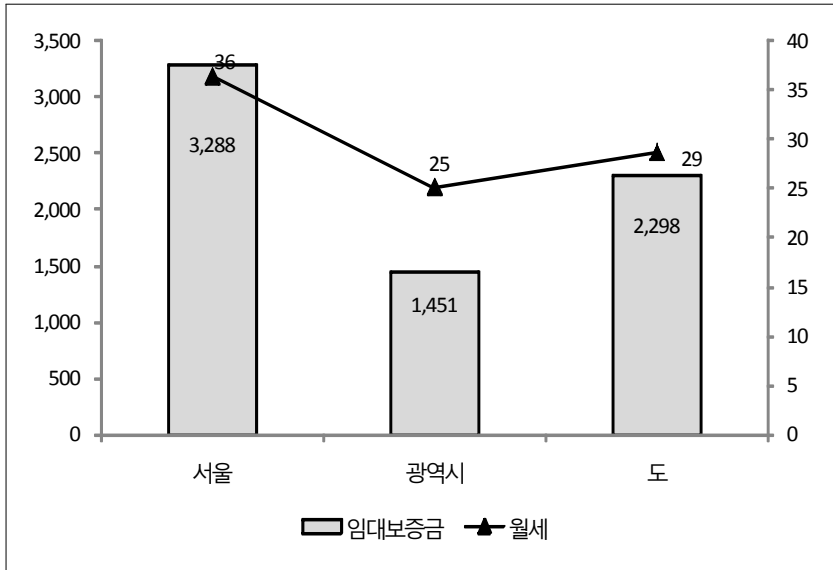
[그림 4-3] 9차(2017)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통합표본)
(단위: 평, 만 원)



[그림 4-4] 9차(2017) 거주지별 전세 거주자 임대보증금(통합표본)
(단위: 만 원)



[그림 4-5] 9차(2017) 거주지별 월세 거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세(통합표본)
(단위: 만 원)



서울에 거주하는 전세 거주 응답자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 5,027만 원으로 광역시(9,096만 원)보다 65% 정도 높고, 도 지역(1억 2,519만 원)보다도 20%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그림 4-4 참조). 월세 거주자의 거주지별 보증금/월세를 살펴보면 월세는 서울이 월 36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도와 광역시가 각각 29만 원과 25만 원으로 두 지역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월세계약 임대보증금은 평균 3,288만 원으로 광역시의 약 2.3배, 도의 약 1.4배로 높았다(그림 4-5 참조).

2. 주택의 종류

<표 4-9>는 연도별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9차년도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52.2%)이며, 다음으로는 단독주택이 21%를, 다세대주택이 12.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연립주택 비중은 9.5%이며 상가주택은 3.2%를 차지하였다.

〈표 4-9〉 연도별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통합표본)

(단위: 가구, %)

| | 1차 (‘09) | 2차 (‘10) | 3차 (‘11) | 4차 (‘12) | 5차 (‘13) | 6차 (‘14) | 7차 (‘15) | 8차 (‘16) | 9차 (‘17) |
|-------|-------------|-------------|-------------|-------------|-------------|-------------|-------------|-------------|-------------|
| 전 체 | 6,721 | 6,398 | 6,388 | 6,434 | 6,457 | 6,492 | 6,574 | 6,634 | 6,685 |
| 단독주택 | 29.7 | 27.3 | 27.0 | 25.7 | 24.7 | 23.5 | 22.3 | 21.9 | 21.0 |
| 아파트 | 45.7 | 48.3 | 48.6 | 49.1 | 49.9 | 50.6 | 51.5 | 51.4 | 52.2 |
| 연립주택 | 10.1 | 10.2 | 10.2 | 10.3 | 10.0 | 9.5 | 9.3 | 9.7 | 9.5 |
| 다세대주택 | 10.0 | 9.6 | 9.6 | 10.2 | 10.7 | 11.1 | 11.9 | 12.1 | 12.4 |
| 상가주택 | 3.5 | 3.2 | 3.4 | 3.3 | 3.2 | 3.2 | 3.0 | 3.3 | 3.2 |
| 기타 | 1.1 | 1.5 | 1.2 | 1.4 | 1.5 | 2.1 | 2.0 | 1.7 | 1.6 |

주: ‘전체’는 가구의 주택 종류에 대해 응답한 가구 수를 의미함(무응답 가구 제외).

한편, 이 기간 동안 주택 종류별 추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파트 거주자가 1차년도 45.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차년도에 이르러서는 6.5%포인트 증가한 52.2%인 반면, 단독주택의 거주자는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주택총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단독주택 비중의 감소(2000년 37.1%→2017년 23.1%), 아파트의 비중 증가(2000년 47.7%→2017년 60.6%)라는 추세가 KLIPS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주거지의 선택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하게 된 동기를 묻는 문항이 있다. 이는 지역 내 혹은 지역 간 이동이 발생할 경우 그 주된 동기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며, 이사를 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살아왔다’로 응답을 받는다. <표 4-10>은 9차년도 응답가구들이 현재 거주지로 이사 온 동기를 응답 빈도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가장 주된 이사 동기 세 가지를 살펴보면, ‘내 집 마련’이 28.8%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평수를 넓히거나 줄이려고’와 ‘집값이나 전세금이 저렴해서’가 각각 11.7%, 11.2%로 나타났다.

〈표 4-10〉 9차(2017) 가구의 현재 거주지로의 이사 동기(통합표본)

| 이사 동기 | 비중(%) |
|---------------------------------|-------|
| 내 집 마련 | 28.8 |
| 평수를 넓히거나 줄이려고 | 11.7 |
| 집값이나 전세금이 저렴해서 | 11.2 |
| 현재 다니는 직장/학교의 통근 편의를 위해 | 6.5 |
| 취업/창업 | 6.5 |
| 신혼집 마련 | 6.1 |
| 보육 혹은 부모봉양 때문에 가족/친지와 가까이 살기 위해 | 5.0 |
| 환경 및 건강 때문에 | 4.9 |
| 동일직장 내 근무지 이동 | 4.8 |
| 어려서부터 살아왔다 | 3.1 |
| 인근의 편의시설 때문에(마트, 공원, 복지시설 등) | 3.0 |
| 계약만료/철거, 재개발 | 2.7 |
| 집값이 오를 것이라 여겨져서 | 2.1 |
| 자녀 교육 때문에 | 1.9 |
| 기타 | 1.6 |
| 전체 | 100.0 |

제4절 자산 및 부채

이 절에서는 통합표본 9차년도 응답가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 자산은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소득이나 지출 문항과는 달리 해당 연도의 현재를 기준(9차년도의 경우 2017년 현재)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부동산자산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KLIPS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는지(부동산 임대 여부)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지(부동산 임차

여부)의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포함된다. 패널조사에서 부채는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쓴 돈이 있는지의 여부와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여야 할 갯돈 등을 포함한다.

1. 부동산자산

먼저 부동산자산을 살펴보면, 9차년도 패널 응답가구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0%로 전년도(20.1%)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1 참조).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자산에 대한 시가 총액 분포를 살펴보면, 9차년도의 경우 1억~3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5.9%로 전년도에 이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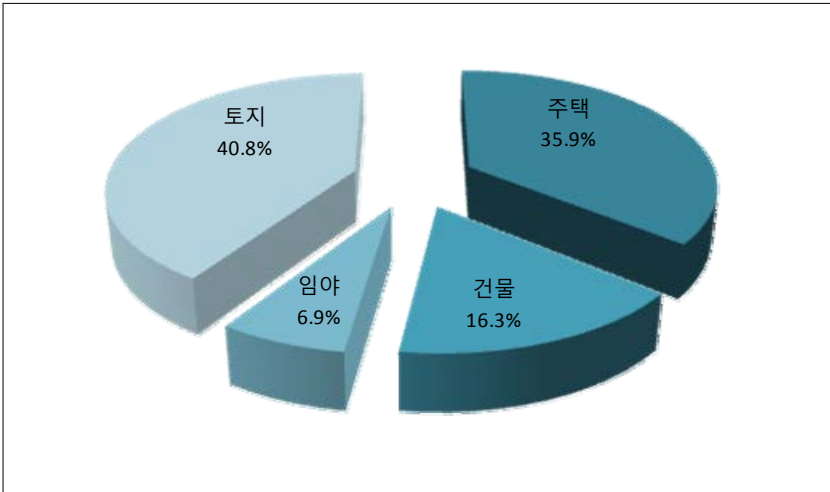
부동산 시가가 10억 원 이상인 가구는 1차년도에 6.2%였으나 2차년도에 4.4%로 1.8%포인트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여 5차년도 이후에는 평

〈표 4-11〉 연도별 부동산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통합표본)

(단위: 가구, %)

| | 1차 (‘09) | 2차 (‘10) | 3차 (‘11) | 4차 (‘12) | 5차 (‘13) | 6차 (‘14) | 7차 (‘15) | 8차 (‘16) | 9차 (‘17) |
|--------------------|-------------|-------------|-------------|-------------|-------------|-------------|-------------|-------------|-------------|
| 전체 | 6,721 | 6,398 | 6,388 | 6,434 | 6,457 | 6,493 | 6,577 | 6,634 | 6,685 |
| 부동산 소유 여부 | | | | | | | | | |
| 없음 | 77.0 | 78.3 | 78.9 | 78.0 | 79.1 | 78.8 | 80.1 | 80.0 | 80.0 |
| 있음 | 23.0 | 21.7 | 21.2 | 22.0 | 20.9 | 21.2 | 19.9 | 20.1 | 20.0 |
| 1,000만 원 미만 | 3.3 | 3.3 | 3.2 | 1.7 | 1.7 | 1.4 | 1.0 | 0.5 | 0.5 |
| 1,000만~5,000만 원 미만 | 16.2 | 15.7 | 12.5 | 15.3 | 12.0 | 12.1 | 11.3 | 11.7 | 9.4 |
| 5,000만~1억 원 미만 | 21.0 | 18.6 | 18.4 | 17.8 | 17.7 | 19.5 | 15.7 | 15.3 | 15.9 |
| 1억~3억 원 미만 | 33.4 | 35.4 | 35.8 | 34.8 | 36.8 | 36.9 | 37.1 | 37.6 | 35.9 |
| 3억~5억 원 미만 | 11.6 | 13.6 | 13.4 | 16.1 | 15.9 | 14.9 | 16.7 | 17.5 | 17.2 |
| 5억~10억 원 미만 | 8.2 | 8.9 | 11.3 | 8.5 | 9.5 | 9.7 | 12.0 | 10.8 | 13.1 |
| 10억 원 이상 | 6.2 | 4.4 | 5.4 | 5.9 | 6.3 | 5.6 | 6.0 | 6.6 | 8.0 |
| 잘 모르겠음 | 0.1 | 0.1 | - | 0.0 | - | - | 0.3 | 0.1 | - |

[그림 4-6] 9차(2017)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통합표본)



주: 이 항목은 복수설문이므로 각 %는 전체 응답 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균 6%대를 유지하였으며 8차년도에는 6.6%이고, 9차년도에는 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가가 3억~10억 원 미만인 경우는 1차년도에 19.8%이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여 7차년도에 28.7%였으며, 이후 소폭 감소한 후 9차년도에는 30.3%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차년도 조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에 대한 조사 문항은 가구당 최대 5개 종류까지 복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4-6]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토지로 전체 응답 중 40.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주택이 35.9%, 건물이 16.3%, 임야가 6.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금융자산

<표 4-12>를 통해서 9차년도에 조사된 가구의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1차년도가 58.2%로 가장 낮은 비중이며 9차년도에는 80.2%로 나타나, 금융자산의 추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4차년도를 제외하고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9차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460만 원이 증가하여 3,846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9차년도 조사에서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의 금융자산 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1,000만~5,0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5,000만 원~1억 원 미만인 가구가 12.7%, 1억 원 이상인 가구가 10%, 500만~1,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9.9%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1,000만~5,0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기준으로 이보다 금융자산이 적은 가구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금융자산이 이보다 많다고 응답한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4-12〉 연도별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통합표본)

(단위: 가구, %)

| | 1차 (‘09) | 2차 (‘10) | 3차 (‘11) | 4차 (‘12) | 5차 (‘13) | 6차 (‘14) | 7차 (‘15) | 8차 (‘16) | 9차 (‘17) |
|--------------------|-------------|-------------|-------------|-------------|-------------|-------------|-------------|-------------|-------------|
| 전체 | 6,664 | 6,375 | 6,388 | 6,377 | 6,371 | 6,381 | 6,501 | 6,557 | 6,641 |
| 없음 | 41.8 | 37.9 | 37.3 | 35.8 | 34.5 | 27.1 | 26.2 | 23.1 | 19.8 |
| 250만 원 미만 | 6.3 | 6.3 | 6.0 | 5.7 | 6.6 | 6.8 | 5.8 | 5.9 | 5.4 |
| 250만~500만 원 미만 | 4.1 | 4.7 | 4.6 | 4.1 | 4.5 | 4.8 | 4.1 | 4.5 | 4.5 |
| 500만~1,000만 원 미만 | 10.0 | 10.1 | 10.0 | 9.3 | 10.2 | 10.4 | 10.2 | 10.3 | 9.9 |
| 1,000만~5,000만 원 미만 | 27.5 | 29.8 | 30.2 | 32.9 | 31.5 | 34.4 | 35.9 | 36.1 | 37.8 |
| 5,000만~1억 원 미만 | 6.0 | 6.5 | 6.7 | 7.1 | 7.3 | 9.9 | 10.4 | 11.4 | 12.7 |
| 1억 원 이상 | 4.4 | 4.6 | 5.3 | 5.1 | 5.5 | 6.6 | 7.4 | 8.7 | 10.0 |
| 평균(만 원) | 1,933 | 2,011 | 2,108 | 2,097 | 2,249 | 2,885 | 3,074 | 3,386 | 3,846 |

주: 금융자산 시가 총액의 평균은 금융자산이 0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임.

다음으로 [그림 4-7]을 통해서 금융자산의 종류별 평균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의 절대적 비중 및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주식/채권/신탁과 같은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 비중은 3차년도까지 증가하다가 4차년도에 감소한 다음,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9차년도에는 전년 대비 768만 원 상승한 6,121만 원이었다. 한편, 은행예금은 1차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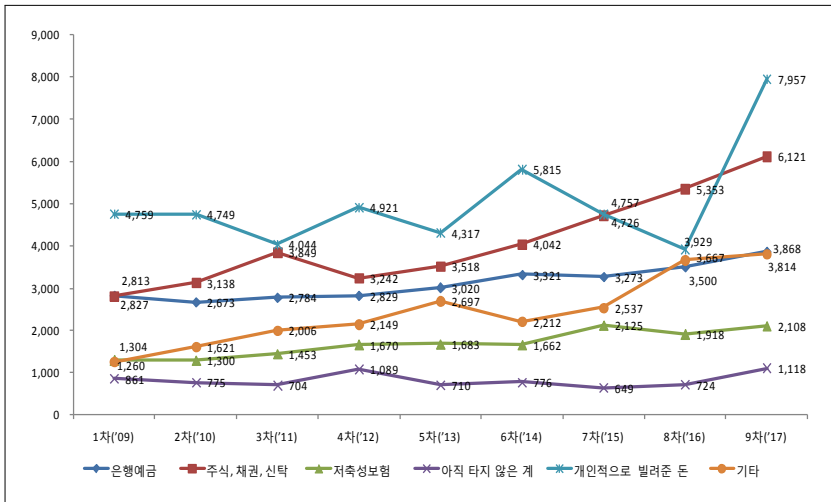
도의 2,827만 원에서 2차년도에 약간 감소한 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9차년도에는 3,868만 원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과 은행예금의 차이를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은행예금이 2,827만 원으로 주식/채권/신탁(2,813만 원)보다 14만 원 정도 많았다. 그러나 2차년도부터 주식/채권/신탁이 은행예금을 추월하여, 이후 그 격차가 꾸준히 벌어지면서 3차년도에 가장 크며, 다시 4차년도에 격차가 작아진 이후 꾸준히 벌어지면서 9차년도에 2,253만 원으로 가장 커졌다.

저축성보험금은 1차년도 1,304만 원에서 9차년도 2,108만 원으로 나타났으나 뚜렷한 추세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계의 경우에는 그 액수도 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변동폭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7] 연도별 금융자산의 종류별 평균금액 추이(통합표본)

(단위: 만 원)



주: 해당 자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 후 계산함.

3. 가구의 부채

9차년도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43%를 차지하여 1차년도 조사(48%) 당시보다 5%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3)

참조).

반면 평균 부채 잔액의 추세를 살펴보면, 1차년도 3,389만 원에서 9차년도에는 4,914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1차년도에 52%였다가 2차년도에는 4%포인트 증가한 56%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6차년도부터 다시 조금씩 증가하여 9차년도에는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57%로 조사되었다. 부채가 있는 경우 9차년도의 부채 잔액은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16.1%, 1,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3.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차년도에는 16.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연도별 부채 잔액 분포(통합표본)

(단위: 가구, %)

| | 1차 (’09) | 2차 (’10) | 3차 (’11) | 4차 (’12) | 5차 (’13) | 6차 (’14) | 7차 (’15) | 8차 (’16) | 9차 (’17) |
|--------------------|-------------|-------------|-------------|-------------|-------------|-------------|-------------|-------------|-------------|
| 전체 | 6,680 | 6,394 | 6,365 | 6,410 | 6,422 | 6,461 | 6,555 | 6,612 | 6,665 |
| 부채 없음 | 52.0 | 56.0 | 55.8 | 55.0 | 54.7 | 55.1 | 55.2 | 56.2 | 57.0 |
| 500만 원 미만 | 4.5 | 2.3 | 3.0 | 2.6 | 2.3 | 2.1 | 2.1 | 1.8 | 1.7 |
| 500만~1,000만 원 미만 | 3.7 | 3.6 | 3.5 | 3.0 | 2.8 | 2.6 | 2.2 | 2.2 | 2.1 |
| 1,000만~5,000만 원 미만 | 20.7 | 18.6 | 18.2 | 18.3 | 17.7 | 17.5 | 16.3 | 15.1 | 13.4 |
| 5,000만~1억 원 미만 | 9.0 | 8.6 | 8.2 | 8.8 | 9.3 | 9.2 | 9.8 | 9.6 | 9.8 |
| 1억 원 이상 | 10.2 | 10.8 | 11.4 | 12.3 | 13.3 | 13.6 | 14.4 | 15.1 | 16.1 |
| 평균(만 원) | 3,389 | 3,494 | 3,644 | 4,141 | 4,293 | 4,374 | 4,506 | 4,701 | 4,914 |

주: 가구의 부채 잔액 평균은 0을 포함한 평균값임.

제5절 자녀 교육비

KLIPS는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KLIPS 조사가 처음 실시된 1차년도(1998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하는

종류와 이용 횟수, 이용 시간, 그리고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월평균 수업료 등의 항목을 최대 다섯 가지까지 조사하였으며, 자녀의 사교육과 탁아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정도를 ‘매우 부담된다’에서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 2차년도(1999년)에는 조사가 되지 않았고, 3차년도(2000년) 이후부터는 조사 대상이 재수생 이하 자녀로, 그리고 7차년도(2004년) 조사부터는 대학(원)생 자녀까지 확대하였다.

한편, 7차년도 조사에서 신설된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 항목은 학교 또는 회사 등을 통해 제공받는 장학금을 제외하고 실제 가구가 부담한 정규학교 등록금과 그 외 지출비용(학원비, 교재비, 생활비, 기타 교육 관련 잡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11차년도 조사부터는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등록금 외 지출비용 중 취업준비 등을 위한 사교육비를 따로 묻고 있다. 그리고 16차년도(통합표본 5차)부터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0세~만 5세 이하 자녀와 만 6세~재수생 자녀로 구분하였고, 0세~만 5세 이하 자녀에게는 보육 및 양육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우선 각 가구의 자녀 유무와 자녀 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4-14>와 같다. 0세~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5.7%였으며, 1명인 경우가 7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만 6세~재수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76.4%였으며, 1명인 경우가 55.3%였으나 2명인 경우도 38.7%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15.4%의 가구만이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학생 자녀는 1명인 경우가 77.6%로 가장 높은 비

<표 4-14> 9차(2017) 가구 내 자녀 유무 및 자녀 수(통합표본)

(단위: %)

| | | 0세~만 5세 이하 | 만 6세~재수생 | 대학생 이상 |
|-------|-------|------------|----------|--------|
| 자녀 유무 | 있음 | 35.7 | 76.4 | 15.4 |
| | 없음 | 64.3 | 23.6 | 84.6 |
| 자녀 수 | 1명 | 72.6 | 55.3 | 77.6 |
| | 2명 | 25.9 | 38.7 | 22.2 |
| | 3명 이상 | 1.4 | 6.1 | 0.2 |

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0세~만 5세 이하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 5,000원이고 자녀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4만 5,000원으로, 만 6세~재수생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2만 원이고 자녀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9,0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0세~만 5세 이하의 경우는 32%이고 만 6세~재수생은 72%에 달했으며, 특히 만 6세~재수생을 둔 가정의 대부분이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연평균 1,191만 3,000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당 연평균 971만 9,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 이상 자녀의 총 교육비 중 정규학교 등록금만 살펴보면, 가구당 연평균 587만 9,000원, 자녀당 연평균 479만 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비 부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경우보다도 많은 84.1%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에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도 절반 이상(54%)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구가 대학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15> 9차(2017) 자녀의 사교육비 및 부담 정도(통합표본)

(단위: %)

| | | 0세~만 5세 이하(월평균) | 만 6세~재수생 (월평균) | 대학생 이상 (연평균) |
|--------------------|-------------|--------------------|-------------------|-----------------|
| (사)교육비 부담 정도 | 매우 부담된다 | 2.5 | 26.4 | 54.0 |
| | 약간 부담된다 | 29.5 | 45.6 | 30.1 |
| | 보통이다 | 38.2 | 21.2 | 11.2 |
| |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 18.9 | 4.5 | 2.8 |
| |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10.9 | 2.3 | 1.8 |
|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만 원) | | 44.5 | 62.0 | 1,191.3(587.9) |
| 자녀당 평균 (사)교육비(만 원) | | 34.5 | 41.9 | 971.9(479.6) |

주: 괄호 안의 값은 연간 정규학교 등록금임.

제 5 장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KLIPS는 98표본의 1차년도(1998년)부터 매년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에 대해서 경제활동 참가 여부, 취업형태, 구직활동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조사 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17년도 통합표본 제9차 KLIPS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와 1차년도(2009년)부터 9차년도(2017년)까지 9년간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2009년 추가표본을 포함한 통합표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개인 응답자들을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제2절에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인구학적 분포를, 제3절에서는 미취업자들의 구직방법과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1절 경제활동 상태

<표 5-1>은 1~9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된 개인 원표본 사례 수 추이를 제시하였다.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원표본 개인에 대해서만 0을 초과하는 값이 부여되므로, 이 표는 종단면 가중치를 0보다 크게 부여받은 개

〈표 5-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 수(통합표본)

(단위: 명)

| | | 전체 | 개인 자료 | 신규 자료 |
|---------|---------|--------|--------|-------|
| 1차('09) | | 14,470 | 11,359 | 3,111 |
| 2차('10) | | 13,472 | 13,148 | 324 |
| 3차('11) | | 13,133 | 12,847 | 286 |
| 4차('12) | | 13,025 | 12,795 | 230 |
| 5차('13) | | 12,820 | 12,613 | 207 |
| 6차('14) | | 12,088 | 12,068 | 20 |
| 7차('15) | | 12,735 | 12,399 | 336 |
| 8차('16) | | 12,774 | 12,574 | 200 |
| 9차('17) | 종단 사례 수 | 12,909 | 12,723 | 186 |
| | 횡단 사례 수 | 13,739 | 13,411 | 328 |

주: 1~8차년도 사례 수는 종단면 가중치 0을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 수이며, 9차년도는 종단 사례 수와 횡단 사례 수를 같이 제시함. 횡단 사례 수는 횡단면 가중치 0을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 수를 나타냄.

인 표본 수이다. 개인 원표본 사례 수도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넘어가면서 급격히 줄었으나 그 이후로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다가 7차년도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횡단면 가중치는 조사 원칙에 따라 조사된 모든 개인 표본에 부여되므로 종단 개인 원표본보다 많은데, 9차년도의 경우 830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LIPS의 경제활동 상태 구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 상태 구분과는 다소 다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상태는 15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 기간¹⁶⁾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 수입이 있는 일을 했으면 취업자로, 일은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여, 이들을 묶어 경제활동인구로 규정하는 개념이다. 반면 KLIPS에서는 조사일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취업자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취업자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된 미취업자 중 지난 1주(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였다. 이로 인해 조사일 이전 주에는 구직활동을 했지만 조사일이 있는 주에 일자리를 구해 조사 당시 일하고

16) 조사일 바로 전 주(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이 조사 대상 기간이다.

있는 사람의 경우 통계청 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만 KLIPS에서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만 고려하면 되는 횡단면 조사와 달리, 종단적으로 바뀌는 모든 일자리 변동 상황을 기록해야 하는 KLIPS의 특성상 미취업자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취업자를 정의할 때 현재 갖고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오류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류법을 적용하였다.

<표 5-2>는 조사 연도별로 경제활동 상태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취업자는 조사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한 사람(취업자)”, 혹은 “가족 또는 친지를 위해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사람(무급가족종사자)”이 포함된다. 1차년도 조사 당시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ILO 기준 54.3%로 나타난 취업자 비중은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여 9차년도의 경우 57.4%로 조사되었다. 실업자¹⁷⁾의 비중은 1차년도에 2.3%에서 2차년도에 하락하였다가 9차년도에는 1.5%를 기록하였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9차년도 현재 41.1%를 기록했다.

[그림 5-1]과 [그림 5-2]는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조사)와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통계청 경활조사와 비교해 볼 때 KLIPS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약 4%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2009년 통합표본 1차년도에서 4.5%로 경활의 3.6%보다 0.9%포인트 높았으나, 2010년부터는 오히려 경활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¹⁸⁾

17) 현재 공식 통계에서 사용되는 실업자의 정의는 크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한 기준과 OECD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ILO에서는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주 취업 가능했던 자”로 규정한 데 반해, OECD는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주 취업 가능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OECD 기준으로 실업률을 공표하고 있다. KLIPS에서는 두 지표 모두 이용 가능하다.

1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차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상호(2015), 「노동패널 고용지표의 신뢰성 검토」, 『노동패널자료 연구(I)-패널자료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참조.

〈표 5-2〉 연도별 경제활동 상태 비교(통합표본)

(단위: %)

| | 취업자 | | 실업자 | | 비경제활동인구 | |
|---------|------|------|-----|------|---------|------|
| | ILO | OECD | ILO | OECD | ILO | OECD |
| 1차('09) | 54.3 | 54.3 | 2.3 | 2.6 | 43.4 | 43.1 |
| 2차('10) | 55.4 | 55.4 | 1.6 | 1.4 | 43.0 | 43.2 |
| 3차('11) | 56.7 | 56.7 | 1.8 | 1.5 | 41.5 | 41.8 |
| 4차('12) | 56.8 | 56.8 | 1.9 | 1.6 | 41.3 | 41.7 |
| 5차('13) | 56.8 | 56.8 | 1.6 | 1.4 | 41.6 | 41.9 |
| 6차('14) | 57.2 | 57.2 | 1.6 | 1.4 | 41.2 | 41.4 |
| 7차('15) | 56.4 | 56.4 | 1.6 | 1.3 | 42.0 | 42.3 |
| 8차('16) | 56.8 | 56.8 | 1.6 | 1.3 | 41.6 | 41.9 |
| 9차('17) | 57.4 | 57.4 | 1.5 | 1.4 | 41.1 | 41.3 |

주: 1) ILO와 OECD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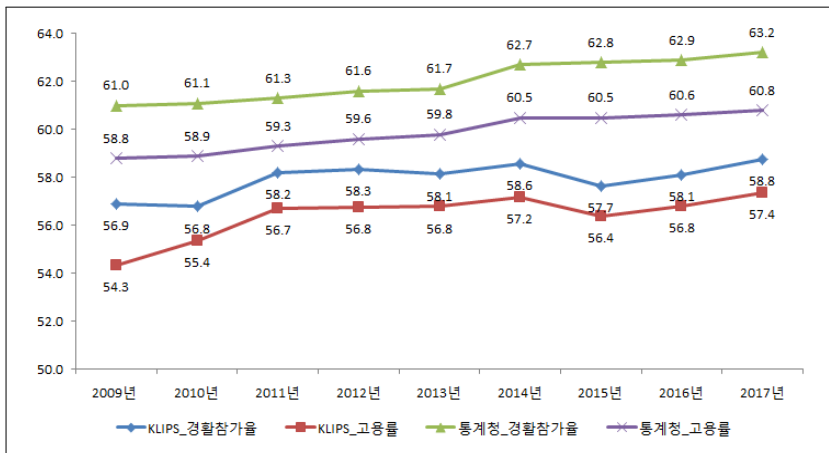
2) 합쳤을 때 100.0이 안 되거나 넘는 경우는 모두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들임.

3) 비중은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100.0이 되도록 계산되어 있으므로, 실업자는 15세 이상 인구 중 실업자 비중이지 실업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

4) 각 연도 종단면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

〈그림 5-1〉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비교(2009~2017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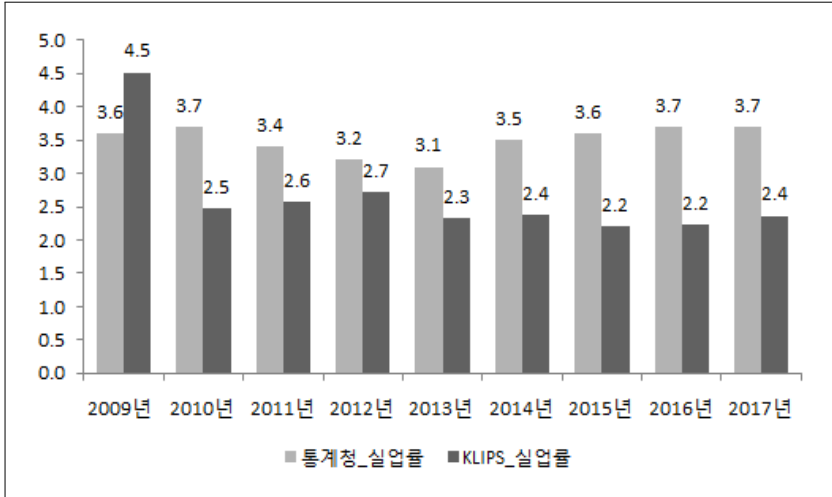
주: 1)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times 100$.2) 고용률 = 취업자/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3) 실업자를 OECD 정의에 근거해 산출했을 경우 계산되는 경제활동인구 비율.

4)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시하였음.

[그림 5-2] 연도별 실업률 비교(2009~2017년)

(단위: %)



주: 1) 실업률 = 실업자(OECD 기준)/경제활동인구 × 100.

2)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시하였음.

제2절 취업자의 특성

<표 5-3>과 <표 5-4>는 산업별로 KLIPS와 경찰조사의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KLIPS에서도 경찰조사와 마찬가지로 1차, 2차 산업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3차 산업 비중이 소폭 증가한 추이로 볼 때 KLIPS와 경찰조사의 취업자 분포는 큰 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는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별 종사자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전문관리직, 사무직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농림어업직, 생산직은 감소 추세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은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림어업직, 생산직은 약간 감소 추세를 보이며, 서비스판매직이 연도간 큰 차이없이 22%대에 머물렀다. 직업별 분포를 <표 5-6>에 제시된 경찰조사의 직업

〈표 5-3〉 KLIPS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2009~2017년)

(단위: %)

| | 1차 산업 (농림어업) | 2차 산업 (광공업) |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
|------|-----------------|----------------|--------------------------|
| 2009 | 6.3 | 18.4 | 75.3 |
| 2010 | 6.3 | 18.6 | 75.1 |
| 2011 | 5.9 | 19.1 | 75.0 |
| 2012 | 5.7 | 19.1 | 75.2 |
| 2013 | 5.5 | 18.9 | 75.6 |
| 2014 | 5.1 | 18.6 | 76.3 |
| 2015 | 5.2 | 18.3 | 76.5 |
| 2016 | 5.0 | 18.1 | 77.0 |
| 2017 | 4.8 | 17.8 | 77.4 |

주: 1) 각 연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2)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3) 1차 산업: 농업 및 임업, 어업을 포함.

2차 산업: 광업 및 제조업을 포함.

3차 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그리고 가사서비스업을 포함.

4)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기.

5) 합쳐서 100.0을 넘거나 안 되는 것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임.

〈표 5-4〉 경찰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2009~2017년)

(단위: %)

| | 1차 산업 (농림어업) | 2차 산업 (광공업) |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
|------|-----------------|----------------|--------------------------|
| 2009 | 7.0 | 16.4 | 76.6 |
| 2010 | 6.6 | 17.0 | 76.4 |
| 2011 | 6.4 | 17.0 | 76.6 |
| 2012 | 6.1 | 16.7 | 77.2 |
| 2013 | 6.0 | 16.8 | 77.2 |
| 2014 | 5.6 | 17.0 | 77.4 |
| 2015 | 5.1 | 17.4 | 77.5 |
| 2016 | 4.8 | 17.1 | 78.1 |
| 2017 | 4.8 | 16.9 | 78.3 |

주: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표 5-5〉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2009~2017년)

(단위: %)

| | 전문관리직 | 사무직 | 서비스판매직 | 농림어업직 | 생산직 |
|------|-------|------|--------|-------|------|
| 2009 | 22.0 | 15.0 | 22.5 | 5.9 | 34.6 |
| 2010 | 22.9 | 14.5 | 22.2 | 6.0 | 34.4 |
| 2011 | 22.9 | 14.6 | 22.5 | 5.6 | 34.4 |
| 2012 | 23.6 | 14.6 | 23.0 | 5.3 | 33.6 |
| 2013 | 23.8 | 15.4 | 22.3 | 5.2 | 33.3 |
| 2014 | 24.9 | 15.9 | 22.0 | 4.7 | 32.5 |
| 2015 | 24.2 | 15.9 | 22.6 | 4.9 | 32.4 |
| 2016 | 24.5 | 16.6 | 22.3 | 4.6 | 32.0 |
| 2017 | 24.1 | 16.7 | 22.2 | 4.5 | 32.5 |

주: 1) 각 연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2)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름.

3) 전문관리직에는 임법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을 포함. 서비스판매직에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농림어업직에는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등을 포함. 생산직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장치·기계 조작용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 등을 포함.

4) 합쳐서 100.0을 넘거나 안 되는 것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임.

〈표 5-6〉 경활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2009~2017년)

(단위: %)

| | 전문관리직 | 사무직 | 서비스판매직 | 농림어업직 | 생산직 |
|------|-------|------|--------|-------|------|
| 2009 | 21.1 | 15.3 | 23.4 | 6.5 | 33.7 |
| 2010 | 21.5 | 15.7 | 22.5 | 6.1 | 34.2 |
| 2011 | 21.4 | 16.5 | 22.1 | 5.9 | 34.1 |
| 2012 | 21.3 | 16.7 | 22.5 | 5.7 | 33.8 |
| 2013 | 21.4 | 16.8 | 22.4 | 5.6 | 33.8 |
| 2014 | 21.6 | 16.8 | 22.6 | 5.2 | 33.8 |
| 2015 | 21.4 | 16.9 | 22.5 | 4.7 | 34.5 |
| 2016 | 21.5 | 17.2 | 22.5 | 4.5 | 34.3 |
| 2017 | 21.7 | 17.4 | 22.3 | 4.5 | 34.1 |

주: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름.

〈표 5-7〉 9차(2017)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통합표본)

(단위: %)

| | | 농림 어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수도업 | 건설업 | 도소매 음식숙 박업 | 운수 및 통신업 | 금융 부동산 사업서 비스업 | 공공서 비스업 | 기타 |
|----------|--------|----------|------|-----------------|------|------------------|-------------|-------------------------|------------|-----|
| 성별 | 남성 | 4.8 | 21.7 | 0.7 | 12.4 | 17.1 | 11.8 | 13.7 | 11.1 | 6.8 |
| | 여성 | 4.6 | 12.7 | 0.2 | 1.6 | 25.5 | 3.6 | 13.5 | 30.3 | 8.0 |
| 연령 | 15~29세 | 0.8 | 18.0 | 0.2 | 2.9 | 27.0 | 7.2 | 15.7 | 21.8 | 6.5 |
| | 30~39세 | 1.0 | 20.7 | 0.6 | 6.1 | 18.3 | 8.7 | 14.8 | 23.5 | 6.3 |
| | 40~49세 | 1.4 | 17.8 | 0.5 | 9.6 | 18.5 | 8.5 | 13.4 | 23.7 | 6.7 |
| | 50~59세 | 4.4 | 20.0 | 0.6 | 9.3 | 24.1 | 8.9 | 10.9 | 13.2 | 8.6 |
| | 60세 이상 | 19.0 | 11.0 | 0.4 | 9.1 | 16.7 | 8.0 | 15.2 | 12.6 | 8.1 |
| | | | | | | | | | | |
| 교육 수준 | 고졸 미만 | 19.1 | 15.6 | 0.0 | 9.3 | 21.4 | 6.1 | 10.7 | 9.5 | 8.4 |
| | 고졸 | 3.5 | 22.1 | 0.5 | 9.5 | 26.3 | 8.7 | 11.5 | 10.1 | 7.9 |
| | 대재/중퇴 | 2.1 | 16.6 | 1.2 | 8.7 | 32.1 | 7.9 | 10.2 | 14.4 | 6.8 |
| | 전문대졸 | 1.4 | 19.7 | 0.3 | 7.4 | 20.7 | 8.3 | 13.3 | 22.4 | 6.7 |
| | 대졸 이상 | 1.4 | 14.7 | 0.7 | 5.9 | 13.1 | 9.3 | 17.5 | 30.8 | 6.6 |

주: 1)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름.

2) 운수 및 통신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포함.

3)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포함.

4) 공공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포함.

5) 기타: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별 종사자 비중과 비교해 살펴보면, 연도별 추이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9차년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취업자의 산업·직업 및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자. <표 5-7>은 취업자의 산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21.7%로 가장 높고 여성은 공공서비스업의 비중이 30.3%로 가장 높다. 그다음으

로는 남녀 모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비중이 27.0%로 가장 높고, 30대는 공공서비스업(23.5%), 40대도 공공서비스업(23.7%), 50대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4.1%), 60세 이상에서는 농림어업(19.0%)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농림어업 및 건설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과 공공서비스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표 5-8>은 취업자의 직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에서 서비스종사자는 여성(16.8%)이 남성(7.0%)의 2배가량을 정도로 더 많은 데 비해서,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9차(2017)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통합표본)

(단위: %)

| | | 고위임 직원 및 관리자 |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 사무 종사자 | 서비스 종사자 | 판매 종사자 | 농림어 업숙련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장치,기 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단순 노무 종사자 |
|----------|--------|-----------------------|--------------------------|-----------|------------|-----------|-------------------|--------------------------|----------------------------|-----------------|
| 성별 | 남성 | 2.0 | 19.9 | 15.0 | 7.0 | 9.9 | 4.6 | 14.9 | 16.6 | 10.1 |
| | 여성 | 0.7 | 26.6 | 18.5 | 16.8 | 13.1 | 4.2 | 4.2 | 4.1 | 11.9 |
| 연령 | 15~29세 | 0.1 | 31.5 | 22.9 | 13.2 | 12.3 | 1.0 | 6.2 | 7.9 | 4.9 |
| | 30~39세 | 0.4 | 34.4 | 24.1 | 9.3 | 10.1 | 0.8 | 7.7 | 9.2 | 4.1 |
| | 40~49세 | 1.8 | 27.6 | 19.3 | 10.0 | 10.3 | 1.3 | 11.0 | 10.5 | 8.3 |
| | 50~59세 | 2.2 | 13.4 | 11.3 | 12.4 | 14.0 | 4.0 | 14.1 | 15.2 | 13.3 |
| | 60세 이상 | 2.3 | 5.9 | 4.2 | 11.8 | 8.7 | 18.6 | 10.7 | 12.3 | 25.5 |
| 교육 수준 | 고졸 미만 | 0.1 | 1.3 | 1.3 | 17.6 | 8.3 | 18.3 | 15.5 | 11.8 | 25.8 |
| | 고졸 | 0.6 | 7.3 | 10.5 | 13.4 | 16.1 | 3.2 | 14.4 | 19.7 | 14.9 |
| | 대제/중퇴 | 0.2 | 15.7 | 13.0 | 16.5 | 17.3 | 1.8 | 8.7 | 13.6 | 13.2 |
| | 전문대졸 | 1.9 | 26.6 | 21.1 | 9.5 | 11.6 | 1.5 | 11.8 | 10.3 | 5.7 |
| | 대졸 이상 | 2.8 | 45.5 | 27.0 | 6.1 | 6.9 | 1.2 | 4.2 | 3.8 | 2.6 |

주: 1)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름.

2) 군인은 제외하였음.

연령별로 30대 이하는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종사자 비중이 높은 반면, 60세 이상은 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는 농림어업직을 제외하고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졸 미만의 경우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종사자가 겨우 1.3%에 불과하지만, 대졸 이상은 45.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미취업자

1. 구직활동

구직방법은 구직자들이 직업 탐색 과정에서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는지를 보여준다.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 최대 3개까지 사용한 구직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구직방법 중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중심으로 미취업자의 구직행위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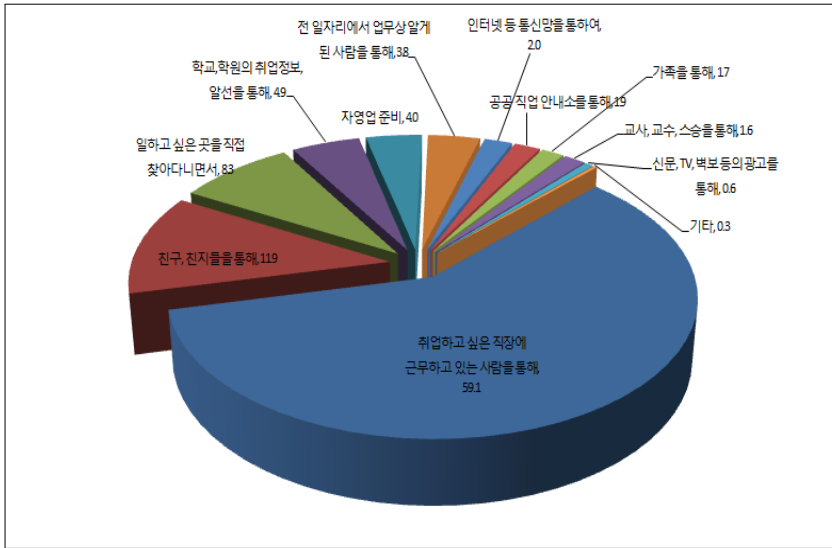
[그림 5-3]은 미취업자의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하고 싶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59.1%를 차지하였으며, 친구·친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그다음으로 많은 11.9%를 차지하였다.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응답은 8.3%,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및 알선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가 4.9% 순으로 나타났다.

이제 좀 더 분석적으로 미취업자들이 구직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자. 이러한 구분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공식적 구직방법, 비공식적 구직방법, 직접 접촉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¹⁹⁾ 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

19) 이 외에도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사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제도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직접 지원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KLIPS 5차년도 기

〔그림 5-3〕 9차(2017) 미취업자의 구직방법(통합표본)

(단위: %)



는 학교·학원·스승의 소개, 공·사설 직업안내소, 신문, TV와 같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이용 등이 해당된다. 비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가족·친구·친지의 소개,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전 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직접 접촉이라 함은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원하는 경우다.

<표 5-9>는 이러한 구분법에 따라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로 구직방법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공식적 방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9차년도 들어 남성보다는 여성의 공식적 방법 사용 비중이 높아졌다.

연령별 구직방법의 비중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공식적 방법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는 80%대 이상 수준으로 공식적 방법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거의 공식적 방법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5-9〉 9차(2017) 특성별 구직방법(통합표본)

(단위: %)

| | | 공식적 방법 | 비공식적 방법 | 직접 접촉 | 전체 |
|------|--------|--------|---------|-------|-------|
| 성별 | 남성 | 71.8 | 26.3 | 1.9 | 100.0 |
| | 여성 | 83.4 | 15.2 | 1.4 | 100.0 |
| 연령 | 15~29세 | 86.7 | 13.3 | 0.0 | 100.0 |
| | 30~39세 | 82.0 | 18.1 | 0.0 | 100.0 |
| | 40~49세 | 64.3 | 31.9 | 3.8 | 100.0 |
| | 50~59세 | 66.6 | 28.7 | 4.7 | 100.0 |
| | 60세 이상 | 28.9 | 62.7 | 8.5 | 100.0 |
| 교육수준 | 고졸 미만 | 26.6 | 45.4 | 28.0 | 100.0 |
| | 고졸 | 60.2 | 37.6 | 2.3 | 100.0 |
| | 대재/중퇴 | 87.7 | 12.3 | 0.0 | 100.0 |
| | 전문대졸 | 72.7 | 27.3 | 0.0 | 100.0 |
| | 대졸 이상 | 88.6 | 10.9 | 0.5 | 100.0 |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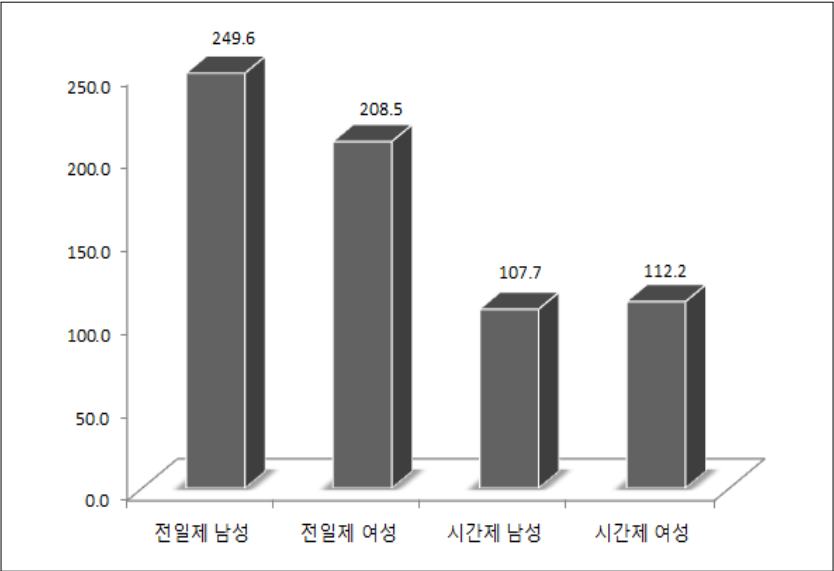
미취업자가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근로 시간 형태, 희망임금,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다. 여기서는 희망임금, 구직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5-4]에서 구직자가 평균적으로 희망하는 임금수준을 성별·근로시간 형태별로 살펴보면, 전일제를 선호하는 남성은 249만 6,000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희망하였으며, 전일제를 선호하는 여성은 208만 5,000원을 희망하였다. 시간제를 선호하는 경우 남성은 107만 7,000원, 여성은 112만 2,000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에서는 미취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표에는 이와 관련된 열 가지 항목의 내용과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응

[그림 5-4] 9차(2017) 성별·근로시간 형태별 평균 희망임금(통합표본)
(단위: 만 원)



<표 5-10> 9차(2017) 미취업자가 구직 시 주로 겪는 어려움(통합표본)
(단위: 점)

| | 남성 | 여성 | 전체 |
|------------------------------|-----|-----|-----|
| 1.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 2.0 | 1.9 | 2.0 |
| 2. 취업 또는 창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 2.4 | 2.7 | 2.5 |
| 3.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는다. | 3.0 | 3.3 | 3.1 |
| 4. 경험이 부족하다. | 2.5 | 2.4 | 2.5 |
| 5.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 2.2 | 2.2 | 2.2 |
| 6. 근무환경이나 근로시간이 맞지 않다. | 3.1 | 2.7 | 2.9 |
| 7. 나이가 너무 많다. | 3.2 | 2.9 | 3.1 |
| 8.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 2.3 | 2.0 | 2.3 |
| 9.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 . | 3.6 | 3.6 |
| 10. 장애인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 4.0 | 4.4 | 4.2 |

주: 1) 최소 1점부터 최대 5점까지의 평균 점수임.
2) 설문지상의 응답 항목 구성은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그렇지 않다'로 되어 있음. 따라서 점수가 작을수록 문항에 동의한다는 뜻임.
3)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답자의 평균 점수가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평균 점수는 ‘(1) 매우 그렇다’부터 ‘(5)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척도로 산출되었으므로,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일자리 자체가 부족’ 항목에 대해 평균 2.0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음’(2.2점)을 지적하였다. 여성의 경우 성차별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보다는 일자리 자체의 부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6 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 장에서는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특성들을 살펴본다. 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주요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취업과 퇴직, 산업과 직업, 기업의 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와 근로계약 유무 및 기간, 근로시간 형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및 임금,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수급 현황, 노동조합 관련 사항 등이 조사되었다. 본 장은 통합표본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표 6-1>은 1~9차(2009~2017년도 동안 조사된 임금근로자의 규모

<표 6-1> 임금근로자 수와 비중(통합표본)

(단위: 명, %)

| | 임금근로자 | | |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
|---------|-------|-------|-------|--------------------|
| | 표본 수 | 남성(%) | 여성(%) | |
| 1차('09) | 5,189 | 60.9 | 39.1 | 69.9 |
| 2차('10) | 5,083 | 59.9 | 40.1 | 70.7 |
| 3차('11) | 5,148 | 60.0 | 40.0 | 72.1 |
| 4차('12) | 5,212 | 59.6 | 40.4 | 72.6 |
| 5차('13) | 5,205 | 59.6 | 40.5 | 73.0 |
| 6차('14) | 5,076 | 59.6 | 40.4 | 73.7 |
| 7차('15) | 5,345 | 59.1 | 40.9 | 74.0 |
| 8차('16) | 5,486 | 58.5 | 41.5 | 74.3 |
| 9차('17) | 5,676 | 57.2 | 42.8 | 74.9 |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를 보여주고 있다. 9차(2017)년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는 5,676명으로,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은 1차(2009)년도 69.9%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9차(2017)년도에는 74.9%이다.

제1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 절에서는 9차(2017)년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본다. 본 절의 모든 분포는 임금근로자 5,676명을 대상으로 계산되었다.

먼저 [그림 6-1]에서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자의 비중이 34.8%로 가장 높았고, 대졸자의 비중이 30.5%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고졸 미만과 전문대졸의 비중이 전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2]에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2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30대가 25.2%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20대의 비중이 전체보다 특히 높았는데(18.2%),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 진출 시기가 빠름을 시사한다. 반면 여성 30~40대의 비중이 전체보다 낮은 것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노동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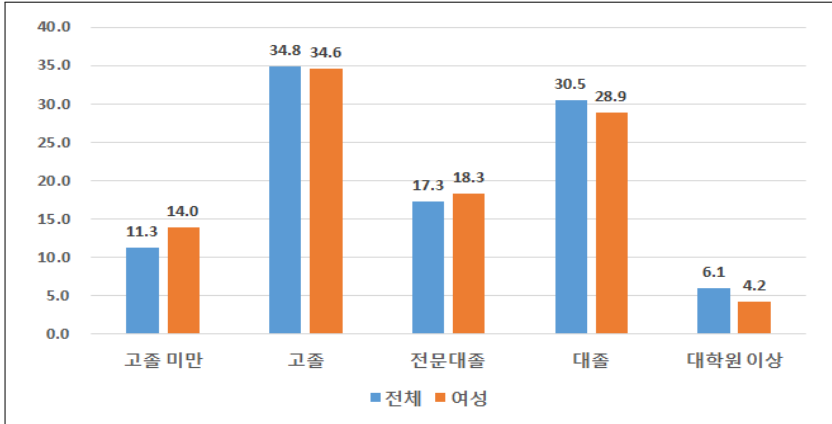
<표 6-2>에서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타 서비스업이 32.5%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광공업이 20.7%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0.7%로 비중이 가장 낮았다. 한편, 산업별 분포의 남녀 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는데, 즉 남성은 광공업(25.7%), 기타 서비스업(21.3%), 건설업(14.1%)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여성은 기타 서비스업(47.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1.8%), 광공업(14.0%)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생산직이 3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전문관리직이 26.6%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전문관리직(29.6%), 서비스직(24.8%), 사무직(22.6%)의 비중이 전체보다 높았다.

종업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0인 미만이 3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500인 이상이 18.9%로 두 번째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여

[그림 6-1] 임금근로자의 학력 분포(통합표본,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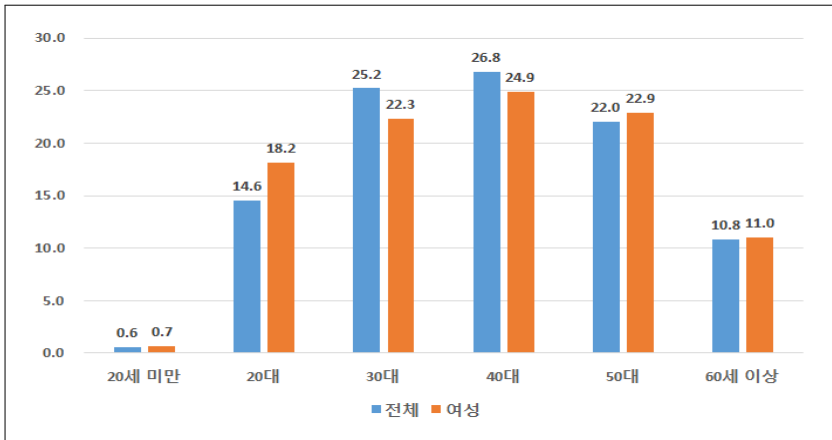
(단위: %)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그림 6-2] 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통합표본, 2017년)

(단위: %)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성은 10인 미만에서 남성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여성 37.5%, 남성 25.4%). 기업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민간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75.2%), 정부기관이 그 뒤를 이었다(8.9%). 남녀 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편, 교대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전체의 9.1%였으며, 남성(10.8%)이 여성(6.7%)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교대제는 2조 2교대제가

〈표 6-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통합표본, 2017년)

(단위: %)

| | | 전체 | 남성 | 여성 |
|-------------------|-------------|------|------|------|
| 산업 | 농림어업 | 0.6 | 0.6 | 0.7 |
| | 광공업 | 20.7 | 25.7 | 14.0 |
| | 건설업 | 8.7 | 14.1 | 1.5 |
| | 전기·가스 및 수도업 | 0.7 | 0.9 | 0.3 |
|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17.0 | 13.4 | 21.8 |
| | 운수통신업 | 8.0 | 10.8 | 4.4 |
| | 금융 및 부동산업 | 6.2 | 6.6 | 5.8 |
| | 공공서비스업 | 5.6 | 6.6 | 4.2 |
| | 기타 서비스업 | 32.5 | 21.3 | 47.4 |
| 직종 | 전문관리직 | 26.6 | 24.3 | 29.6 |
| | 사무직 | 20.6 | 19.0 | 22.6 |
| | 서비스직 | 17.9 | 12.6 | 24.8 |
| | 농림어업직 | 0.3 | 0.4 | 0.2 |
| | 생산직 | 34.7 | 43.7 | 22.8 |
| 종업원 규모 | 10인 미만 | 30.5 | 25.4 | 37.5 |
| | 10~29인 | 18.7 | 18.8 | 18.4 |
| | 30~99인 | 18.0 | 18.8 | 17.0 |
| | 100~299인 | 10.6 | 10.6 | 10.4 |
| | 300~499인 | 3.4 | 3.9 | 2.6 |
| | 500인 이상 | 18.9 | 22.5 | 13.9 |
| 기업 형태 | 민간회사 | 75.2 | 77.4 | 72.2 |
| | 외국인회사 | 1.0 | 1.1 | 0.8 |
| | 공기업 | 5.2 | 4.8 | 5.7 |
| | 법인단체 | 6.6 | 4.7 | 9.0 |
| | 정부기관 | 8.9 | 8.2 | 9.8 |
| | 비소속 | 2.4 | 2.9 | 1.7 |
| | 기 타 | 0.8 | 0.8 | 0.9 |
| 교대제 유무 및 형태 | 교대제 안 함 | 90.9 | 89.2 | 93.3 |
| | 2조 2교대제 | 4.2 | 5.2 | 2.8 |
| | 3조 3교대제 | 2.6 | 2.5 | 2.8 |
| | 기타 교대제 | 2.3 | 3.2 | 1.2 |
| 종사상 지위 | 상용직 | 74.4 | 78.3 | 69.2 |
| | 임시직 | 16.8 | 11.6 | 23.8 |
| | 일용직 | 8.8 | 10.1 | 7.0 |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결측치는 계산에서 제외.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74.4%, 임시·일용직이 25.6%인 반면에, 통계청의 2017년 경황조사에서 조사된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32.6%이다.²⁰⁾ KLIPS와 경황조사의 종사상 지위 비중의 차이는 조사 기준의 차이 때문이다. 경황조사에서는 퇴직금 유무 등 여러 기준들을 적용하는 반면에 KLIPS에서는 고용계약 기간 이외의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상용직과 일용직의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상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은 남성의 고용안정성이 여성보다 높음을 시사하며,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업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제2절 근로시간

9차(2017)년도 KLIPS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현재 일차원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와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주당 근로시간과 주당 평균근로일수를 조사하며,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 및 주당 평균근로일수를 조사한다. 또한, 초과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방식, 월평균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1. 평균근로시간

우선 평균근로시간의 연도별 추이부터 살펴보자. 평균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정규근로시간과 주당 초과근로시간을 합산하였으며,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으로 조사되었다.

20) 통계청(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6-3>은 임금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이 1차(2009)년도 46.7시간에서 9차(2017)년도 43.0시간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음을 보여준다. 한편, 남성의 평균근로시간이 여성보다 길었으며, 9차(2017)년도의 남녀 간 평균근로시간 차이는 5.3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6-4>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3.8시간으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반면, 19세 미만과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20대가 42.4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30, 40대 핵심연령층에서 남성과 여성의 근로시간 격차가 큰 것은 여성의 육아 부담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남성은 40대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5.8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50대에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1.1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고졸자와 전문대졸자에서 각각 43.8, 43.9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학력에서 남성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여성에 비해 길게 나타났고 특히 대학원 이상에서 남성과 여성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차이는 7.5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3>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통합표본)

(단위: 시간)

| | 전체 | 남성 | 여성 |
|---------|------|------|------|
| 1차('09) | 46.7 | 48.4 | 44.0 |
| 2차('10) | 46.9 | 48.7 | 44.2 |
| 3차('11) | 46.2 | 48.1 | 43.3 |
| 4차('12) | 45.2 | 47.0 | 42.5 |
| 5차('13) | 44.8 | 46.8 | 42.0 |
| 6차('14) | 44.7 | 46.9 | 41.5 |
| 7차('15) | 43.7 | 45.7 | 40.9 |
| 8차('16) | 43.5 | 45.5 | 40.7 |
| 9차('17) | 43.0 | 45.3 | 40.0 |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6-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통합표본, 2017년)
(단위: 시간)

| | | 주당 평균근로시간 | 남성 | 여성 |
|-----|--------|-----------|------|------|
| 연령별 | 19세 미만 | 37.6 | 41.9 | 33.2 |
| | 20~29세 | 42.4 | 44.7 | 40.4 |
| | 30~39세 | 43.7 | 45.5 | 40.8 |
| | 40~49세 | 43.8 | 45.8 | 40.7 |
| | 50~59세 | 43.6 | 45.6 | 41.1 |
| | 60세 이상 | 39.6 | 43.8 | 34.1 |
| 학력별 | 고졸 미만 | 40.6 | 43.8 | 37.7 |
| | 고졸 | 43.8 | 46.3 | 40.4 |
| | 전문대졸 | 43.9 | 46.3 | 41.1 |
| | 대졸 | 43.0 | 44.6 | 40.6 |
| | 대학원 이상 | 41.0 | 43.3 | 35.8 |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6-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통합표본, 2017년)
(단위: 시간)

| | 주당 평균근로시간 | 남성 | 여성 |
|-----|-----------|------|------|
| 상용직 | 44.8 | 46.3 | 42.6 |
| 임시직 | 38.3 | 44.1 | 34.5 |
| 일용직 | 36.8 | 38.9 | 32.6 |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4.8시간으로 나타나 임시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38.3시간보다 약 6.5시간 길었다. 또한 남녀 모두 상용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표 6-5 참조).

〈표 6-6〉은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종·종업원 규모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산업별로는 광공업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5.7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농림어업이 38.7시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나 그 차이는 7.0시간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금융 및 부동산업에서 48.0시간을, 여성은 광공업에서 43.6시간을 근무하여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남녀 간 차

이가 가장 큰 산업은 농림어업으로 8.7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직종별로는 농림어업직이 46.0시간으로 가장 긴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전문관리직이 41.5시간으로 가장 짧은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록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남녀 간 차이가 가장 큰 직종은 농림어업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주당 11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300~499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5.2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남녀 간 차이는 5.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것

〈표 6-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통합표본, 2017년)
(단위: 시간)

| | | 주당 평균근로시간 | 남성 | 여성 |
|------------|-------------|-----------|------|------|
| 산업별 | 농림어업 | 38.7 | 42.5 | 33.8 |
| | 광공업 | 45.7 | 46.6 | 43.6 |
| | 건설업 | 42.3 | 42.4 | 41.0 |
| | 전기·가스 및 수도업 | 41.3 | 42.7 | 35.6 |
|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44.3 | 47.7 | 41.6 |
| | 운수통신업 | 45.6 | 46.8 | 41.6 |
| | 금융 및 부동산업 | 44.8 | 48.0 | 40.9 |
| | 공공서비스업 | 41.5 | 43.8 | 36.6 |
| | 기타 서비스업 | 40.3 | 43.5 | 38.4 |
| 직종별 | 전문관리직 | 41.5 | 43.4 | 39.5 |
| | 사무직 | 42.9 | 44.7 | 40.9 |
| | 서비스직 | 42.7 | 47.2 | 39.5 |
| | 농림어업직 | 46.0 | 47.0 | 36.0 |
| | 생산직 | 44.6 | 46.2 | 40.3 |
| 종업원 규모별 | 10인 미만 | 43.1 | 45.3 | 41.0 |
| | 10~29인 | 42.9 | 45.3 | 39.4 |
| | 30~99인 | 44.4 | 46.4 | 41.3 |
| | 100~299인 | 44.5 | 47.7 | 40.1 |
| | 300~499인 | 45.2 | 47.1 | 41.4 |
| | 500인 이상 | 43.8 | 44.9 | 41.2 |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으로 조사된 사업장은 10~29인 사업장으로(42.9시간), 남녀 간 차이는 5.9시간이었다. 대체로 종업원 규모가 클수록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2. 초과근로시간

여기서는 임금근로자 중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의 유무, 초과급여 지급방식 및 월평균 초과급여에 관한 사항을 분석한다.

<표 6-7>에서 알 수 있듯이,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 중 24.0%가 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과근로가 대단히 보편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과근로를 한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8.4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초과근로를 한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 중 초과급여가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58.0%였다. 초과급여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84.8%가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고 응답하였으며, 12.7%는 ‘초과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고 응답하였다. 시간당 평균 초과급여는 1만 3,600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6-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통합표본, 2017년)

(단위: %)

| | | |
|------------------|------------------|------|
| 초과근로를 안 함 | | 76.0 |
| 초과근로를 함 | | 24.0 |
|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시간) | | 8.4 |
| 초과급여 지급 안 함 | | 42.0 |
| 초과급여 지급함 | | 58.0 |
| 초과급여 지급방식 | 시간에 따라 계산 | 84.8 |
| | 일정 금액 | 12.7 |
| | 기준 없음 | 2.5 |
| | 시간당 평균 초과급여(천 원) | 13.6 |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초과근로를 한 임금근로자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임.

제3절 임 금

KLIPS에서는 세후소득을 중심으로 임금 지급주기와 산정방식, 수준과 내용, 그리고 성과급 적용 여부와 해당 성과급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임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종사상 지위, 인구학적 특성, 사업체 특성별로 살펴볼 것이다.

1.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산정방식

<표 6-8>에서 임금근로자의 96.4%가 ‘한 달’을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매일 지급받는다’와 ‘수시로 지급받는다’라고 응답한 임

<표 6-8>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지급방법(통합표본, 2017년)

(단위: %)

| | | 전체 | 남성 | 여성 |
|---------|-------|------|------|------|
| 임금 지급주기 | 한 달 | 96.4 | 95.5 | 97.7 |
| | 보름/주 | 0.3 | 0.3 | 0.2 |
| | 매일 | 2.4 | 3.1 | 1.4 |
| | 수시 | 0.9 | 1.1 | 0.6 |
| | 기타 | 0.0 | 0.0 | 0.1 |
| 임금 산정방식 | 연봉계약제 | 15.5 | 19.6 | 10.0 |
| | 월급 | 72.8 | 68.2 | 78.8 |
| | 주급/격주 | 0.2 | 0.2 | 0.1 |
| | 일당 | 6.1 | 8.0 | 3.5 |
| | 시간급제 | 2.6 | 1.4 | 4.2 |
| | 도급제 | 0.2 | 0.2 | 0.2 |
| | 실적급 | 2.5 | 2.1 | 3.0 |
| | 기타 | 0.3 | 0.3 | 0.3 |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6-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통합표본, 2017년)

(단위: %)

| | | 성과급제 있음 | 성과급제 없음 |
|-----------|-------------|---------|---------|
| 성별 | 남성 | 19.6 | 80.4 |
| | 여성 | 13.1 | 86.9 |
| 산업 | 농림어업 | 0.9 | 99.1 |
| | 광공업 | 23.6 | 76.4 |
| | 건설업 | 4.0 | 96.0 |
| | 전기·가스 및 수도업 | 32.4 | 67.6 |
|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10.0 | 90.0 |
| | 운수통신업 | 22.4 | 77.7 |
| | 금융 및 부동산업 | 27.7 | 72.3 |
| | 공공서비스업 | 32.3 | 67.7 |
| | 기타 서비스업 | 13.5 | 86.6 |
| 직종 | 전문관리직 | 21.4 | 78.6 |
| | 사무직 | 23.1 | 76.9 |
| | 서비스직 | 12.6 | 87.5 |
| | 농림어업직 | 0.0 | 100.0 |
| | 생산직 | 11.8 | 88.2 |
| 종사상 지위 | 상용직 | 21.1 | 78.9 |
| | 임시직 | 5.4 | 94.7 |
| | 일용직 | 2.2 | 97.8 |
| 종업원 규모 | 10인 미만 | 4.5 | 95.5 |
| | 10~29인 | 7.3 | 92.7 |
| | 30~99인 | 13.0 | 87.0 |
| | 100~299인 | 18.5 | 81.6 |
| | 300~499인 | 36.7 | 63.3 |
| | 500인 이상 | 39.9 | 60.1 |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금근로자는 각각 2.4%, 0.9%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95.5%, 여성의 97.7%가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연봉계약제의 비중이 15.5%로, 월급제의 비중은 72.8%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68.2%, 78.8%로 월급

제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연봉제의 비중은 남성이 19.6%, 여성이 10.0%로 남성이 여성의 약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는 성과급제 실시 여부를 임금근로자 특성별로 분석한 것이다. 성과급제를 적용받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남성 19.6%, 여성 13.1%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32.4로 가장 높았고, 농림어업은 0.9%로 가장 낮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직종별로는 사무직의 23.1%가 성과급제를 적용받는 반면, 생산직은 11.8%만이 성과급제를 적용받았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과 일용직 모두 상용직에 비해 성과급제의 적용비율이 매우 낮았다. 종업원 규모에 따라서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39.9%가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규모가 작을수록 실시비율이 낮아져 10~29인 사업장은 7.3%, 10인 미만 사업장은 4.5%만이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월평균 임금

KLIPS에서는 임금 산정방식에 따른 항목별 임금수준과 “현재 이 일지에서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월평균임금을 세후소득으로 조사하고 있다.

<표 6-10>은 KLIPS에서 조사된 월평균 실질임금이 1차(2009)년도 223만 2,000원에서 9차(2017)년도 249만 9,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려준다. 한편, 여성의 1차(2009)년도 월평균 실질임금 154만 5,000원은 당시 남성(267만 1,000원)의 57.8%에 불과했으며, 9차(2017)년도의 182만 원도 남성(300만 6,000원)의 6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1>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연령과 교육수준별로 보여 준다. 연령별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경우 40대가 379만 9,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 30대가 217만 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19세 이하를 제외하면 남성의 경우 60세 이상이 195만 4,000원으로, 여성의 경우도 60세 이상이 106만 7,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월평균 임금은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졸자의 월평균 임금은 311만 5,000원으로 고졸자의 219만 8,000원보다

〈표 6-10〉 월평균 임금 비교(통합표본)

(단위: 만 원, %)

| | 전체 | | 남성 | | 여성 | |
|---------|-------|-------|-------|-------|-------|-------|
| | 명목임금 | 실질임금 | 명목임금 | 실질임금 | 명목임금 | 실질임금 |
| 1차('09) | 197.4 | 223.2 | 236.2 | 267.1 | 136.6 | 154.5 |
| 2차('10) | 204.2 | 224.3 | 244.6 | 268.6 | 144.0 | 158.1 |
| 3차('11) | 214.8 | 226.7 | 259.4 | 273.9 | 147.8 | 156.1 |
| 4차('12) | 223.8 | 231.2 | 269.2 | 278.1 | 157.0 | 162.2 |
| 5차('13) | 232.8 | 237.5 | 280.1 | 285.7 | 163.3 | 166.6 |
| 6차('14) | 239.2 | 240.9 | 284.5 | 286.5 | 172.2 | 173.5 |
| 7차('15) | 244.6 | 244.6 | 292.5 | 292.5 | 175.2 | 175.2 |
| 8차('16) | 250.4 | 248.0 | 298.0 | 295.1 | 183.3 | 181.5 |
| 9차('17) | 257.2 | 249.9 | 309.5 | 300.6 | 187.3 | 182.0 |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실질임금 =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100 (2015=100)²¹⁾

〈표 6-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통합표본, 2017년)

(단위: 만 원)

| | | 전체 | 남성 | 여성 |
|-----|--------|-------|-------|-------|
| 연 령 | 19세 이하 | 148.3 | 186.1 | 110.2 |
| | 20~29세 | 189.4 | 198.1 | 181.7 |
| | 30~39세 | 265.7 | 294.9 | 217.9 |
| | 40~49세 | 311.8 | 379.9 | 208.7 |
| | 50~59세 | 278.0 | 356.9 | 179.6 |
| | 60세 이상 | 156.8 | 195.4 | 106.7 |
| 학 력 | 고졸 미만 | 145.2 | 182.1 | 112.4 |
| | 고졸 | 219.8 | 268.4 | 154.4 |
| | 전문대졸 | 256.7 | 303.4 | 200.8 |
| | 대졸 | 311.5 | 360.0 | 240.1 |
| | 대학원 이상 | 408.7 | 457.6 | 289.3 |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 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21) 2009년 88.5, 2010년 91.1, 2011년 94.7, 2012년 96.8, 2013년 98.0, 2014년 99.3, 2015년 100.0 2016년 101.0 2017년 102.9

41.7%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 미만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5만 2,000원으로 고졸자의 66.1%에 불과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고용형태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표 6-12>에서 볼 수 있듯이,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291만 3,000원인 데 비해 임시직은 상용직의 52.0%, 일용직은 57.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3>은 산업별과 직종별, 그리고 기업체 특성별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378만 1,000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보였고, 광공업과 공공서비스업이 각각 302만 5천 원과 302만 2천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포는 남녀 간 차이가 있는데,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전기·가스 및 수도업(439만 6,000원), 광공업(352만 5,000원), 공공서비스업(337만 2,000원) 순으로 높은 반면, 여성은 운수통신업(241만 5,000원), 금융부동산업(237만 5,000원), 공공서비스업(229만 4,000원) 순으로 높았다.

임금수준은 직종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임금만이 300만 원을 상회하였다.

종업원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높은 임금수준을 보였는데,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은 393만 8,000원, 10인 미만 사업장과 10~29인 사업장의 임금은 각각 181만 1,000원과 227만 2,000원으로 조사되었다.

기업형태별로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외국인회사가 437만 1,000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보였고, 공기업이 305만 9,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민간회사는 249만 5,000원으로 소속 없음과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임금수준을 보였다.

<표 6-1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통합표본, 2017년)

(단위: 만 원)

| | | 월평균 임금 | |
|--------|-----|--------|------|
| | | 평균액 | 상대임금 |
| 종사상 지위 | 상용직 | 291.3 | - |
| | 임시직 | 151.4 | 52.0 |
| | 일용직 | 168.4 | 57.8 |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상대임금은 상용직 근로자를 100으로 하여 계산.

〈표 6-13〉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직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통합표본, 2017년)
(단위: 만 원)

| | | 전체 | 남성 | 여성 |
|--------|-------------|-------|-------|-------|
| 산업 | 농림어업 | 191.2 | 281.2 | 75.9 |
| | 광공업 | 302.5 | 352.5 | 180.3 |
| | 건설업 | 276.5 | 280.7 | 224.3 |
| | 전기·가스 및 수도업 | 378.1 | 439.6 | 127.9 |
|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195.7 | 247.3 | 153.3 |
| | 운수통신업 | 291.7 | 307.0 | 241.5 |
| | 금융부동산업 | 303.9 | 343.5 | 244.0 |
| | 공공서비스업 | 302.2 | 337.2 | 229.4 |
| | 기타 서비스업 | 229.3 | 294.0 | 190.3 |
| 직종 | 전문관리직 | 306.9 | 379.0 | 227.8 |
| | 사무직 | 306.5 | 364.3 | 241.7 |
| | 서비스직 | 190.2 | 261.6 | 141.7 |
| | 농림어업직 | 196.9 | 221.3 | 123.2 |
| | 생산직 | 227.0 | 264.1 | 132.3 |
| 종업원 규모 | 10인 미만 | 181.1 | 214.7 | 150.1 |
| | 10~29인 | 227.2 | 264.4 | 175.2 |
| | 30~99인 | 260.0 | 304.3 | 193.2 |
| | 100~299인 | 279.6 | 334.0 | 202.9 |
| | 300~499인 | 327.4 | 363.9 | 253.3 |
| | 500인 이상 | 393.8 | 458.9 | 249.6 |
| 기업형태별 | 민간회사 | 249.5 | 301.3 | 175.5 |
| | 외국인회사 | 437.1 | 531.2 | 255.9 |
| | 공기업 | 305.9 | 403.1 | 195.7 |
| | 법인단체 | 258.7 | 327.3 | 210.4 |
| | 정부기관 | 300.0 | 336.0 | 259.4 |
| | 소속이 없음 | 184.5 | 209.9 | 125.3 |
| | 기타 | 168.9 | 203.3 | 125.2 |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

KLIPS는 고용형태에 대한 설문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2002년부터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비정규직 관련 문항들을 설문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98년부터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자기선언적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 유무 등을 조사해 왔으며, 2002년부터는 임금근로자의 호출근로(혹은 일용대기근로) 여부와 취업자의 근로지속성 여부, 향후 근로지속가능기간,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이유, 파견 및 용역 근로 여부, 독립도급근로 여부, 가내근로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또한, 4차(2012)년도부터는 2009년 부가조사의 고용형태에 대한 다양한 문항들이 설문에 포함되어 조사되었다. 본 절에서는 상술한 조사항목들을 이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²²⁾

1. 비정규직의 규모

<표 6-14>는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포를 보여준다. 2002년 노사정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4.7%였다. 27.6%의 한시적근로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9.9%의 시간제근로자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전형근로자는 전체의 12.3%를 차지했으며, 그중 가장 비중이 높은 유형은 6.5%의 일일근로자였다. 간접고용에 해당되는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는 각각 0.9%, 3.4%였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중 비정규직 비중은 대부분의 고용형태에서 여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중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여성의 1/3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남성 중 비전형근로자

22) KLIPS는 5차(2013)년도까지는 별도의 기준을 이용하여 비정규직을 분류해 왔으나, 6차(2014)년도부터는 노사정 합의문의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을 분류하였다.

비중은 여성보다 높았으며, 특히 일일근로자 비중은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 일용직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림 6-3]은 KLIPS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

〈표 6-1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통합표본,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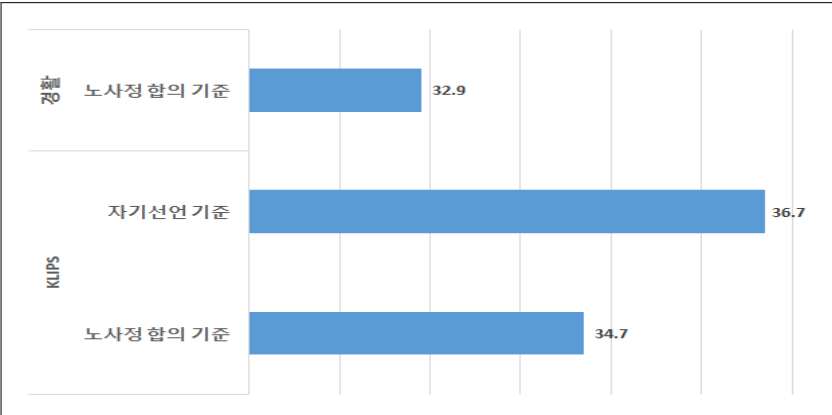
(단위: %)

| | 전체 | 남성 | 여성 |
|-----------|------|------|------|
| 정규직 | 65.3 | 71.1 | 57.6 |
| 비정규직 | 34.7 | 28.9 | 42.4 |
| 한시적근로자 | 27.6 | 23.1 | 33.5 |
| 시간제근로자 | 9.9 | 4.7 | 16.8 |
| 비전형근로자 | 12.3 | 12.8 | 11.5 |
| 파견근로자 | 0.9 | 0.6 | 1.4 |
| 용역근로자 | 3.4 | 3.8 | 3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 | 1.6 | 2.5 |
| 가정내근로자 | 0.6 | 0.2 | 1 |
| 일일근로자 | 6.5 | 7.7 | 4.8 |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비정규직의 각 고용형태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그 비중의 합이 반드시 100이 되지 않음.

〔그림 6-3〕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통합표본, 2017년)

(단위: %)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비정규직 비중은 2017년 8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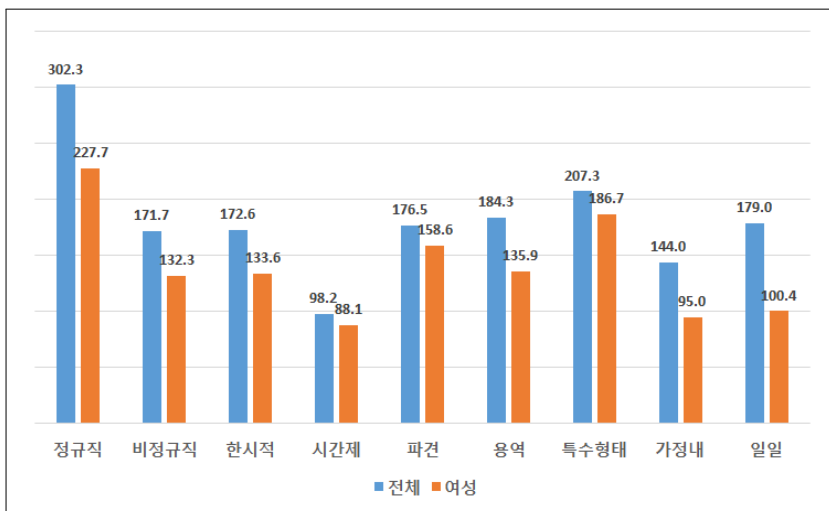
자 규모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KLIPS에서는 여러 조사항목을 이용하여 2002년 노사정 합의문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기선언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구할 수 있다. KLIPS의 2002년 노사정 합의문에 근거한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은 34.7%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32.9%와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선언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은 36.7%로 나타났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그림 6-4]는 노사정 합의에 따른 비정규직의 임금을 고용형태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171만 7,000원)은 정규직 근로자(302만 3,0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중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월평균 임금(207만 3,000원)도 정규직 근로자의 68.6%에 그쳤다.

[그림 6-4]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통합표본, 2017년)

(단위: 만 원)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월평균 임금은 명목임금.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모든 고용형태에서 남성보다 낮았으며, 특히 여성 일일근로자의 월평균 임금(100만 4,000원)은 전체 일일근로자(179만 원)의 5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제 7 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KLIPS는 유형 설문과 취업자용 설문을 통해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

주요 설문항목으로는 종사상 지위, 사업체의 규모, 월평균 소득과 연간 매출액, 근로시간의 규칙성, 주당 근로시간과 평균근로일수, 사업체의 창업 및 운영 등과 관련된 특성들이 있다. 특히 2002년부터는 사업체의 창업자본금 및 화폐가치에 대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비임금근로자의

〈표 7-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통합표본)

(단위: 명, %)

| | 비임금근로자 | | |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
|---------|--------|-------|-------|---------------------|
| | 표본 수 | 남성(%) | 여성(%) | |
| 1차('09) | 2,598 | 59.5 | 40.5 | 30.1 |
| 2차('10) | 2,467 | 59.4 | 40.6 | 29.3 |
| 3차('11) | 2,364 | 60.6 | 39.5 | 27.9 |
| 4차('12) | 2,393 | 61.4 | 38.6 | 27.4 |
| 5차('13) | 2,353 | 60.4 | 39.6 | 27.1 |
| 6차('14) | 2,249 | 61.8 | 38.3 | 26.3 |
| 7차('15) | 2,255 | 61.4 | 38.7 | 26.0 |
| 8차('16) | 2,251 | 61.5 | 38.5 | 25.7 |
| 9차('17) | 2,236 | 61.6 | 38.4 | 25.1 |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특성에 대한 분석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적자를 보는 경우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본 장에서도 제6장과 마찬가지로 통합표본이 사용되었다.

1차(2009)년도부터 9차(2017)년도까지 각 조사에서 파악된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표 7-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절 종사상 지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된다. 여기서 고용주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한 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근로자로, 자영업자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로, 무급가족종사자는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주당 18시간 이상 하는 근로자로 각각 정의된다.

먼저 <표 7-2>에서 9차(2017)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주가 28.0%, 자영업자가 54.8%, 무급가족종사자가 17.2%였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의 비중은 20%대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은

<표 7-2>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통합표본)

(단위: %)

| | 고용주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
| 1차('09) | 27.7 | 53.0 | 19.3 |
| 2차('10) | 26.8 | 54.2 | 19.0 |
| 3차('11) | 28.0 | 53.7 | 18.4 |
| 4차('12) | 25.1 | 57.0 | 17.9 |
| 5차('13) | 25.1 | 56.9 | 18.0 |
| 6차('14) | 24.5 | 57.1 | 18.4 |
| 7차('15) | 25.9 | 57.1 | 17.0 |
| 8차('16) | 27.2 | 55.8 | 17.1 |
| 9차('17) | 28.0 | 54.8 | 17.2 |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50%대에서,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10% 후반대에서 거의 횡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3>은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과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먼저 성별에 따른 종사상 지위는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각각 62.1%, 32.8%, 5.1%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성의 경우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주 순으로 각각 43.1%, 36.6%, 20.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60대 이상에서 65.1%로 가장 높았고 20대에서 40.6%로 가장 낮았다. 비임

<표 7-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 지위 분포(통합표본, 2017년)
(단위: %)

| | | 고용주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
| 성별 | 남성 | 32.8 | 62.1 | 5.1 |
| | 여성 | 20.4 | 43.1 | 36.6 |
| 연령 | 20~29세 | 22.2 | 40.6 | 37.2 |
| | 30~39세 | 31.2 | 55.4 | 13.4 |
| | 40~49세 | 35.5 | 50.5 | 14.0 |
| | 50~59세 | 31.1 | 50.1 | 18.8 |
| | 60세 이상 | 17.5 | 65.1 | 17.4 |
| 학력 | 고졸 미만 | 12.1 | 63.4 | 24.5 |
| | 고졸 | 27.7 | 54.2 | 18.1 |
| | 전문대졸 | 40.5 | 45.3 | 14.2 |
| | 대졸 | 38.2 | 52.4 | 9.5 |
| | 대학원 이상 | 49.3 | 43.7 | 7.0 |
| 산업 | 농림어업 | 7.4 | 58.7 | 33.9 |
| | 광공업 | 44.1 | 36.2 | 19.6 |
| | 건설업 | 29.9 | 60.4 | 9.7 |
|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35.7 | 42.8 | 21.6 |
| | 운수통신업 | 15.6 | 83.1 | 1.3 |
| | 금융 및 부동산업 | 18.6 | 71.4 | 10.0 |
| | 기타 서비스업 | 33.7 | 59.0 | 7.3 |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결측치는 계산에서 제외.

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고용주의 비중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산업별²³⁾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자. 광공업(44.1%)에서는 고용주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수통신업(83.1%)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았다.

제2절 근로시간

본 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 주당 평균근로시간, 주당 평균근로일수 등과 관련된 특성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설문문항으로는 우선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를 묻는 “이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가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 함은 일거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업 또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이며, 불규칙적이라 함은 일거리가 아예 없어 사업 또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불규칙적인 경우는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로 다시 세분하여 조사되었다. 한편,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와 관련된 사항은 “이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와 “일주일에 보통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각각 조사한다.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 및 주평균 근로일수의 분포가 <표 7-4>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를 살펴보면, ‘규칙적인’ 경우가 74.4%, 불규칙적인 경우가 25.6%였고, 특히 불규칙적이고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17.8%로 받지 않는 경우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3) 2007년 개정 9차 산업표준분류.

〈표 7-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및 주평균 근로일수(통합표본, 2017년)
(단위: %, 일)

| | | 규칙적 | 불규칙적 | | 주평균 근로일수(일) |
|-----------|-------------|------|----------|----------|----------------|
| | | | 계절 영향 없음 | 계절 영향 있음 | |
| 전체 | | 74.4 | 7.8 | 17.8 | 5.7 |
| 종사상 지위 | 고용주 | 93.3 | 2.7 | 4.0 | 5.8 |
| | 자영업자 | 68.3 | 10.7 | 21.0 | 5.6 |
| | 무급가족종사자 | 62.9 | 6.9 | 30.2 | 5.8 |
| 산업 | 농림어업 | 18.2 | 5.8 | 76.1 | 5.5 |
| | 광공업 | 90.6 | 5.5 | 3.9 | 5.5 |
| | 건설업 | 62.0 | 11.3 | 26.8 | 5.2 |
|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89.9 | 5.3 | 4.8 | 6.1 |
| | 운수통신업 | 77.2 | 14.5 | 8.3 | 5.3 |
| | 금융 및 부동산업 | 89.7 | 9.8 | 0.5 | 5.5 |
| | 기타 서비스업 | 85.2 | 9.9 | 5.0 | 5.6 |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먼저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고용주의 93.3%가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자영업자는 68.3%가 규칙적이라고 응답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며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는 고용주(4.0%)보다 자영업자(21.0%)와 무급가족종사자(30.2%)에서 훨씬 높은 비중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의 81.8%, 건설업 종사자의 38.0%가 근로시간이 규칙적이지 않다고 응답했고,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76.1%, 26.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9차(2017)년도에 조사된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일수는 5.7일이었고, 자영업자의 경우 5.6일로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로 분석해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6.1일, 기타 서비스업이 5.6일로 주당 평균근로일수가 가장 길었고, 건설업이 5.2일로 가장 짧았다.

2. 주당 근로시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1차(2009)년도에 52.0시간이었으

나 2~6차(2010~2014)년도 동안 50시간 전후를 유지했고, 7차(2015)년도에 소폭 감소하여 9차(2017)년도에는 48.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7-5>에서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고용주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차(2017)년도에는 고용주의 경우 51.4시간, 자영업자의 경우 47.3시간,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44.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7-6>은 9차(2017)년도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비임금근로자의 58.2%가 주당 44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8.0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43.0시간보다 약 5.0시간 더 긴 것이다.

성별에 따른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3.2시간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남성 비임금근로자는 남성 임금근로자보다 약 3.5시간을 더 일하고 있으며,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여성 임금근로자보다 약 5.8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볼 때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은 50.6시간을 일하는 50~59세였고, 가장 짧은 것은 44.9시간을 일하는 60세 이상이었다. 한편, 교육수준별로 볼 때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은 50.3시간을 일하는 고졸자들이었고, 가장 짧은 것은 39.3시간을 일하는 대학원 이상 졸업자였다.

<표 7-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통합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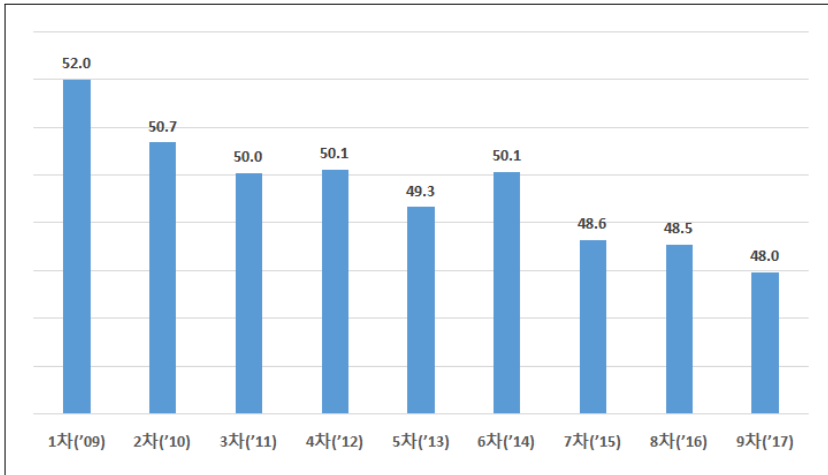
(단위: 시간)

| | 전체 | 고용주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
| 1차('09) | 52.0 | 55.4 | 50.5 | 51.3 |
| 2차('10) | 50.7 | 54.9 | 49.3 | 48.7 |
| 3차('11) | 50.0 | 53.0 | 49.4 | 47.3 |
| 4차('12) | 50.1 | 53.6 | 49.5 | 47.0 |
| 5차('13) | 49.3 | 52.5 | 48.4 | 47.7 |
| 6차('14) | 50.1 | 53.2 | 48.9 | 49.6 |
| 7차('15) | 48.6 | 51.9 | 47.6 | 47.2 |
| 8차('16) | 48.5 | 51.4 | 47.4 | 47.7 |
| 9차('17) | 48.0 | 51.4 | 47.3 | 44.7 |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그림 7-1〕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통합표본)

(단위 : 시간)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7-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통합표본, 2017년)

(단위 : %, 시간)

| | | 1~18 시간 | 19~35 시간 | 36~43 시간 | 44~54 시간 | 55~70 시간 | 71시간 이상 | 주당 평균 근로시간 |
|----|--------|------------|-------------|-------------|-------------|-------------|------------|---------------|
| 전체 | | 2.5 | 15.2 | 24.1 | 25.4 | 28.0 | 4.8 | 48.0 |
| 성별 | 남성 | 1.9 | 11.4 | 23.3 | 28.5 | 29.9 | 5.0 | 49.3 |
| | 여성 | 3.5 | 21.1 | 25.4 | 20.4 | 25.1 | 4.5 | 45.8 |
| 연령 | 20~29세 | 6.4 | 19.6 | 16.5 | 15.8 | 39.7 | 2.0 | 47.2 |
| | 30~39세 | 4.4 | 10.7 | 24.3 | 28.0 | 28.5 | 4.1 | 48.2 |
| | 40~49세 | 3.4 | 12.7 | 26.5 | 26.5 | 26.3 | 4.6 | 47.8 |
| | 50~59세 | 1.3 | 10.0 | 23.2 | 26.4 | 33.3 | 5.8 | 50.6 |
| | 60세 이상 | 2.2 | 24.8 | 23.9 | 23.3 | 21.6 | 4.2 | 44.9 |
| 학력 | 고졸 미만 | 2.1 | 25.4 | 18.9 | 23.8 | 24.8 | 5.2 | 46.3 |
| | 고졸 | 1.0 | 9.1 | 24.0 | 28.5 | 32.2 | 5.3 | 50.3 |
| | 전문대졸 | 3.2 | 11.6 | 25.4 | 28.5 | 25.7 | 5.6 | 48.6 |
| | 대졸 | 5.2 | 14.4 | 28.5 | 21.1 | 27.2 | 3.7 | 46.3 |
| | 대학원 이상 | 5.6 | 27.9 | 35.4 | 16.0 | 15.1 | 0.0 | 39.3 |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7-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통합표본, 2017년)
(단위: %, 시간)

| | | 1~18 시간 | 19~35 시간 | 36~43 시간 | 44~54 시간 | 55~70 시간 | 71시간 이상 | 주당 평균 근로시간 |
|-----------|-------------|------------|-------------|-------------|-------------|-------------|------------|---------------|
| 산업 | 농림어업 | 2.7 | 38.4 | 22.6 | 22.2 | 12.8 | 1.3 | 39.8 |
| | 광공업 | 0.9 | 10.7 | 28.6 | 37.3 | 21.3 | 1.3 | 46.4 |
| | 건설업 | 1.9 | 11.5 | 32.6 | 30.0 | 23.5 | 0.5 | 45.9 |
|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0.4 | 9.3 | 15.0 | 23.1 | 42.2 | 10.0 | 54.9 |
| | 운수통신업 | 1.8 | 6.3 | 27.5 | 26.8 | 31.4 | 6.1 | 50.5 |
| | 금융 및 부동산업 | 1.4 | 9.1 | 45.8 | 28.8 | 12.8 | 2.2 | 44.5 |
| | 기타 서비스업 | 7.3 | 14.2 | 26.6 | 23.0 | 26.3 | 2.7 | 45.0 |
| 종업원 규모 | 1~4인 | 0.3 | 8.6 | 21.9 | 28.1 | 36.0 | 5.1 | 46.7 |
| | 5~9인 | 0.0 | 7.2 | 42.2 | 27.9 | 21.9 | 0.8 | 51.6 |
| | 10인 이상 | 0.5 | 7.1 | 58.2 | 14.6 | 14.0 | 5.6 | 47.4 |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7-7〉에서는 9차(2017)년도 기준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산업 및 사업체 규모에 따라 분석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4.9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71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0.0%로 나타나 다른 산업에 비해 장시간 근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업원 규모가 1~4인 사업장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6.7시간인 반면 5~9인 이상 사업장은 51.6시간으로 약 4.9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제3절 월평균 소득

〈표 7-8〉은 1~9차(2009~2017)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소득(이하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실질소득을 연도별로 보여준다.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차(2009)년도 253만 1,000원에서 6차(2014)년도

에 312만 원으로 증가했으나, 7차(2015)년도에 305만 1,000원으로 소폭 감소한 후 9차(2017)년도에 334만 5,000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월평균 소득을 성별에 따라 분석해 보면, 남녀 간 소득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9차(2017)년도에 조사된 여성의 월평균 소득은 240만 원으로 남성의 373만 7,000원에 비하면 64.2%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표 7-9>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연령과 교육수준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연령별 월평균 소득을 보면, 40대가 394만 9,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 또한 40대가 59.9%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60세 이상에서는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29.3%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대졸 이하 학력까지는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증가했으나, 대학원 이상 학력은 오히려 월평균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졸 미만 학력과 그 이상 학력 간 차이

〈표 7-8〉 월평균 소득 비교(통합표본)

(단위: 만 원)

| | 전체 | | 남성 | | 여성 | |
|---------|-------|-------|-------|-------|-------|-------|
| | 명목임금 | 실질임금 | 명목임금 | 실질임금 | 명목임금 | 실질임금 |
| 1차('09) | 253.1 | 286.1 | 284.2 | 321.3 | 180.8 | 204.4 |
| 2차('10) | 262.8 | 288.6 | 291.2 | 319.8 | 195.5 | 214.7 |
| 3차('11) | 280.1 | 295.7 | 313.1 | 330.6 | 198.1 | 209.2 |
| 4차('12) | 284.9 | 294.4 | 318.1 | 328.6 | 200.2 | 206.8 |
| 5차('13) | 300.4 | 306.4 | 339.5 | 346.3 | 207.7 | 211.8 |
| 6차('14) | 312.0 | 314.2 | 349.0 | 351.4 | 219.5 | 221.0 |
| 7차('15) | 305.1 | 305.1 | 344.6 | 344.6 | 210.4 | 210.4 |
| 8차('16) | 321.9 | 318.8 | 364.3 | 360.8 | 223.7 | 221.6 |
| 9차('17) | 334.5 | 324.9 | 373.7 | 363.1 | 240.0 | 233.1 |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실질소득=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 2015년=100).²⁴⁾

4) 적자를 보는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

24) 2009년 88.5, 2010년 91.1, 2011년 94.7, 2012년 96.8, 2013년 98.0, 2014년 99.3, 2015년 100.0 2016년 101.0 2017년 102.9

〈표 7-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명목소득(통합표본, 2017년)
(단위: %, 만 원)

| | | 월평균 소득 분포 | | | | | 월평균 소득액 (만 원) |
|----|--------|-----------|--------------|------------------------------|------------------------------|--------------|---------------------|
| | | 적자 | 100만 원 미만 |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 300만 원 이상 | |
| 전체 | | 1.3 | 10.8 | 20.6 | 19.9 | 47.4 | 334.5 |
| 연령 | 20~29세 | 3.2 | 7.5 | 28.7 | 18.4 | 42.2 | 234.3 |
| | 30~39세 | 1.7 | 4.4 | 21.0 | 25.3 | 47.6 | 339.4 |
| | 40~49세 | 0.9 | 3.4 | 14.2 | 21.7 | 59.9 | 394.9 |
| | 50~59세 | 1.2 | 6.0 | 17.4 | 21.1 | 54.4 | 375.5 |
| | 60세 이상 | 1.4 | 26.0 | 29.3 | 14.7 | 28.6 | 237.8 |
| 학력 | 고졸 미만 | 1.4 | 27.3 | 31.4 | 17.7 | 22.2 | 187.5 |
| | 고졸 | 1.4 | 6.4 | 19.5 | 22.1 | 50.7 | 338.6 |
| | 전문대졸 | 0.6 | 6.7 | 12.0 | 18.4 | 62.3 | 376.0 |
| | 대졸 | 1.5 | 4.7 | 15.4 | 18.9 | 59.5 | 454.6 |
| | 대학원 이상 | 0.0 | 5.0 | 25.3 | 20.4 | 49.3 | 357.9 |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월평균 소득 계산 시 '적자'인 응답자 제외.

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 미만 학력의 월평균 소득은 187만 5,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56.1%에 불과했다. 또한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의 비율이 다른 학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에 100만 원 미만의 비율은 다른 학력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0>에는 9차(2017)년도 기준 사업체 특성과 종업원 규모별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정리되어 있다. 먼저 산업별로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광공업 종사자가 436만 3,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 종사자가 432만 9,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농림어업의 월평균 소득은 166만 8,000원으로 나타나 가장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종업원 규모가 클수록 증가했다. 1~4인 사업장의 비임금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이 442만 9,000원인 반면에 10인

이상 사업장은 901만 6,000원이었다.

<표 7-11>은 9차(2017)년도에 조사된 적자액 규모이다.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는 1.3%로 낮은 비중을 보였고, 월평균 적자액은 438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통합표본, 2017년)
(단위: %, 만 원)

| | | 월평균 소득 분포 | | | | | 월평균 소득액 (만 원) |
|-----------|----------------|-----------|--------------|------------------------------|------------------------------|--------------|---------------------|
| | | 적자 | 100만 원 미만 |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 300만 원 이상 | |
| 산업 | 농림어업 | 2.5 | 44.0 | 21.7 | 9.1 | 22.7 | 166.8 |
| | 광공업 | 3.0 | 5.0 | 13.8 | 15.7 | 62.5 | 436.3 |
| | 건설업 | 0.2 | 0.0 | 10.5 | 31.3 | 58.0 | 432.9 |
|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0.5 | 6.4 | 18.3 | 20.5 | 54.3 | 378.0 |
| | 운수통신업 | 1.3 | 2.3 | 23.4 | 26.8 | 46.3 | 298.9 |
| | 금융 및 부동산업 | 1.0 | 5.3 | 19.7 | 19.8 | 54.2 | 360.4 |
| | 기타 서비스업 | 1.1 | 8.3 | 27.4 | 21.1 | 42.1 | 316.1 |
| 종업원 규모 | 0명(자영업자) | 1.2 | 15.6 | 27.0 | 23.3 | 33.0 | 237.3 |
| | 1~4인 | 1.1 | 1.7 | 9.6 | 15.3 | 72.3 | 442.9 |
| | 5~9인 | 0.0 | 2.3 | 4.1 | 7.6 | 86.0 | 664.3 |
| | 10인 이상 | 5.2 | 0.0 | 4.4 | 4.4 | 85.9 | 901.6 |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월평균 소득 계산 시 '적자' 응답자 제외.

<표 7-11>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통합표본, 2017년)
(단위: %, 만 원)

| 월평균 적자의 분포 | | | | | | 월평균 적자액 (만 원) |
|------------|-----|--------------|-----------------------|-----------------------|--------------|---------------------|
| 적자 아님 | 적자임 | 100만 원 미만 | 100만~ 200만 원 미만 | 200만~ 300만 원 미만 | 300만 원 이상 | |
| 98.7 | 1.3 | 31.3 | 36.0 | 3.8 | 28.9 | 438.0 |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제4절 사업체의 창업

KLIPS는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주와 자영업자 중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경우(유형 7) 사업체의 창업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표 7-12>를 통해 창업의 주체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가족 또는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은 경우는 7.2%로 창업한 경우 89.4%에 비해 매우 낮았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주보다 창업의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시작한 응답자가 사업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알아보자. <표 7-13>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74.0%가 본인, 가족 또는 친지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정부의 보조를 받은 비율은 매

<표 7-12>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통합표본, 2017년) (단위 : %)

| | 전체 | 고용주 | 자영업자 |
|-----------------|------|------|------|
| 창업 | 89.4 | 84.1 | 91.7 |
| 가족 및 친지로부터 물려받음 | 7.2 | 10.0 | 6.0 |
| 기타 | 3.4 | 5.8 | 2.3 |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7-13>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통합표본, 2017년) (단위 : %)

| | 전체 | 고용주 | 자영업자 |
|---------------|------|------|------|
| 본인 또는 가족, 친지 | 74.0 | 60.6 | 80.0 |
| 동업자 | 2.2 | 5.8 | 0.6 |
| 은행 등의 융자 | 20.8 | 29.7 | 16.9 |
|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려서 | 1.2 | 2.1 | 0.7 |
| 사채업자 | 0.0 | 0.0 | 0.0 |
| 정부의 보조 | 0.0 | 0.0 | 0.0 |
| 기타 | 0.7 | 1.8 | 0.2 |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우 낮았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고용주의 경우 본인, 가족 또는 친지를 통한 자본금 조달의 비중이 60.6%,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용자 비중이 2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자금 조달 방식에 있어 본인, 가족 또는 친지에 의존하는 비중이 고용주보다 19.4%포인트 높은 80.0%로 나타났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용자에 의존하는 비중은 12.8%포인트 낮은 16.9%로 나타났다.

제 8 장

경제활동 상태의 동태적 변화

제8장에서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상태를 동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패널자료는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얻는 것이므로 동일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상태가 시간에 걸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패널자료가 아니면 얻기 어려운 것으로, 다른 자료들과 구분되는 패널자료의 장점이다.²⁵⁾ 노동시장 분석은 특히 동태적인 측면이 중요하므로 패널자료의 이와 같은 장점이 잘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8장은 KLIPS의 통합 7~9차(2015~2017년도)에 응답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활동 상태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전국 단위의 분석표본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기 위해 통합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8-1>은 개인들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표에 제시된 값들은 흔히 이행확률로 언급되고 있으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원래의 확률에 100을 곱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행확률을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2016년도에 취업상태에 있던 100명 가운데 다음 기인 2017년도에도 취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의 수는 94.0명이며, 반면 실업으로 옮겨간 사람 수는 1.0명, 그리고 비경제활동 상태로 옮겨간 사

25) 횡단면 자료에서 회고적 조사를 통해 패널조사와 유사한 추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고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회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고 오차의 문제는 더욱 커지므로 종단 분석에 사용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표 8-1〉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

(단위: %)

| 이전 상태 | 이후 상태 | 7차('15)→8차('16) | 8차('16)→9차('17) |
|-------|-------|-----------------|-----------------|
| 취업 | 취업 | 93.5 | 94.0 |
| | 실업 | 1.0 | 1.0 |
| | 비경제활동 | 5.5 | 5.0 |
| 실업 | 취업 | 55.7 | 55.0 |
| | 실업 | 17.0 | 16.9 |
| | 비경제활동 | 27.3 | 28.1 |
| 비경제활동 | 취업 | 10.7 | 11.5 |
| | 실업 | 1.8 | 2.0 |
| | 비경제활동 | 87.4 | 86.5 |

주: 통합표본 7→8차 계산에는 7차 종단면 가중치를, 8→9차 계산에는 8차 종단면 가중치를 활용.

람의 수는 5.0명이다. 이를 확률로 해석해도 좋다. 즉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이행확률은 1.0%이며 취업지속확률은 94.0%이다.

이제 이러한 경제활동 상태에서의 변화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표 8-2>는 이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남성과 여성은 경제활동 상태 변화에 있어 매우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던 현상들이다. 즉 취업 상태의 변화에 있어서 여성의 취업지속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반면, 취업에서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취업지속 가능성은 2016→2017년도의 경우 95.5%인데 여성의 경우는 92.0%이다. 반면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은 여성의 경우 7.2%로 남성 3.5%의 두 배를 웃돈다.

이제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자. <표 8-3>은 이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연령집단별로 이행률을 비교하여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취업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40대와 50대에서 가장 높고,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특히 20대의 취업지속 가능성이 2016→2017년도 기준 88.1%로 가장 낮다. 반면 취업 상태에서 계속 머물 확률은 40대 96.3%, 50대 96.0%로 높다. 2015→

〈표 8-2〉 성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단위: %)

| | 이전 상태 | 이후 상태 | 7차('15)→8차('16) | 8차('16)→9차('17) |
|----|-------|-------|-----------------|-----------------|
| 남성 | 취업 | 취업 | 95.3 | 95.5 |
| | | 실업 | 0.9 | 1.1 |
| | | 비경제활동 | 3.9 | 3.5 |
| | 실업 | 취업 | 54.4 | 50.9 |
| | | 실업 | 18.7 | 20.7 |
| | | 비경제활동 | 26.9 | 28.4 |
| | 비경제활동 | 취업 | 12.5 | 12.2 |
| | | 실업 | 4.1 | 2.8 |
| | | 비경제활동 | 83.4 | 84.9 |
| 여성 | 취업 | 취업 | 90.9 | 92.0 |
| | | 실업 | 1.2 | 0.9 |
| | | 비경제활동 | 8.0 | 7.2 |
| | 실업 | 취업 | 57.1 | 61.1 |
| | | 실업 | 15.3 | 11.3 |
| | | 비경제활동 | 27.7 | 27.7 |
| | 비경제활동 | 취업 | 10.0 | 11.2 |
| | | 실업 | 0.8 | 1.6 |
| | | 비경제활동 | 89.2 | 87.2 |

2016년도와 비교할 때, 30대의 취업상태 지속 확률이 소폭 감소하고, 50대의 취업지속 확률이 소폭 증가하였다.

비경제활동 상태에 계속 머물 가능성은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20대의 경우 이행률이 2016→2017년도의 경우 73.3%인 반면, 30대 82.8%, 40대 82.9%, 50대 84.3%, 그리고 60세 이상의 경우 96.0%이다. 청년의 비경활지속확률이 가장 낮다는 것은 이들이 다른 경제활동 상태로 쉽사리 옮겨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실업자가 취업이나 비경활로 전환하는 확률이 2015→2016년도, 2016→2017년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이지만, 실업자의 표본 수가 적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표 8-3〉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단위: %)

| | 이전 상태 | 이후 상태 | 7차('15)→8차('16) | 8차('16)→9차('17) |
|-----|-------|-------|-----------------|-----------------|
| 20대 | 취업 | 취업 | 86.4 | 88.1 |
| | | 실업 | 2.4 | 1.9 |
| | | 비경제활동 | 11.2 | 10.0 |
| | 실업 | 취업 | 51.5 | 50.8 |
| | | 실업 | 23.6 | 23.3 |
| | | 비경제활동 | 25.0 | 25.9 |
| | 비경제활동 | 취업 | 19.2 | 20.5 |
| | | 실업 | 5.2 | 6.3 |
| | | 비경제활동 | 75.5 | 73.3 |
| 30대 | 취업 | 취업 | 94.3 | 93.9 |
| | | 실업 | 1.1 | 1.5 |
| | | 비경제활동 | 4.6 | 4.6 |
| | 실업 | 취업 | 69.1 | 58.8 |
| | | 실업 | 5.5 | 9.6 |
| | | 비경제활동 | 25.5 | 31.6 |
| | 비경제활동 | 취업 | 16.5 | 15.9 |
| | | 실업 | 1.1 | 1.3 |
| | | 비경제활동 | 82.5 | 82.8 |
| 40대 | 취업 | 취업 | 95.8 | 96.3 |
| | | 실업 | 0.7 | 0.9 |
| | | 비경제활동 | 3.5 | 2.8 |
| | 실업 | 취업 | 54.4 | 66.4 |
| | | 실업 | 24.4 | 23.5 |
| | | 비경제활동 | 21.3 | 10.1 |
| | 비경제활동 | 취업 | 14.5 | 15.8 |
| | | 실업 | 2.1 | 1.4 |
| | | 비경제활동 | 83.4 | 82.9 |
| 50대 | 취업 | 취업 | 94.4 | 96.0 |
| | | 실업 | 0.9 | 0.6 |
| | | 비경제활동 | 4.7 | 3.4 |

〈표 8-3〉의 계속

| | 이전 상태 | 이후 상태 | 7차('15)→8차('16) | 8차('16)→9차('17) |
|-----|-------|-------|-----------------|-----------------|
| 50대 | 실업 | 취업 | 57.6 | 54.8 |
| | | 실업 | 4.0 | 7.3 |
| | | 비경제활동 | 38.4 | 38.0 |
| | 비경제활동 | 취업 | 12.9 | 13.5 |
| | | 실업 | 1.6 | 2.3 |
| | | 비경제활동 | 85.5 | 84.3 |
| 60대 | 취업 | 취업 | 91.2 | 90.3 |
| | | 실업 | 0.6 | 0.5 |
| | | 비경제활동 | 8.2 | 9.2 |
| | 실업 | 취업 | 39.4 | 44.4 |
| | | 실업 | 22.9 | 6.0 |
| | | 비경제활동 | 37.7 | 49.7 |
| | 비경제활동 | 취업 | 2.9 | 3.9 |
| | | 실업 | 0.4 | 0.1 |
| | | 비경제활동 | 96.7 | 96.0 |

연령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20대, 30대 청년 노동시장이 매우 역동적이라는 것이다. 취업이나 실업 또는 비경황에 계속 머물 가능성은 매우 낮고 다른 노동력 상태로 손쉽게 이동하고 있어서 이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표 8-4〉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시간에 걸친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학력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읽을 수 있는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중졸 이하자의 경우 취업 상태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 2015→2016년도 기준 100명 가운데 90.7명이나 고졸자의 경우 취업 상태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93.6명으로 높아지며, 전문대졸 92.7명, 대졸 이상의 경우 95.5명으로 높아진다.

실업으로부터의 이동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표본이 적어 결과 수치가 매우 크게 변동하므로 통계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표 8-4〉 학력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단위: %)

| | 이전 상태 | 이후 상태 | 7차('15)→8차('16) | 8차('16)→9차('17) |
|-------|-------|-------|-----------------|-----------------|
| 중졸 이하 | 취업 | 취업 | 90.7 | 92.9 |
| | | 실업 | 0.7 | 0.2 |
| | | 비경제활동 | 8.6 | 6.9 |
| | 실업 | 취업 | 45.5 | 54.2 |
| | | 실업 | 14.3 | - |
| | | 비경제활동 | 40.2 | 45.8 |
| | 비경제활동 | 취업 | 4.3 | 5.4 |
| | | 실업 | 0.2 | 0.2 |
| | | 비경제활동 | 95.5 | 94.4 |
| 고졸 | 취업 | 취업 | 93.6 | 94.0 |
| | | 실업 | 1.0 | 1.1 |
| | | 비경제활동 | 5.4 | 4.9 |
| | 실업 | 취업 | 62.6 | 64.8 |
| | | 실업 | 10.7 | 13.1 |
| | | 비경제활동 | 26.8 | 22.2 |
| | 비경제활동 | 취업 | 9.9 | 11.2 |
| | | 실업 | 1.8 | 1.3 |
| | | 비경제활동 | 88.3 | 87.5 |
| 전문대졸 | 취업 | 취업 | 92.7 | 95.2 |
| | | 실업 | 1.6 | 1.1 |
| | | 비경제활동 | 5.7 | 3.8 |
| | 실업 | 취업 | 67.9 | 42.8 |
| | | 실업 | 10.3 | 21.2 |
| | | 비경제활동 | 21.8 | 36.0 |
| | 비경제활동 | 취업 | 16.0 | 20.0 |
| | | 실업 | 3.7 | 1.0 |
| | | 비경제활동 | 80.3 | 79.0 |
| 대졸 이상 | 취업 | 취업 | 95.5 | 94.9 |
| | | 실업 | 0.6 | 1.0 |
| | | 비경제활동 | 3.9 | 4.1 |
| | 실업 | 취업 | 55.7 | 55.5 |
| | | 실업 | 15.9 | 20.0 |
| | | 비경제활동 | 28.4 | 24.6 |
| | 비경제활동 | 취업 | 18.8 | 17.2 |
| | | 실업 | 2.5 | 3.2 |
| | | 비경제활동 | 78.7 | 79.7 |

비경제활동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물 확률은 2016→2017년도 기준 중졸 이하에서 94.4%, 고졸에서 87.5%로 높고 나머지 학력집단들에서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전문대졸의 경우 79.0%, 그리고 대졸 이상의 경우 79.7%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에 비경제활동에서 취업으로의 이행률은 중졸 이하의 경우 5.4%에 불과하나, 고졸의 경우 11.2%로 높아지며,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의 경우도 각각 20.0%, 17.2%로 높게 나타났다.

제 9장

전략적 사고

제20차 KLIPS 부가조사는 전략적 사고 능력의 응답자 특성에 대한 측정을 위해 행동실험과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게임이론에 대한 행동실험을 이용해서 후진귀납법(backward induction)과 내적 전략사고(introspective strategic thinking)을 측정하고,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눈을 통해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였다.

응답은 현장에서 자율응답으로 진행하거나 자원자들이 인터넷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부가조사는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다. 다음의 <표 9-1>은 현장 응답과 인터넷 응답 수 사이의 인구학적 특성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총 402가구에서 852명이 참여하였다. 794명의 참여자가 현장에서 자율응답으로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58명이 온라인 응답을 통해 참여하게 되었다. 온라인 참여의 숫자가 적었던 이유는 해당 부가조사가 인터넷을 통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첫 번째 조사였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참여를 시도한 사람은 85명이지만 이중 58명만이 조사를 끝까지 마쳤다고 할 수 있다. 즉 나머지 27명은 조사 중간에 자율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이번 부가조사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160명 정도 더 참여하였으며, 20대 이하가 116명으로 가장 적었고, 30대 233명, 40대 251명, 50대 이상 252명의 샘플이 참여하였다. 학력과 관련하여서는 고졸 미만의 샘플이 66명 고졸 샘플이 376명, 대졸 이상의 샘플이 410명 참여하였다. 온라인 조사(자율조사)와 현장조사 사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해서 다음의

〈표 9-1〉 현장 응답과 인터넷 응답 수와 인구학적 특성 분포

| | | 현장조사 | 자율조사 | 총 샘플 수 |
|----------|-------------------|------|------|--------|
| 성별 | 남성 | 350 | 45 | 395 |
| | 여성 | 444 | 13 | 457 |
| 연령 | 20대 이하 | 81 | 35 | 116 |
| | 30대 | 221 | 12 | 233 |
| | 40대 | 240 | 11 | 251 |
| | 50대 이상 | 252 | 0 | 252 |
| 학력 | 고졸 미만 | 60 | 6 | 66 |
| | 고졸 | 355 | 21 | 376 |
| | 대졸 이상 | 383 | 27 | 410 |
| 취업 상태 | 취업 | 539 | 24 | 563 |
| | 미취업 | 255 | 34 | 289 |
| 가구자산 | 1억 원 이하 | 266 | 8 | 274 |
| |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207 | 16 | 223 |
| | 2억 원 초과 | 321 | 34 | 355 |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온라인 참여자는 남성이 45명으로 여성 13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또한 온라인 참여자의 대다수는 20대 이하 혹은 30대로 젊은 층의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력과 관련하여서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지만, 고졸 이상의 사람들이 온라인 조사의 상당수로 분포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자산이 많을수록 온라인 조사에 더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제1절 후진귀납법

후진귀납법 실험은 Gneezy et al.(2010)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실험으로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컴퓨터와 대결하면서 얼마만큼 부분 게임 완전 내쉬 균형(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을 잘 구사하

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각 참여자들은 총 4개의 다른 목표숫자 아래에서 컴퓨터를 상대로 목표숫자에 먼저 도달하는 경우 5,000원을 사례로 받고, 컴퓨터가 먼저 목표숫자에 도달하는 경우 0원을 사례로 받게 된다. 네 가지의 목표숫자는 5, 11, 14, 17로 이루어져 있으며 1부터 시작하여 최대 3개의 숫자를 참여자가 먼저 선택할 수 있다. 합리성의 레벨이 가장 낮은 목표숫자 5의 경우, 참여자는 1, 2, 3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1을 선택한다면 컴퓨터는 그다음 2, 3, 4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가 무엇을 선택하는 관계없이 다음 라운드에 5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에, 참여자가 2를 선택한다면 컴퓨터는 3, 4, 5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목표숫자에 도달 가능한 컴퓨터가 승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참여자가 3을 선택하는 경우도 컴퓨터가 승리하게 된다. 즉, 주어진 목표숫자 하에서 각 개인은 우월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목표숫자가 5인 경우에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1을 선택하고 두 번째 라운드에서 5를 선택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한편, 목표숫자가 11인 경우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3, 두 번째 라운드에서 7, 세 번째 라운드에서 11을 선택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목표숫자가 14인 경우에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2를, 두 번째 라운드에서 6, 세 번째 라운드에서 10, 네 번째 라운드에서 14를 선택하는 것이 우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목표숫자가 17인 경우에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1, 두 번째 라운드에서 5, 세 번째 라운드에서 9, 네 번째 라운드에서 13, 다섯 번째 라운드에서 17을 선택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만약 참여자가 한 번이라도 우월전략에서 벗어나게 되면, 컴퓨터는 이미 우월전략을 행동하도록 코딩되어 있으므로, 해당 라운드에서 컴퓨터에게 패배하게 된다.

위의 결과에 따라, 가장 높은 목표숫자에서 승리한 것을 해당 참여자의 합리성의 척도로 삼는다. 즉, 목표숫자 17에서 컴퓨터를 상대로 승리한 참여자는 4만점의 합리성 척도를 얻게 되며, 목표숫자 14에서 승리한 경우 3만점의 합리성 척도를 얻게 된다. 마찬가지로, 목표숫자 11인 경우에서 승리한 경우 2만점, 목표숫자 5에서 승리한 경우 1만점의 합리성 척도를 가지게 된다. 어떠한 목표숫자하에서도 승리하지 못한 경우는 0만점의 합리성 척도를 부여받게 된다. 주의할 점은 합리성의 평가 우선순위를 높은 숫자에서 승리한 것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목표숫자 17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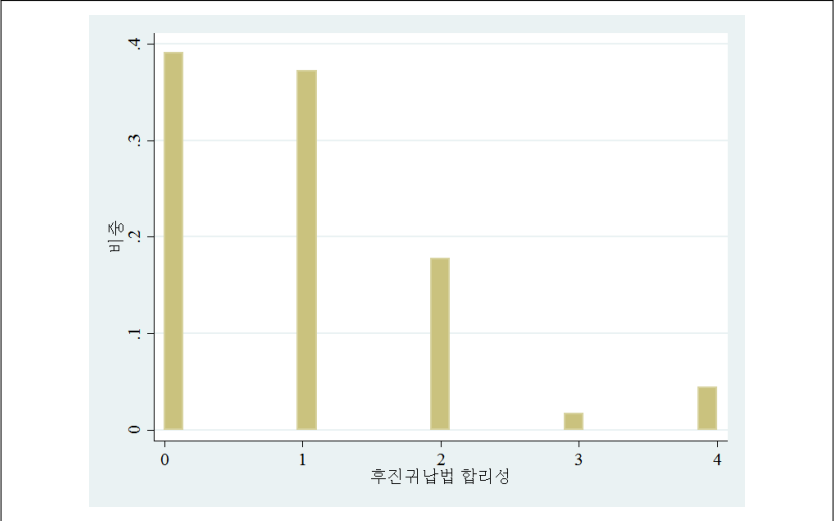
승리한 경우, 17보다 작은 숫자에서 컴퓨터를 상대로 승리한 것과 관계없이 17에 준하는 4만점의 합리성만 부여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림 9-2]는 후진귀납법 응답에 따른 타입의 유형 분포도를 보여준다. 약 40% 가까운 사람들이 네 가지의 목표숫자 중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였으며, 약 37%의 사람들이 1만점의 합리성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그림 9-1] 후진귀납법 행동실험에 대한 스크린 샷



[그림 9-2] 후진귀납법 응답에 따른 유형 분포도



목표숫자가 5인 경우에서 승리하였고 그 이상의 숫자에서 모두 패배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약 18%의 사람들이 2만큼의 합리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목표숫자가 11인 경우에서 승리하였고, 그 이상의 목표숫자에서는 패배하였음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3만큼의 합리성을 가지는 사람들은 약 2%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4%의 사람들이 4만큼의 합리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0.94만큼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진귀납법에서 낮은 수준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후진귀납법의 합리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샘플 내에서 다른지는 <표 9-2>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약 0.12만큼 더 합리적인 모습을 보인다. 연령과 관련하여서는 20대 이하에서 1.20만큼의 합리성을 가지고, 30대에서는 1.09만큼의 합리성을 가지며, 40대에서는 0.83, 마지막으로 50대에서는 0.80만큼의 합리성을 지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나이와 합리성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로 알 수 있는 것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합리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학력과 관련해서는, 고졸 미만의 경우 약 0.81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고졸의 경우 0.94, 대졸 이상의 경우는 0.97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력이 증가할수록 합리성의 정도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또, 취업 상태와 미취업 상태 사이의 후진귀납법 합리성 사이에는 취업 상태의 경우 약 0.93의 합리성을 보이는 반면 미취업 상태의 경우 약 0.99의 합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 자산의 경우 1억 원 이하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약 0.96의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의 가구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약 0.97만큼의, 2억 원을 초과한 가구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약 0.92만큼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자산의 경우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표 9-2〉 후진귀납법 합리성의 인구학적 특성 분포

| | | 평균 | 표준편차 | 샘플 수 |
|----------|-------------------|------|------|------|
| 성별 | 남성 | 1.01 | 1.04 | 395 |
| | 여성 | 0.89 | 0.98 | 457 |
| 연령 | 20대 이하 | 1.20 | 1.09 | 116 |
| | 30대 | 1.09 | 0.95 | 233 |
| | 40대 | 0.83 | 0.97 | 251 |
| | 50대 이상 | 0.80 | 1.02 | 252 |
| 학력 | 고졸 미만 | 0.81 | 0.94 | 66 |
| | 고졸 | 0.94 | 1.08 | 376 |
| | 대졸 이상 | 0.97 | 0.94 | 410 |
| 취업 상태 | 취업 | 0.93 | 1.00 | 563 |
| | 미취업 | 0.99 | 1.00 | 289 |
| 가구자산 | 1억 원 이하 | 0.96 | 1.05 | 274 |
| |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0.97 | 1.03 | 223 |
| | 2억 원 초과 | 0.92 | 0.95 | 355 |

제2절 내적 전략사고

내적전략사고의 경우 Rubinstein(2012)의 Money Request Game을 활용하였다. 응답자는 본인이 속한 위치에 따라 본인이 받게 될 답례금을 선택하게 된다. 위치는 A, B, C, D, E 5종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이웃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A 위치는 이웃을 가지고 있지 않다. B는 A를 이웃으로 가지고 있으며, C는 B를 이웃으로, D는 C를 이웃으로, 마지막으로 E는 D를 이웃으로 가지고 있다. 이는 [그림 9-3]에서 그래프를 통해 참여자에게 나타난다.

응답자는 1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본인이 선택한 금액만큼 기본 금액으로 가져가게 되며, 응답자의 이웃 보다 1만 원 더 적게 선택한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10만 원의 보너스

[그림 9-3] 내적 전략사고 행동실험에 대한 스크린 샷

1 회

귀하는 C에 있습니다.
아래의 1만원에서 5만원까지의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 1만원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조사# 금액 선택

이웃 귀하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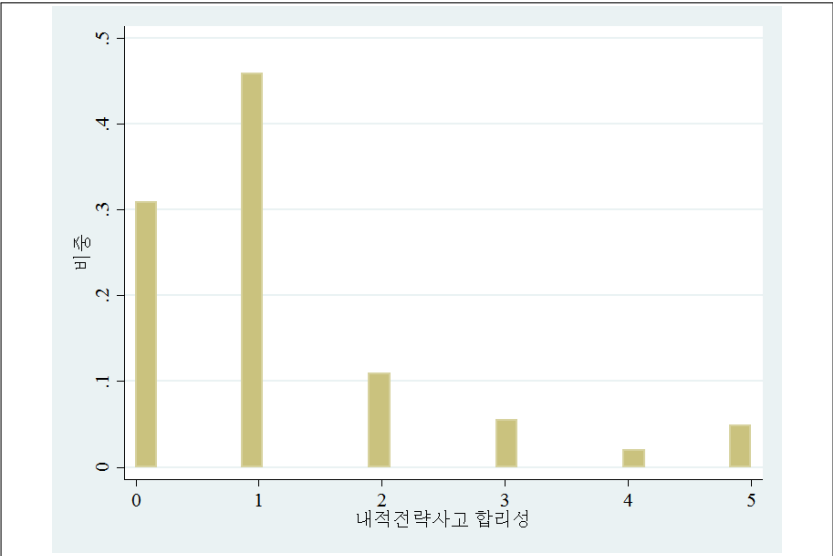
를 받아가게 된다. 즉, 만약 참여자가 B의 위치에 있는 경우 이웃 A가 4만 원을 선택한 경우 3만 원을 선택한다면, 기본 금액 3만 원에 더하여 1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수구조하에서, 내쉬균형은 A의 위치에서 5만 원, B의 위치에서는 4만 원, C의 위치에서는 3만 원, D의 위치에서는 2만 원, E의 위치에서는 1만 원을 선택하는 것이다. 응답자는 총 5번의 선택을 각기 다른 위치에서 선택하게 된다.

내적 전략사고에 따른 합리성은 [그림 9-4]와 같은 분포를 지닌다. 약 31%의 사람들이 0만큼의 내적 전략사고 합리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46%의 사람들이 1만큼의 내적 전략사고 합리성을 지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의 사람들이 약 2만큼의 내적 사고 합리성을, 약 4%의 사람들이 3만큼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2%의 사람들이 4만큼의 합리성을 지니는 것으로 드러났고, 마지막으로 4%의 사람들이 5만큼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후진귀납법 합리성 측정의 경우처럼 상당수의 사람들이 0 혹은 1만큼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3>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내적 전략사고 능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지를 나타내는 표이다. 첫 번째로, 남성은 1.21만큼의 합리

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1.11만큼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이전 파트의 후진귀납 합리성의 패턴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내적 전략사고 합리성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20대의 경우 1.31만큼의 합리성을 지니는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약 1.13만큼의 합리성을 띠므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성을 알 수 있다. 학력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졸 미만의 사람의 경우 약 1.00만큼의 합리성을 지니지만, 고졸의 경우 1.12, 대졸 이상의 경우 1.22만큼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전의 후진귀납 합리성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 상태와 관련해서는 취업자가 1.21만큼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취업자는 1.06만큼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자산과 관련하여서는 가구자산이 감소할수록, 내적 전략사고 합리성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9-4] 내적 전략사고 능력 유형에 대한 분포도



〈표 9-3〉 내적 전략사고 합리성의 인구학적 특성 분포

| | | 평균 | 표준편차 | 샘플수 |
|------|-------------------|------|------|-----|
| 성별 | 남성 | 1.21 | 1.29 | 395 |
| | 여성 | 1.11 | 1.20 | 457 |
| 연령 | 20대 이하 | 1.31 | 1.44 | 116 |
| | 30대 | 1.18 | 1.33 | 233 |
| | 40대 | 1.10 | 1.20 | 251 |
| | 50대 이상 | 1.13 | 1.12 | 252 |
| 학력 | 고졸 미만 | 1.00 | 1.01 | 66 |
| | 고졸 | 1.12 | 1.09 | 376 |
| | 대졸 이상 | 1.22 | 1.31 | 410 |
| 취업상태 | 취업 | 1.21 | 1.27 | 563 |
| | 미취업 | 1.06 | 1.09 | 289 |
| 가구자산 | 1억 원 이하 | 1.19 | 1.24 | 274 |
| |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1.17 | 1.24 | 223 |
| | 2억 원 초과 | 1.12 | 1.26 | 355 |

제3절 눈을 통해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Cohen et al.(1997)은 심리학에서 사람의 눈을 보고 이를 통해 사람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심리검사를 마련한 바 있다. 이 테스트는 자폐증(autism)을 앓고 있거나 그 위험군인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판별한 바가 입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타인의 감정을 잘 읽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자들은 총 28개의 문항에 답하는 것으로 시간제한 없이 참여하였으며, 28개의 문항 중 정답을 더 많이 맞출수록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정도의 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아래의 [그림 9-5]는 예시 문항을 보여준다.

[그림 9-6]에서는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의 분포를 보여준다. 분포는 정규분포와 같은 형태를 따르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19.3 정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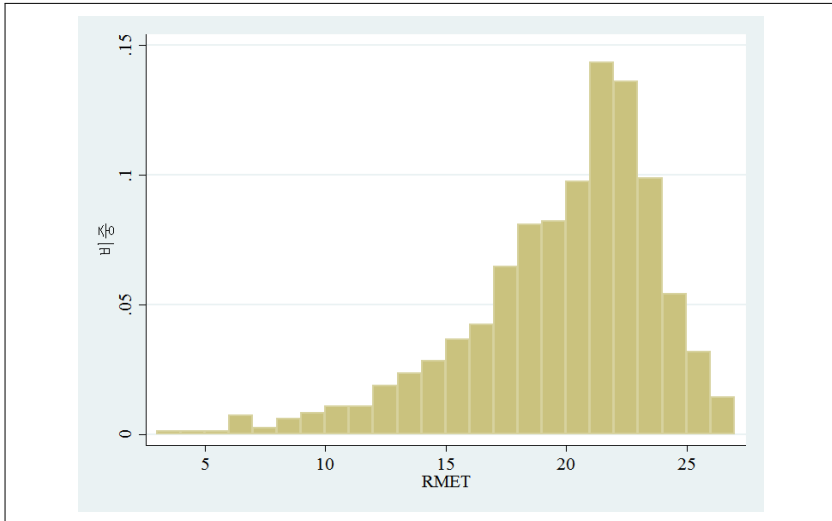
정답률을 가지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약 3% 정도의 사람들이 10개 이하의 정답률을 가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문헌과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결과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같은 분포를 통해 나누어보면 <표 9-4>와 같다. <표 9-4>에는 사람들의 인구구성학적 분포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 있다.

<표 9-4>에서는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평균점수와 표준편차가 나타나 있다. 첫 번째로, 기존의 합리성 측정 정도와 같이 남성이 여성보다 0.03만큼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합리성 척도와 다르게, 마음을 읽는 능력에서 20대보다 30대가 가장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마음을 읽는 능력이 18.28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음을 읽는 능력과 학력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학력이 고졸 미만의 개인인 경우 평균적으로

[그림 9-5] RMET 설문에 대한 스크린 샷



[그림 9-6] 마음을 읽는 능력에 대한 분포도



17.87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고졸의 경우 19.03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졸 이상의 경우 19.33만큼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기존의 합리성 결과들이 학력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취업 상태와 관련하여서는 취업 상태의 경우와 미취업 상태의 경우에서 마음을 읽는 능력의 차이가 각각 19.34와 19.37로 0.03만큼의 차이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구자산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합리성에 대한 척도가 가구자산과 큰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에 비하여, 양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자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9.07만큼의 능력을 지니지만, 가구자산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42만큼의 능력을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구자산이 증가할수록 마음을 읽는 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개인의 합리성과 사회경제적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통해서 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 9-4>에서는 해당 회귀 분석식을 보여준다. 회귀분석에서 표준오차는 개인 레벨

〈표 9-4〉 마음을 읽는 능력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 분포

| | | 평균 | 표준편차 | 샘플 수 |
|-------|-------------------|-------|------|------|
| 성별 | 남성 | 19.35 | 4.05 | 395 |
| | 여성 | 19.32 | 3.89 | 457 |
| 연령 | 20대 이하 | 19.43 | 4.37 | 116 |
| | 30대 | 20.28 | 3.34 | 233 |
| | 40대 | 19.20 | 3.88 | 251 |
| | 50대 이상 | 18.28 | 4.15 | 252 |
| 학력 | 고졸 미만 | 17.87 | 4.76 | 66 |
| | 고졸 | 19.03 | 3.98 | 376 |
| | 대졸 이상 | 19.33 | 3.63 | 410 |
| 취업 상태 | 취업 | 19.34 | 3.88 | 563 |
| | 미취업 | 19.37 | 4.12 | 289 |
| 가구자산 | 1억 원 이하 | 19.07 | 4.13 | 274 |
| |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19.34 | 3.71 | 223 |
| | 2억 원 초과 | 19.42 | 3.98 | 355 |

에서 클러스터 되었다. <표 9-5>의 첫 번째 열에서는 후진귀납 합리성과 각 사회경제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우선 후진귀납 합리성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0.15만큼 유의미하게 후진귀납 합리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연령과 1% 유의수준하에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의 나머지 사회경제적 변수들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내적 전략 합리성과 같은 경우 연령과 1% 유의수준하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의 취업 상태나 성별과 같은 인구구성학적 변수와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연령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개인의 학력수준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개인의 합리성에는 연령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연령을 통제했을 때 후진귀납법에서는 남성 여부,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에서는 학력수준이 영향을 미침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외의 취업 상태나 가구자산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표 9-5〉 회귀분석 결과

| 종속변수 | 후진귀납 (1) | 내적 전략 (2) | 마음 이해 (3) |
|----------|-----------------------|-----------------------|-----------------------|
| 남성 | 0.151 *** (0.07) | 0.058 (0.090) | 0.035 (0.286) |
| 연령 | -0.137 *** (0.002) | -0.006 *** (0.003) | -0.043 *** (0.011) |
| 교육수준 | | | |
| 고졸 | 0.004 (0.135) | -0.110 (0.159) | 1.439 *** (0.616) |
| 대재 이상 | 0.025 (0.076) | -0.062 (0.097) | 1.628 *** (0.282) |
| 취업 | -0.051 (0.077) | 0.143 (0.094) | -0.021 (0.031) |
| 가구자산 | -0.001 (0.042) | -0.032 (0.051) | 0.183 (0.167) |
| 상수항 | 1.489 (0.133) | 1.376 (0.166) | 21.423 (0.521) |
| R-square | 0.037 | 0.010 | 0.043 |
| 샘플 수 | 852 | 852 | 852 |

참고문헌

- Arad, A. and A. Rubinstein(2012), “The 11-20 Money Request Game: A level-k Reasoning Study,” *American Economic Review* 102(7), pp.3561~3573.
- Barron-Cohen, S., S. Wheelwright, and T. Jolliffe(1997), “Is There a ‘Language of the Eyes’? Evidence from Normal Adults, and Adults with Autism or Asperger Sdrome,” *Visual Cognition* 4(3), pp.311~331.
- Gneezy, U., Rustichini, A., and Vostroknutov, “The 11-20 Money Request Game: A level-k Reasoning Study,” *American Economic Review* 102(7), pp.3561~3573.

◆ 執筆陣

- 김유빈(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지은(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 최승주(서울대학교 교수)
- 신선옥(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해정(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 정현상(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제20차(2017)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 | |
|-----------|--|
| ▪ 발행연월일 | 2018년 12월 24일 인쇄 2018년 12월 28일 발행 |
| ▪ 발 행 인 | 배 규 식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 ▪ 조판 · 인쇄 |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협회 인쇄사업부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13-155호 |

ISBN 979-11-260-0258-0

정가 7,000원